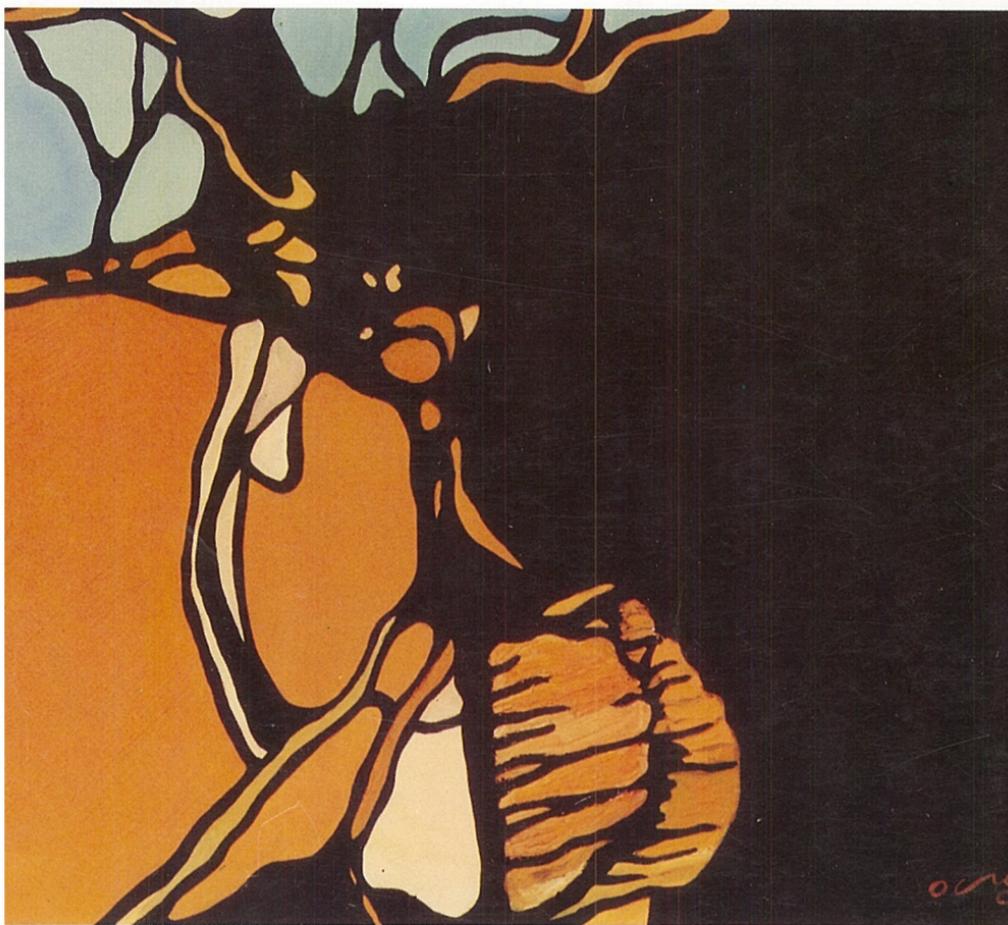


교육경북

1992/ 제101호

特輯：統一에 對備하는 敎育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경북

1992/ 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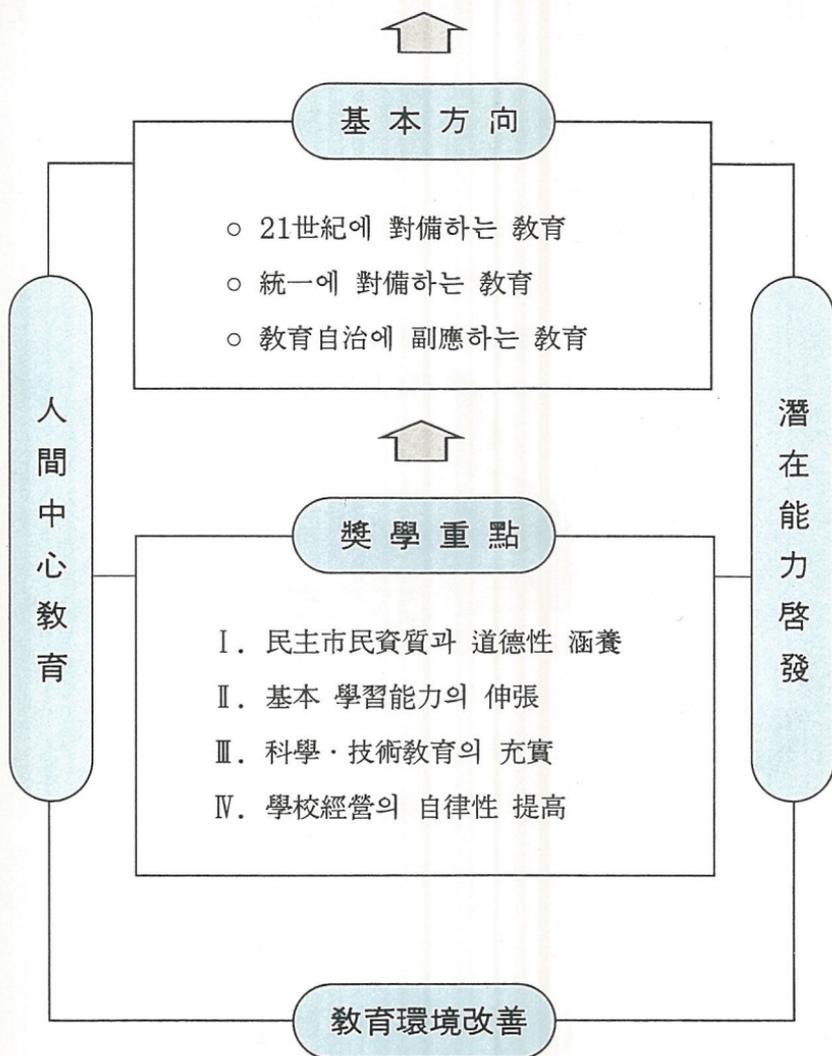
特輯 :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



경상북도교육청

慶北教育의 指標

未來를 創造하는 슬기로운 韓國人 育成



경북 교육의 노래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작사
임 우 상 작곡

Moderato



1. 샘 물 처 럼 솟 아-난 나 라 의 인 물.
2. 대 순 처 럼 솟 아-난 문 인 장 수 들



빛 나 는 겨 레 문 화 이 룩 한 고 장
거 룩 한 겨 레 의 얼 일 깨 운 고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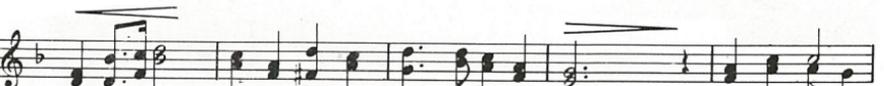


여 기 는 이 - 나 라 교 육 의 요 - 랍
여 기 는 이 - 나 라 인 재 의 산 -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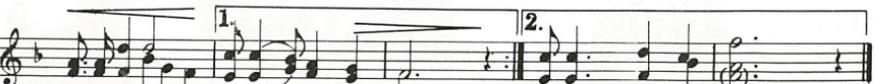


교사 [가 르 치 는 낙 으 - 로 평 생 을 산 - 다
가 르 치 는 보 람 으 로 평 생 을 산 - 다

학생 [배 - 우 고 또 익 혀 서 큰 뜻 을 쫓 아 - 리
배 - 우 고 또 익 혀 서 나 라 위 하 - 리



아 - 응 도 경 북 경 북 의 교 육 백 년 을



헤 아 리 며 앞 장 - 서 간 다 앞 장 서 간 다



◀ 제38회
과학전람회
('92. 7. 2.
도과학교육원)

▶ 제32회
교육자료전시회
('92. 8. 5.
경산국민학교)



◀ 제10회
과학상자조립
경연대회
('92. 8. 18.
도과학교육원)

▶ 제20회
회람문화제
('92. 10. 31
경주회람교육원)



교육부지정
급식교육연구
보고회
('92. 9. 18.
성주용암국민학교)



◀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입장하는
경북선수단
('92. 10. 10.
대구시민체육
경기장)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
도서관 준공
('92. 10. 15.
영천)



◀ 경북체육중·
고등학교
실내수영장
증축공사 기념
('92. 10. 29.
경북체육중·
고등학교)



◀ 교육감과
교사와의 대화
('92. 8. 12
청도교육청)

김주헌교육감은 중추절을
맞이하여 결핵요양원
밀알의 집을 방문
그들을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
('92. 9. 8.
고령 밀알의집)



◀ 도교육청과 교
련 교섭·협회
개최
('92. 10. 16.
경북교육청)

국민교육헌장 ▶
선포 제24주년
기념 국민교육
유공자 포상식
('92. 12. 5.
경북교육청)



卷頭言	10	우리 教育의 指向과 ‘東賢의 敎訓’ /慶尙北道教育監 金青顯
招待席	13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政策 /韓國教育開發院 統一教育研究部長 박재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10px 0;">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 </div>		
特 輯	18	統一對備教育의 獎學方向 /副教育監 朴致旭
	27	分斷國의 統一努力과 우리의 課題 /朴震斗
	35	南北和解·協力時代의 統一教育 推進方向 /姜士遠
	43	北韓理解教育資料의 開發과 活用 /李東厚
	52	統一對備를 위한 學校教育의 課題 /李光旭
	62	北韓의 學校 教育의 片貌 /權五錫
	66	北韓의 人民學校 國語敎科書에 대한 考察 /정춘자
教育廣場	77	學校 發展의 序章 一校長의 指導力一 /姜贊中
	83	일을 끝까지 해내도록 하는 教育 /鄭基範
	89	放送프로그램의 敎材性을 살리는 길 /洪寅澤
教育論壇	95	初等 新規 任用 豫定 敎員研修課程에 對한 小考 /徐正隆
	110	再考되어야 할 教育現場의 問題 /金昌浩
	115	우리 教育의 虛像과 實像 /咸相泰
	122	열린敎育과 教育課程運營 /馬公信
教育研究	130	音樂教育의 當面課題 一創造性 開發을 中心으로一 /崔浩昌
	137	適性別 科學日記쓰기가 發展의 思考促進에 미치는 影響 /南一國
	145	社會科 討議 學習이 探究力 伸長에 미치는 影響 /嚴泰燦
	154	사고의 점층적 확산 지도를 통한 글짓기 능력의 신장 /서석보

教育實踐事例	162	농촌 벽지학교에서의 학력 향상 활동 / 권혁원
	169	남녀 아동의 對立關係 解消을 위한 학급경영 / 임인숙
	176	經驗의 活動 強化를 통한 自律性 涵養 / 정한식
特殊 · 幼兒 教育	185	幼兒의 全人發達을 助長하는 授業方法 探索 / 權寧日
	193	人間中心 教育課題 運營을 爲한 自由選擇 活動 / 송옥화
	200	特殊學校(級) 水準 教育課程 編成과 運營 方向 /李大杰
訓話資料	206	殺身成人의 본이 된 최환정군 / 고령 우곡국민학교

教壇文藝

教壇文藝	208	시 ▶ 삼복 / 이익주
	209	시 ▶ 연서 / 이시백
	210	시조 ▶ 합주 / 조순호
	211	동화 ▶ 엄마 선생님 / 권영호
	214	수필 ▶ 소중한 만남 / 김영희
	216	수상 ▶ 그 때 그 분 K, Y, T / 남길수
教育情報 및	220	과학퀴즈함 설치 운영 / 칠곡 기산국민학교
	226	주남벌에 울려 퍼진 傳統의 소리 / 영천 영천국민학교
教壇消息	227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 포상자
	228	전국현장교육 연구대회 입상자
	229	전국교육자료 전시회 입상자
	230	교원 예능 실기대회 입상자

表紙컷 · 이 상 희
(경주 서라벌여중)

형태별로 분열된 우리의 의식이 끝나는 날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도 굳어진다.

우리 教育의 指向과 ‘東賢의 教訓’

慶尙北道教育監 金 胄 顯



우리는 일찍이 人倫과 道義를 崇尚함을 至高한 理想으로 삼고 삶을 가꾸어 온 거래입니다. 그럼에도 近者 우리 社會는 거둬드는 激變속에서 蔓延된 物質萬能 風潮로 갖가지 非人間化現狀을 야기시키고 있음도 否認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 教育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摸索해야 함은 오늘의 當面한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같은 일은 오로지 物質文明과 調和를 이룰 精神文化의 繼承發展을 도모함으로써 人間の 價値를 生活속에서 實現하게 하는데서 찾아가야 하리라 믿어집니다. 그것은 教育의 窮極的 目的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려는데 있으며, 그 길은 人間の 尊嚴性을 바탕으로 한 相互信賴의 관계 속에서 公同의 發展을 위해 노력하는 民主市民을 育成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教育廳에서는 우리 傳統倫理의 精神的 價値를 發掘, 교재로 編成하여 現代生活에 具現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未來를 創造하는 슬기로운 韓國人’으로 成長시킬 수 있다는 信念으로 〈東賢의 教訓〉教材 開發에 着眼하여 그동안 온갖 곡절을 겪고, 이제 그 첫번째로 ‘밝은 마음 바른 생활’을 世上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祖上의 叡智가 담긴 傳統倫理의 現代的 理解를 통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心性과 道德性을 涵養하여 주고자 하는 우리들의 所望으로 이룩한 작은 成果라고 自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오늘의 危機를 救濟할 수 있는 길은 共存

과 和合의 東洋精神과의 만남에서 찾아야 한다고 갈파한 碩學 토인비의 일깨움과도 合致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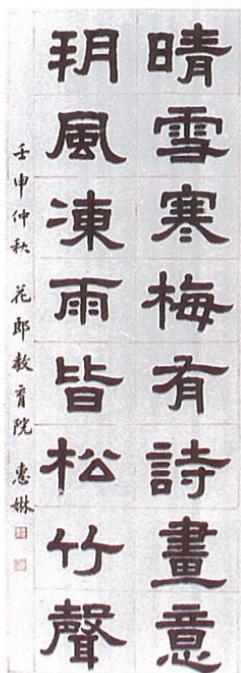
따라서 이 〈東賢의 敎訓〉이 學校의 教育活動過程에서 학생들과 쉽게 만날 기회가 마련되고 珠玉같은 先賢의 말씀들이 학생들의 日常속에서 알알이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알뜰한 努力이 學校와 家庭과 地域社會의 곳곳에서 活潑하게 展開되길 바라는 마음 懇切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우리 慶北人의 至誠이 담겨진 法古創新의 〈東賢의 敎訓〉教材로 하여금 道德不在의 어두운 現實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으리라는 期待도 함께 갖고자 합니다.

1992 年 8 月 10 日

제12회 교원예능실기대회 우수작 ('92. 10. 31)



〈금상〉 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박기욱



〈은상〉

김천서부국교 교사 박보영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政策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부장 박재운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년)」에서 ‘남북평화공존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 민주공화국 실현과 민족공동체 발전’이라는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통일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남북이 평화 공존 체제를 더욱 정착시키고, 통일에의 과도기인 남북 연합을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통일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 공동체를 실현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평화 공존의 정착, 남북 연합 체제의 실현과 발전, 통일 국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제도적 개혁과 함께,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통일에 대하여 교육이 효율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치밀한 사전 계획이 수립되어 잘 수행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통일에 대하여 교육이 가장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첫째,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별도로 총괄하여 추진하는 체제가 확실히 정립되어 효율적인 기획, 예산 편성, 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총괄 체제’라는 말은 여러 분야의 개별 계획과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종합, 평가하며 조정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체제와 이를 위한 조직, 기구 설치·운영, 종합 계획의 수립, 소요 비용의 조달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그것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총괄 체제가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현대 행정의 복잡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책들은 여러 부처, 부서, 기

관 등의 소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특히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총괄 체제의 충실한 정립이 1차적으로 요구된다. 정책 조정과 추진을 위해서 부서 창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의견 조정 기구가 필요하고, 정책심의 자문 기구들과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 등이 협조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단계별로 학생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 미리 설정, 준비되어 그때마다 적절한 교육 방향이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되어 교수-학습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겠다.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에 가서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업 현장에 반영되며 여기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경험해야 하는 어떤 활동, 또는 언어야 하는 능력, 태도, 기능 등을 중심으로 짜여진 일종의 교육 계획, 혹은 교육 활동의 전개를 위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안내서로 볼 수 있다. 통일에 대비하여 정립되어야 할 교육과정은 통일의 단계별 상황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사전에 신중히 계획되어야 상황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일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과 남북한의 통일 정책, 방안에 대하여 학생들이 잘 이해토록 하는 일과 남북한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는 일, 이를 위해서 필요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일이다. 아울러 남북 분단의 결과로 초래된 폐해와 고통을 이해하게 하는 일과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 조국 통일에 대한 신념과 민족의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 통일 후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능력과 자세를 인식시키는 일, 북한 실상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남북한 사이에 초래된 이질화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갈등의 성격과 이의 극복을 위한 능력을 길러주는 일, 통일의 실제 절차와 방법을 이해케 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 방식을 익히며 합리적 논의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 통일을 위한 전략, 정책, 방안의 의미와 개념을 이해케 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에서의 평화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을 이해하며,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통합을 이해하고 당면하게 될 상황의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일 등이다.

'통일이 된 후'에는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게 정립되는 국가 이념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이고 민족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이념이 무

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시켜 주는 일을 해야 한다. 민족공동체와 통일 국가의 발전에 헌신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일, 통일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지식과 태도와 기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 정치·경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용하며, 직업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일, 통일후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와 혼란에 대하여 적용하게 하는 일 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과용 도서와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는 과제로는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명시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가졌으며,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침들을 집대성한 종합적인 새로운 체제와 내용의 지침과 지침서, 기타 해설자료들을 대량으로 편찬, 발행, 보급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토록 하고,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통일에 관련된 수업의 진행에 있어서 애로와 부담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교과서의 개정 작업은 법정 주기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신축성 있는 개정이 어려운 요소를 극복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한 관계 변화를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95년에나 교과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6차 교육과정속의 도덕과 교육내용의 하나인 「국가·민족 생활」 관련 내용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수업에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 교육 행정에 대한 지도, 지원과 인적, 재정적 지원이 활성화 되어 지역 사회의 교육행정과 학교교육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육운영'이라는 용어는 편의상 지방 교육 행정을 지도, 개선하고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일 전에는, 지역별로 국민 교육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신설과 증설, 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 등을 통한 기회 균등을 추구하는 한편 의무 교육의 연한을 연장하는 일과 취학전 교육을 확충하는 일 그리고 교육 행정 체제를 현대화 하는 일,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통일 대비 교육 정책들을 지도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일들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학교나 지방 교육체제의 운영을 위한 인적 지원 측면에서는 통일 대비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추가로 확보하든가 아니면, 기존 행정 조직의 개편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원해 주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교육 인사 제도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통일 대비 교육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확보,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류·협력과 통일후 교육체제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통일 후에는 교육 운영 체제 전반이 개혁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통일 국가의 중앙-지방 교육 행정 기관의 창설, 학교 신·증설 및 학생 수용 계획이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다. 남북 지역의 의무 교육 연한 연장 문제, 유아 교육 확대 문제, 특수 교육의 확충 문제 등이 부각될 것이다. 교육 인사 행정 제도와 교육 재정 제도 전반이 개혁될 것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넷째, 가르치는 사람들을 잘 키워내고 연수시켜 교수-학습에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실시되는 교육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달려다고도 볼 수 있다. 통일 대비 교육 정책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과 연수 체제의 대폭적 개선을 통해서 교사들부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획득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직접 통일에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공급받아야 하며, 각종 학술적인 토론과 연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교사 연수 체제의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 평화 공존 체제의 정착과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자세를 내면화할 수 있는 연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 국민 정신 교육의 개선, 그리고 교사들의 해외 견학 사업의 개선 등을 통해서 교사들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고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6차 교육과정에 따른 통일 관련 교육 내용을 교사들에게 미리 연수시켜야 할 것이다.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교사들이 주지해야 하며 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과 능력 재고를 위해서 연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수 내용을 충실히 해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인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실시하여 관심과 이해를 높이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사람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국민들이며, 사회 교육은 학생이 아닌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소요되는 시설, 설비를 지원하여 물적인 조건으로 정책 추진이

제약 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시설과 설비는 교과용 도서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통일에 대비한 교육 정책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시설·설비 지원은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소요 시설 지원을 위해서 미리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가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을 위한 시설·설비도 지원해야 하며,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시설도 적시에 지원되어야 한다.

일곱째, 북한 교류·협력과 국제 협력을 잘 추진하여 북한의 제반 제도 개혁과 주민 의식의 전환을 유도·촉진하며, 통일에 유리한 국제 여건을 조성하는데 성공할 때 통일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는 커질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정책은 남한의 교육 체제 개선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교육 교류·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 국가를 추진하며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공동체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한 교육 교류·협력 사업은 그 총괄 기구의 조정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추진해 볼만한 사업으로 교육관계 문헌·자료·정보의 교환, 학생들의 수학 여행, 고적 답사 활동, 교육 관계자나 교원 단체의 교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건이 더 좋아지면 비이데올로기 교과와 공동 개발이나, 남북 교육 제도의 공동 구상이나 학교, 연구소 등의 자매 결연 등의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수준에서 남북 교육 회담과 교육에 관한 협정의 체결 그리고 이같은 활동을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교육 제도와 주민 의식 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접촉과 대화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일이다. 동포 특히 구 사회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 후에는 민족공동체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정세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제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統一對備教育의 獎學方向

慶尙北道副教育監 朴 致 旭

I. 序

民族의 念願인 祖國統一이 國際情勢 變化와 우리의 自主의인 努力으로 實現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統一의 길에는 넘어야 할 險難한 高개가 많이 놓여 있다. 이 어려움을 이겨서 統一을 앞당기고, 統一後에 하나의 祖國을 이룩하는 데는 教育의 힘이 作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

헬름트 콜 西獨總理가 統一 1年前까지만 해도 獨逸統一을 꿈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스스로 告白한 것¹⁾처럼 統一은 豫測하기가 힘들고, 여러가지 複合的 要素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을 통하여 長期的인 眼目에서 여러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가면서 統一의 方向으로 接近해야 할 것이고, 統一後 名實相符한 하나의 나라가 되는 데도 教育의 힘이 크게 作用하여야 할 것이다.

現時點에서의 獎學方向은 자라나는 學生들에게 統一에 대한 꿈과 Vision을 提示해 주고 아울러 統一을 實現하는 데 必要한 方向을 提示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統一對備教育의 意義와 方向, 거기에 따른 우리 道의 統一對備教育 內容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1) 朝鮮日報, 1990. 10. 5日字, 2面.

II. 統一對備教育의 意義

1990年 10月 3日, 全世界人의 놀라움과 祝福 속에 世界 第二次大戰 當事國이며 敗戰國이었던 獨逸이 統一을 成就했던 것이다.

이때 西獨의 閣 首相은 對國民 演說에서 “우리에게 더욱 重要的 것은 서로를 理解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獨逸이 아직도 이곳과 저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²⁾라고 했고, 東獨의 드메지에르 總理는 告別辭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統一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國家로 묶는 것은 어제까지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바라는 來日의 우리임을 생각합시다”³⁾라고 말했다.

兩 總理들이 하나가 될 것을 強調했을 뿐만 아니라, 그 10年前부터 西獨에서는 統一教育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統一된 獨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의 壁’을 허물지 못했고, 文化의 衝擊에 舊東獨人들은 갈피를 못잡고, 舊西獨人들은 統一費用에 큰 苦痛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統一을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닌가 하는 批判이 높아지고 있다 고 한다.⁴⁾

이와 같은 先例가 있기에 우리는 이런 問題들을 감안하고 豫想되는 問題點들을 하나 하나 克服해 가면서 統一을 對備한다면 獨逸보다는 어려움을 未然에 防止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分斷된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를 같이 하고, 言語가 같은 우리 겨레가 서로 自由롭게 往來하면서 어울려 산다는 것은 至極히 當然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다시 없이 渴望하고 있다.

統一은 熱望한다거나 感傷에 의하여 實現되기도 어렵지만, 統一된 것 보다는 차라리 分斷狀態로 있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國民들 가슴에 생긴다면 그것은 民族의 異質化만 形成하는 結果를 빚게 될 것이다.

美國의 니콜라스 에비슈테트가 日本의 닛케이 비즈니스에 寄稿한 것을 보면 南北統一 經費가 約 3백80조 가량 들 것⁵⁾이라고 했다. 또 英國의 한 研究所도 이와 비슷한 액수를 말하고 있다.⁶⁾

2) 上揭書, 同日字.

3) 上揭書, 同日字.

4) 上揭書, 1992. 10. 28日字, 5面.

5) 上揭書, 1992. 1. 20日字, 5面.

6) 上揭書, 1992. 5. 21日字, 6面.

統一前, 東獨이 國民總生産面에서 世界 20位를 자랑했고, 西獨은 1人當 國民所得이 2만4천달러나 되었지만 밀빠진 독(東獨地域)에 물 붓는데에도 限界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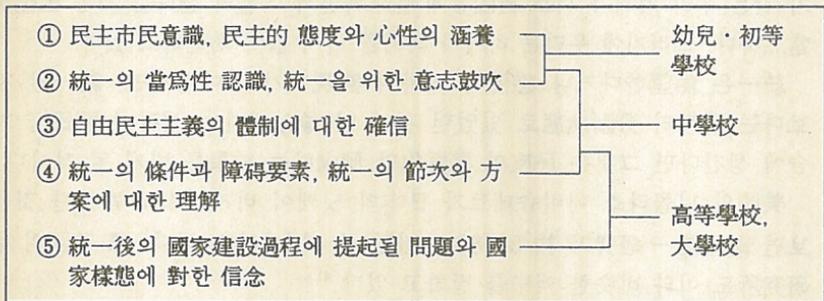
이러한 例를 볼 때, 南韓의 경우 國民 1人當 1千萬원에 가까운 돈을 支拂할 能力을 갖추어야 하겠고, 統一이 되었을 때에 社會的, 文化的, 精神的, 政治的 等 여러 면에서 發生될 수 있는 問題들을 제대로 把握하여 緻密하고 徹底한 對應策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統一에 障礙가 되는 것은 國土分斷과 冷戰期間 동안 形成된 國民들 마음 속의 分斷이다. 이 마음 속의 分斷은 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休戰線上의 地理的 分斷보다도 事實上 더 무서운 障礙가 되고 있다.⁷⁾

마음 속에 形成된 分斷을 解體해 버리고 民族의 同質性을 恢復하는 데는 教育이 아니고는 解決할 길이 없을 것이다.

統一對備教育은 統一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기고 統一後에 繁榮된 祖國을 建設하는데 必要한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한 國民 各者의 確固한 信念과 方法에 대한 理解를 基礎로 한 統一의 基盤이 造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最善의 方法은 教育을 통해서 力量을 기르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Ⅲ. 統一對備教育의 方向



統一院에서는 學校統一教育의 目標⁸⁾를 위와 같이 提示하고, 統一教育은

7) 金基大, 노오(No)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한국, (서울: 도서출판 반딧불, 1992), p. 239.

8) 統一院, 和解와 協力時代의 統一教育基本方向, (統一院, 1992), pp. 63~65.

“첫째, 새로운 統一教育의 基本方向은 各級 學校의 國民倫理 또는 倫理, 道德, 社會, 歷史 등 關聯 各 教科에 걸쳐서 反映되어야 한다.

둘째, 各級 學校教育에 있어서는 提示된 主題 內容을 學生들의 知的發達 水準에 따라 調整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셋째, 統一을 對備하는 教育은 各級 學校 教育課程에서 서둘러 遂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中學校 以上の 統一教育에서 教師는 자신의 主張이나 見解를 結論으로 提示하는 一方의 注入式 授業方式보다는 探究式 授業方法을 多樣하게 活用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오늘과 같은 急變하는 世界情勢와 南北關係의 展開狀況하에서 公式의 教科課程의 適時改編이나 狀況의 變化에 따른 指導指針의 提示는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教育을 擔當하는 教師들은 恒常 이러한 變化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다 正確한 知識과 迅速한 情報를 入手하여 學生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⁹⁾고 했다.

統一教育의 方向과 課題에 대해서 申상조¹⁰⁾는 첫째, 統一教育에서 民族 共同體意識을 高揚하는 教育을 強化해야 하겠다. 둘째 統一教育에서 合理的인 統一對備能力을 培養하는 教育을 強化해야 하겠다. 셋째, 統一教育과 連繫한 民主市民 資質涵養 教育을 強化해야 하겠다고 했다.

崔鉉燮¹¹⁾은

“첫째로, 統一教育은 國民들이 統一을 實現하고 推進하며, 統一 後의 問題에도 對備하여야 하는 實質的인 主體임을 깨닫게 하고, 積極的으로 참여하려는 意識과 態度를 길러야 한다.

둘째로, 統一을 感傷의이고 抽象的으로 認識하는 習慣으로부터, 分析的이고 具體的으로 認識하도록 하여 徹底한 準備과 實踐의 努力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南北韓 間에 廣範圍하게 자리잡고 있는 感情的인 排斥과 敵對意識, 그리고 지나친 競爭의 視角을 變化시키는 教育이 必要하다.

넷째, 여러 가지로 相異할 수 밖에 없는 南北韓 雙方의 政治, 經濟 그리고 社會 文化를 相對方의 立場에서 理解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南北韓 間에 아직도 殘存하고 있는 社會 文化的인 共通性을 發見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相互理解와 共感帶를 높이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9) 上揭書, pp. 64~65.

10) 申상조, 學校統一教育의 새로운 課題-교육월보(교육부), 1992. 3月號, pp. 42~43.

11) 崔鉉燮, 統一教育和 民族의 社會 文化的 統合-月刊 學校經營(서울:教育研究社), 1992. 5月號, p. 36.

했다.

또 金學俊은 첫째, 統一의 形態와 方式에 對한 理解, 둘째, 北韓의 實情을 正確히 理解하여 南北韓 간의 異質性을 確認하고 民族同質性을 恢復하는 問題, 셋째, 統一에 所要되는 費用등 統一을 實現해 나가는 데 있어서 必要한 具體的인 準備事項, 그리고 마지막으로 南北韓 關係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國際情勢의 推移에 對한 認識 등이라고 말하고 있다.¹²⁾

金信一은 첫째, 個個人的인 學習觀을 尊重하고 最大限 保障하는 制度여야 한다. 둘째, 人間을 最高의 價値로 尊重하는 教育이어야 한다. 셋째, 韓國人을 기르는 教育이어야 한다. 넷째, 平生學習을 保障하는 教育制度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現在의 南과 北 어느 쪽의 教育이나, 兩쪽의 教育을 적당히 折衷한 어실픈 教育으로는 안되니까 近 半世紀에 가까이 斷絶되고 歪曲된 民族教育을 새時代에 適合하도록 새롭게 構想해야 한다.¹³⁾고 했다.

以上 여러 學者들의 主張을 綜合해 볼 때 統一을 對備하는 教育의 方向에는 學生들의 水準에 알맞은 統一의 當爲性, 統一意志의 涵養, 合理的인 統一方法의 遂行 過程, 統一의 條件, 統一祖國의 未來像 등을 提示, 教育하여 統一을 앞당기는데 必要한 內容과 統一 後를 對備하는 內容, 나아가서 國家安全保障에 관한 內容까지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統一이 民族의 發展과 繁榮을 위한 當爲의 課題라고 보면 安保는 우리 的인 生存權 確保를 위한 現實的 必要라는 觀點에서 統一教育과 安保教育은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安保의 概念에는 南韓에 局限하는 것이 아니고 韓半島와 韓民族 全體까지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의 벽을 헐어 버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意識을 심어주기 위해 民族의 同質性을 恢復하는 教育이 되어야 하겠다.

둘째, 合理的인 統一能力을 培養하기 위해 民主市民 資質涵養 教育을 徹底히 하여야 하겠다.

12) 金學俊, 統一對備를 위한 學校教育의 基本方向-月刊 學校經營(서울:教育研究社)1992. 3月號, p. 22.

13) 金信一, 統一로 가는 教育의 方向-새교육, 1991. 1月號, pp. 46~48.

셋째, 感情爲主의 黑白論理에서 南北을 보지 말고 客觀的인 입장에서 祖國分斷의 背景과 性格 및 分斷으로 인한 苦痛과 損失을 알며, 南과 北을 바로 알도록 하는 힘을 길러 주어야 하겠다.

넷째, 統一은 複雜한 國際情勢와 關係가 깊으므로 여기에 關心을 가져야 하겠다.

IV. 本道 統一對備教育의 內容

第6次 教育課程에는 統一教育의 方向과 內容이 보다 明確히 提示되었지만 現行 第5次 教育課程에서는 統一安保教育 內容을 첫째, 未來指向의 人 統一觀 提示, 둘째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確固한 信念의 提高, 셋째 北韓實相의 올바른 理解, 넷째 急變하는 國際情勢의 創造的 對應에 두고 있다.

그리고 現 教育內容이 社會的, 時代的 變化에 못따르는 部分은 今年度에 修正 補完되었다. 例를 들면 國名 및 地名의 變更, 共產國의 變化, 南北韓의 國際聯合 加入 等이다.

따라서 本道에서는 統一環境의 變化에 대처하여 核心的으로 다뤄져야 할 主要한 것을 統一對備教育의 獎學重點으로 삼고 있으며 그에 따른 實踐 內容들을 提示하면 아래와 같다.

가. 統一 意志의 涵養과 統一對備 能力 培養

이의 實踐事項으로 첫째, 韓民族 自尊意識의 高揚이다. 韓民族의 悠久한 歷史와 單一民族으로서의 自尊心을 바탕으로 國史教育 및 民族意識教育을 強化한다. 그리고 統一은 單純한 國土의 統一이 아닌 世界 속의 韓民族으로 살아가는 民族의 和合, 國民의 統合이 이루어지고, 歷史的 當爲性을 高揚할 수 있는 民族 統合教育을 實施해야 한다.

둘째, 自由民主主義의 優越性 教育과 民主市民 資質涵養 教育이다. 人間의 尊嚴性, 自由와 平等, 遵法과 秩序, 他人意思 尊重, 資本主義와 市場經濟 原理 教育을 통해 自由民主主義의 價値와 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鼓吹시키고, 學生自治活動의 活性化로 討議文化 定着과 共同生活 訓練을 強化한다.

그러나 偏狹된 眼目으로 極端的인 優越主義와 다른 體制의 無條件 排

擊이 아니라 깊고 넓은 마음에서 보게 한다.

셋째, 統一貯蓄運動의 展開이다.

半世紀에 가까운 分斷으로 인한 아픔과 損失을 겪고 있는 우리 民族은 同質性 恢復을 통한 '民族統合' 이라는 統一의 꿈을 實現함과 統一後의 後遺症을 最少化하기 위해 精神的 經濟的 基盤構築을 튼튼히 하고 統一에 所要되는 費用의 마련을 위해 汎國民的 貯蓄運動이 展開되게 한다.

나. 民族同質性 恢復과 民族共同體意識의 高揚

우리 民族은 半萬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통해 歷史와 文化를 共有하면서 共同體로 살아왔으나 不幸하게도 他意에 의하여 南北이 分斷된 채 서로 다른 體制속에서 民族의 同質性이 破壞되고 異質化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現實에서 統一을 앞당기고 安定된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겨레 모두가 民族의 同質性을 깊이 깨닫고 民族의 構成員으로서 和合하고 努力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의 實踐事項으로 첫째, 北韓 實情 바로 알기 教育이다. 獨逸統合以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問題는 '國民間的 社會的, 心理的 異質性' 때문에 惹起되는 葛藤이라고 한다. 이를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겠다. 民族共同體意識을 高揚하기 위해서 北韓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등 全分野에 걸쳐 否定的인 側面과 異質性的 批判을 止揚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恢復하려는 客觀的 視角으로 理解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傳統文化 再現 機會의 擴大이다. 우리 民族의 固有한 歷史, 傳統文化, 美風良俗 등의 繼承指導를 통해 南韓間的 同質性을 쉽게 恢復할 수 있는 文化的 共通部分을 擴大하고 再現의 機會를 가져 나라 사랑과 民族自尊의 教育도 함께 해야 한다. 또 與件이 許諾된다면 南北韓 學生作品의 交流, 各種 文化祭 行事, 비디오 資料의 相互交換도 考慮해 볼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學生들의 交換 共演도 構想해 봄직도 하다.

다. 國際理解 教育의 充實

鄭世九는 未來에 期待되는 社會科 役割에서 "世界人 養成과 國家人 혹은 民族人 養成 사이에서 葛藤을 느낀다"¹⁴⁾라고 말한 것처럼 國際理解教育은 어렵다.

14) 鄭世九, 社會科 教育의 課題, (서울:培英社, 1986), pp. 39~40.

國際理解教育을 하는 方法的인 面을 생각해 보면, 첫째, 時事 揭示教育을 통하여 地球村 共同體 意識을 鼓吹시키고, 둘째, 펜팔 學生作品交換, 姊妹結緣 等 國際親善 交流活動을 強化하며, 셋째, 國外研修 見聞錄을 發刊하여 活用토록 한다.

V. 結

우리가 이룩할 統一祖國은 分斷以前의 統一國家로의 單純回復이 아니라 自由와 福祉가 民族構成員 모두에게 골고루 實現되는 새로운 나라임을 認識시키는 데 主眼點을 두고 統一對備教育을 해야 한다.

歷史는 다른 時代의 不當한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自身の 時代의 不當한 영향과 環境의 壓制로부터 우리를 救出해 주어야 한다¹⁵⁾고 했다.

우리는 다른 時代뿐만 아니라 지금 이 時代에서도 不當한 영향을 받아서 世界 唯一의 分斷國家로서 아픔을 받고 있다. 歷史는 당연히 이 環境의 壓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不當한 영향들이 건혀가고 있다. 이 때를 對備한 教育이 徹底하지 못하면 또 다른 不當한 영향이 다가올 것이다.

最近 IBRD에서 發表한 '韓國經濟報告書'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南北韓의 經濟가 여러가지 면에서 相互 補完的이며 南韓의 資本, 經營, 技術 人力과 北韓의 勞動力, 天然資源이 結合된다면 韓國은 數十年內에 強力한 經濟國家가 될 것¹⁶⁾으로 보고 있다.

經濟大國이 되는 條件이 統一祖國이다. 우리는 이제 다시 外部環境의 壓制와 不當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완벽한 統一이 이룩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 統一對備教育이 徹底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學校統一對備教育의 成敗는 學生들을 直接 指導하는 教師에게 달려 있음을 前提하여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統一對備教育은 教師의 關心과 指導力量에 좌우된다. 關心은 必要性的인 認識에서 비롯되며 力量은 不斷한 研究에서만 길러질 수 있다는

15) E. A. CARR, 黃文秀譯, 歷史란 무엇인가?, (서울: 汎友社, 1991), p. 68.

16) 中央日報, 1992. 10. 27日字, 7面.

平凡한 論理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둘째, 統一對備教育은 道德, 國民倫理, 社會, 歷史 教科에서 體系的으로 指導하되 他教科, 訓話, 行事 等 汎教科의으로 指導해야 成果를 거둘 수 있음에 留意하고,

셋째, 統一對備教育은 講議보다 事例中心의 討議學習이 效果的이며, 映像媒體 같은 生생한 資料가 必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學生修練, 國土巡禮 等の 直接參與活動을 통한 實踐內容 指導가 統一對備教育에 效果的일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基大, 노오(No)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한국, 서울:도서출판 반딧불, 1992.
- E. H. CARR, 黃文秀譯, 歷史란 무엇인가, 서울:汎友社, 1991.
- 鄭世九, 社會科 教育의 課題, 서울:培英社, 1986.
- 統一院, 和解協力時代의 統一教育基本方向, 1992.
- 統一院,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의 實踐을 위한 모색, 1991. 12. 30.
- 慶北教育廳, 慶北教育發展 5個年計劃(1992~1996), 1992.
- 教育部, 교육월보, 1992. 3月號.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992. 8月號.
- 韓國教總, 새교육, 1991. 1月號.
- 教育研究社, 月刊 學校經營, 1992. 3月號, 5月號.
- 朝鮮日報, 1990. 10. 5, 1992. 1. 20, 1992. 5. 21日字.
- 中央日報, 1992. 10. 27日字.

分斷國의 統一努力과 우리의 課題

鬱陵教育廳 學務課長 朴 震 斗

1. 問題의 意味

우리 民族의 統一은 온 國民의 가슴속에 소용돌이 치며 때로는 强하게 表出되기도 한다. 一般的으로 統一에 對한 國民들의 생각은 多樣하게 느껴지나 主題가 意味하는 統一의 性格을 찾아 보고 그 內容을 吟味하고자 한다.

統一의 概念은 첫째 領土의 統一이요, 둘째 政府 내지 統治權의 統一이요, 세째는 民族統一을 포함한다¹⁾고 한다. 여기서 強調되어야 할 內容은 바로 民族統一인 것이다. 왜냐하면 民族의 統合性 없는 領土統一이나 政權의 統一은 政府가 推進하는 平和的 統一이 될 수 없으며 實사 統合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葛藤과 分裂이 뒤따를지 모르기 때문에 民族을 생각하는 統一方式이 우리에게 주어진 課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南北韓이 相異한 體制속에 異質性이 顯著한 狀態의 統一은 많은 難題를 內包하고 있기에 國民들의 持續的인 努力으로 統一을 成就하는 方案이 摸索되고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2. 統一에 對한 教育的 視覺

가. 統一의 當爲性

우리 民族은 單一民族으로써 數千年동안 歷史的·文化的 同質性을 지

1) 이종각, 平和統一教育과 南北教育會談의 構想, 교육개발, 제11권 6호, 1982, p.10.

너왔으나 南北分斷의 悲運을 맞으면서 南과 北은 이데올로기의 相異性으로 正反對 體制로 發展하여 思想, 價値觀, 生活樣式, 行動樣式, 言語 等 異質化가 深化되고 있어 歷史觀에 立脚한 韓民族의 共同體 意識 卽 統一을 이룩하려는 熱望은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은 統一의 切實性을 政治·經濟·文化面에서 찾아보면²⁾

첫째 政治面에서 비록 雙方이 暫定的으로 서로의 體制를 認定하여 平和定着을 制度化시켰을지라도 각자가 원하는 統一을 하고자 한다면 非生産的인 葛藤만 계속될 뿐이며 이러한 葛藤은 周邊國의 國際的인 要因과 複合的으로 관련되어 韓半島의 政治, 軍事의인 脆弱性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經濟的인 面에서는 北韓의 閉鎖的인 經濟運用으로 인해 極甚한 經濟難을 겪고 있기에 우리의 資本과 技術이 北韓人力 및 天然資源과 結合한다면 韓半島 經濟는 急速히 發展하여 民族繁榮의 길이 열릴 것이다.

셋째 文化的인 面에서는 數千年間의 單一文化를 維持하여 왔던 民族固有 傳統文化를 繼承 發展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民族의 同質性 回復과 國力伸長을 爲한 民族力량의 結集으로 보는 國內的 要因이며 國外的 要因으로서는 世界 各國이 理念과 體制를 超越한 繁榮을 追求하는 國際的 競爭에서 우리의 位置를 確保하려는 現實的인 要請인 것이다.

나. 國民的 和合

1) 國際理解속의 우리

오늘날 國際政勢는 共產主義가 崩壞되고 資本主義體制를 全面受容하여 實用主義 體制를 構築하여 世界平和에 寄與하고 있으며 특히 中國도 開放의 물결속에 自國의 利益을 追求하는 實情이다. 이와 같이 世界 모든 國家들이 相互依存度가 強化되고 實用的인 理解를 重視하는 風潮가 深化되며 民族意識도 高揚되어 自存을 追求하는 現實的인 狀況에서 民族의 統一이라는 우리의 課題는 國內外的으로 二重性을 안고 있는 매우 負擔이 큰 實情이다.

특히 昨今の 國際的 政勢는 ‘狀況突發’ 現狀이다. 이는 우리의 統一努力에 無關하지 않기에 이에 對處하는 國民의 智慧가 있어야 하겠다.

2) 신세호, 分斷國의 教育統治政策, 教育개발, 제13권 제4호, 1991, pp. 41~42.

2) 統一을 爲한 國民像

半世紀의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統一政策은 國際情勢와 國民들의 意識構造 變化에 상당한 部分이 修正 變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南北韓間的 硬直된 對立 關係가 改善되어 統一霧圍氣가 성큼 다가선 듯 하나 名分論에 밀려나는 狀態라서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輿論調查機關인 미디어 리서치가 調査한 '92統一問題 民主化와 言論自由 等에 關한 輿論調查(92. 2. 25)에서 統一의 時期³⁾는 2年~5年 이내가 28.8%, 5年~10年 이내가 24.5% 10年 이상이 28.1%로 應答하여 統一은 10年 이내가 可能하다고 짐치는 한편 期待 可能性이 없다, 모르겠다는 否定的 視覺도 18.6%나 나타났다. 이것은 統一에 對한 時期를 여러가지 要因을 勘案한 國民들의 期待水準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결연한 意志로 統一의 可能性을 成熟시키는데 必要條件을 確保하고 서로의 不信과 敵對感을 씻어내어 언젠가는 더불어 살아야 할 和合의 對象으로 北韓도 自由로운 民族秩序와 幸福을 누리도록 同胞愛를 바탕으로 서서히 統一政策에 結集하는 國民像이 要求된다.

3. 統一에의 教育課題

가. 統一教育의 重要性

最近 韓半島 周邊의 國際政勢와 南北間的 關係改善으로 統一의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統一의 論議는 活潑해지고 있으나 教育에 對한 具體的 論議는 소홀한 편이다.

統一은 一次的으로 政治·經濟와 社會構造의 統合⁴⁾이라 하지만 이러한 體制나 構造統合은 社會構成員의 意識과 價値觀의 融合없이는 不可能한 일이다.

이와같은 課題는 教育만이 解決할 수 있기에 教育의 重要性이 再三強調되는 것이다. 따라서 教育은 國民들이 統一에 對한 바른 價値形成과 既價値觀의 變化를 促進시켜 統一에 對한 信念을 가지고 積極參與하는 水準 높은 統一意識을 強化시켜야 한다.

3) 民族統一協議會,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것들, 통일4월호, 1992. pp.100~101.

4) 金信一, 統一로 가는 教育의 方向, 새교육 1월호, 한국교육, 1991, p. 42.

이제 教育은 統一을 可能하게 만들고 나아가 統一의 持續과 強化에 가장 核心的인 位置에 나서야 하고 前面에 나서야 한다.⁵⁾ 그래서 統一은 教育의 힘에 依하여 그 基盤을 確固히 다져야 할 莫重한 責任이 있는 것이다.

나. 統一教育의 反省

現行 教育課程에서는 과거의 '反共教育' 이라는 用語 대신에 '統一安保教育' 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教科指導時 統一과 安保에 對한 均衡的 視覺을 길러야 함을 強調하고 있다. 卽 學生들로 하여금 無條件的으로 統一만을 追求하는 統一至上主義者가 되게 해서 안되고 安保만을 主張한 나머지 統一無關論者가 되게 해서 안된다. 또한 學生들에게 統一의 自生力을 키워 統一을 이룩해야 할 狀況에 積極對處할 수 있는 視覺을 길러줌으로서 과거의 弘報의 次元에서 注入式으로 주어져왔던 一方的 統一教育을 止揚해야 한다⁶⁾고 強調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統一教育에 많은 問題點이 있었음을 是認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금까지의 統一教育은 政府統一政策 弘報次元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는 點이다.

둘째, 統一教育은 장차 統一祖國社會에서 能動的이고 合理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을 發揮하도록 해주는 努力이 부족했다.

셋째, 지금까지 反共教育은 北韓의 共產主義에 對한 敵愾心과 警戒意識을 특히 強調한 반면 統一에 對한 想像力, 論議方式, 論議節次, 統一方案 등 評價의 眼目的 育成 및 統一文化의 創造, 統一以後에 對備하는 教育等に 소홀히 하였다.

다. 統一教育의 課題

1) 統一教育의 現實的 問題

現行 教育課程에서는 統一과 安保 兩面性을 同時에 指導하도록 그 內容이 精選構成되어 있다. 統一安保教育의 概念은 共產主義에 對한 警戒心과 統一의 意志가 調和를 이루도록 構成되고 推進되는 教育을 말한다⁷⁾고 하였다.

5) 金信一, 전개서, p.42.

6) 文教部, 國民學校 教育課程 解說(서울, 서울시인쇄공업협동조합, 1988), p.204.

7) 文教部, 統一安保教育 指導資料, 獎學資料 第60號, 1989, pp. 8~9.

이것은 理念이나 北韓의 實相을 教育을 통하여 學生들이 統一에 對한 熱望과 肯定的인 態度를 形成할 수 있도록 推進되어야 하고 그들이 統一에 對하여 진지하고 合理的인 態度를 갖출 수 있도록(統一의 側面)하되 우리 體制, 生存 그리고 統一威脅 要素에 對한 警戒心을 아울러 갖추도록(安保側面) 教育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統一과 安保는 어떻게 보면 相反되거나 矛盾되는 理念間을 調和로운 目標로 하고 있지만 實證 指導場面에서 곧잘 葛藤狀況에 直面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얼마전 南韓 勞動黨 間諜團 事件은 北韓의 二重性を 極明하게 보여 준 事例이다. 이것은 北韓의 眞正한 意志가 무엇인지를 흐리게 하는 일로서 北韓에 對한 理解와 警戒를 指導하는 現場에서는 葛藤을 생기기게 한다.

한편 우리의 立場에서도 그동안의 南北問題가 어떤 政治的 變數 때문에 어떻게 어떤 形態로 變化될지 豫測不許狀態이며 現實的으로 國內法이나 制度는 아직도 南北對立 構造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立場을 取하기가 어려운 狀況이다. 이와같은 不確實性 때문에 教育現場의 教師들이 統一教育에 對한 見解差가 甚하다.⁸⁾ 이로 인해 統一教育의 共通된 認識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相對方의 意見を 傾聽하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認定하지 않으려는 傾向마저 일고 있음을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⁹⁾

이런 時點에서 무엇보다 重要的 것은 統一을 對備한 우리 教育의 立場 定立이라 본다. 이러한 側面에서 西獨의 統一對備教育은 우리 統一教育 方向定立에 매우 有益한 情報가 되고 있다.

2) 西獨統一教育의 敎訓

教育이 民族統一의 構想과 統一의 推進過程에서 가장 核心的인 位置에 서야하고 前面에 나서야 함은 西獨의 統一對備教育의 經驗에서 좋은 示唆點을 받을 수 있다. 西獨은 統合以前 1978년부터 各級 學校가 統一을 앞당기고 그에 對備하는 教育을 體系的으로 始作하였다는 事實을 우리는 留意할 필요가 있다.

西獨은 1978年 各級 學校로 하여금 統一의 當爲性과 必要性을 가르치

8) 김태완,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 교육월보 1월호, 1992, p.42.

9) 상계서, p.42.

고 東獨 住民들의 生活과 東獨에 關한 諸般事實을 正確하게 가르치기 始作했으며 또 그들은 서로의 教育內容, 教育制度를 理解하기 위해 相互交流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¹⁰⁾ 그리고 統一問題에 關한 教育方向의 基本立場을 學生들에게 獨逸의 分斷으로부터 派生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國際的 脈絡속에 理解시킴으로써 앞으로 獨逸과 關係되는 여러 가지 事案들을 解決하는데 協力할 수 있는 能力을 기르도록 하였다.

또 이에 따른 教育指針¹¹⁾은 西獨統一교육과 關聯하여 憲法精神으로부터 導出된 學校教育의 課題 및 學習의 目標와 內容, 事態分析, 問題의 陳述, 重要한 事項의 論理的인 立證, 方法論的 提示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提案을 하고 있다.

3) 統一教育에 方向

가) 基本方向

教育是 統一을 可能하게 만들고 언젠가 이룩될 統一을 持續시키고 強化시키는 가장 核心的인 힘이다.¹²⁾ 따라서 統一教育의 展開方向은 南北相互信賴 回復을 이룬 뒤 平和的이고 自主的인 原則 아래 民族統合에 이르는 諸變數들의 肯定的, 能動的 寄與를 促進하는 次元으로 指向되어야 할 것이다.¹³⁾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첫째 統一教育은 民族統合을 指向하는 教育이어야 한다. 여기서 民族統合이란 民族成員 모두가 福祉社會(Welfare Society)의 構成員이 되는 것이다.

둘째 南北의 異質化를 解消시키고 民族同質性을 回復하는데 寄與하는 教育이 되어야 한다.

셋째, 統一教育은 民主市民을 育成하는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卽 統一된 社會의 一員으로써 參與와 責任을 부담하는 人間으로 育成하도록 한다.

넷째, 統一教育은 學習者에게 批判的 思考能力과 問題 解決能力을 培

10) 金信一, 전게서, p.44.

11) 문용린, 學校統一教育의 새로운 展開方向(서울:韓國教育開發院, 1988), p.45.

12) 崔仁和, 現행 통일 안보교육의 현주소와 전개 방향, 새교육 1월호, 한국교육, 1991, p.55.

13) 전게서, p.55.

양시킬 수 있도록 조장시켜 주며 合理的인 論議過程을 통해 檢證과 內面化가 이루어지도록 教授-學習 全過程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나) 統一教育의 展開

統一教育은 民族統合을 指向하는 教育, 民族同質性 回復에 寄與하는 教育, 民主市民育成 教育으로 焦點化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授業의 過程에서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는 努力이 重要하다고 본다.

(1) 教育內容

民主的 平和統一의 信念과 態度 形成을 爲해서

첫째 南北分斷 狀況 認識

둘째 北韓 現實理解

셋째 國防과 安保의 重要性

네째 統一에 對한 信念과 態度 等이 重要視되지만 國際情勢가 하루가 다르게 變하고 北韓 또한 變化 조직의 幅이 넓혀가는 時代性과 社會的 要請을 教育에서 受容되어야 한다. 特히 統一과 和合의 可能性을 提示함으로써 民族의 一員으로서 보다 積極的으로 思考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2) 教育方法

統一은 하나의 價値로서 學生들의 心層內部에 潛在되고 行動化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統一問題에 對한 知識理解보다 그러한 知識을 基礎로 하여 問題를 解決하려는 活動에 能動的 積極的으로 參與하는데 決定的 要因인 價値創造에 重點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統一에 對한 價値葛藤에서 自己 나름의 合理的 判斷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視點에서 몇가지 事例를 들어보면

첫째 北韓이나 共產主義에 對한 結論的 명명(conclusive labeling)을 案內 및 劃一的 注入보다는 問題에 對하여 學生 스스로가 根據에 依하여 結論을 내리도록 하는 探究學習을 重視한다.

둘째 統一에 對한 多樣한 意見들이 어떤 節次에 依하여 하나의 社會的 合議를 이루게 되는 意思決定過程을 尊重하며 이에 直接·間接體驗을 通하여 바람직한 行動規範을 습득하도록 한다.

셋째 北韓이나 統一問題에 對한 學生들의 好奇心과 궁금증을 誘發하고 提起된 問題에 合理的 判斷과 問題解決을 助長하여 統一에 對한 自生力을 키운다.

네째 教師 自身은 主觀的 立場에서 學生들을 指導하는 것보다 항상 教

育課程 解說書와 有關機關의 各種 資料를 통해 올바른 指導視點을 堅持 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4. 結

全國民의 가슴속에 恨처럼 쌓인 統一은 國民들의 힘에 依해서만 可能 하다고 보면 그 힘은 바로 教育에 있다고 본다.

現在 國內·外的으로 統一에 關聯된 情報는 時時刻刻으로 變하고 國民들의 意識性向 역시 産業化나 外來文化의 影響으로 多變性을 가져 現在 施行하고 있는 統一教育에 對한 內容과 方法의 再檢討와 改善을 通하여 모든 國民들이 民族史의 우리의 位置를 恒常 銘心하고 統一에 接近하는 國民的 努力이 不斷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參考文獻

1. 文敎部, 敎育월보, 1月號, 1992.
2. 國土統一院, 國土統一의 課題와 우리의 使命, 1985. 外



南北和解・協力時代の 統一教育 推進方向

醴泉郡 仁浦國民學校長 姜 土 遠

1. 統一 對備 教育의 必要性

소련 및 東歐의 改革·開放과 共產主義의 몰락으로 새로운 國際秩序가 急速히 形成되고 內的으로는 南北韓의 U.N 同時 加入과 韓·中 修交 및 「南北和解와 不可侵, 交流 協力에 關한 合議書」가 發效되기 시작하는 등 國內外的 狀況이 統一에 有利하게 變化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統一에 關한 民族의 關心이 高潮되면서 「統一 對備 教育」의 必要性이 크게 強調되고 있다.

莫 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國力으로 東獨을 흡수 統一한 獨逸도 統一 以前 10여年間 統一 對備 教育을 內實있게 推進하면서 비교적 自由로운 來往과 社會 全分野에 걸친 交流를 통해 實質的인 理解와 協力の 幅을 넓히기에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양쪽 모두 상당한 價値觀의 葛藤과 生活樣式의 차이 등으로 社會的 混亂을 겪으며 苦心하고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南과 北은 同族相殘의 처참한 戰亂까지 치루며 半世紀에 가까운 짧은 時間동안 理念과 體制가 兩極을 치닫는 가운데 서로를 敵對視하며 높은 담을 쌓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民族의 同質性은 점차 稀釋되고 異質性만 膨大되었다.

따라서 막상 統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以後의 社會的 混亂이나 葛藤은 獨逸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커서 도저히 堪耐하기 어려울 것이 確實하므로 이에 對備하여 民主市民의 資質을 涵養하고 統一國家의 未來像을 確固하게 다짐으로써 民族和合을 바탕으로 自由와 福祉가 고루 實現되는

새로운 統一國家 建設과 發展에 必要한 올바른 價値觀과 知識·態度 및 行爲 規範을 理解하고 體得시키는 教育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습니다.

2. 現行 統一教育의 問題點

現在 施行中인 5차 教育課程의 「統一·安保 教育」과 「統一·安保 教育 指針書」를 통해 統一教育의 目的과 方向이 提示되고 있으나 狀況의 變化에 미처 따르지 못할 뿐 아니라 民族分斷, 北韓의 現實, 國防 安保, 統一 및 理念問題의 主要 內容에 걸쳐 대체로 南北 比較의 二分法의 黑白論理에 치우치는 듯하여 자칫 偏向的으로 흐르기 쉽고 보다 具體的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程度까지 指導해야 하느냐를 明確히 提示하지 못하며 資料와 情報마저 빈약한 實情이다.

또한 教師 自身들도 統一 方案에 대한 分明한 所信을 갖지 못하여 自信 없는 가운데 他敎科나 領域에 비해 關心이 적고 疏忽히 取扱되는 傾向이다.

따라서 一線學校 現場에서 이루어지는 統一教育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안고 있는 편이다.

가. 學校教育이 자칫 民族의 同質性보다는 南北 異質化를 부채질하기 쉽다.

高大 金東圭 教授는 도산아카데미 연구원 統一問題 세미나에서 「南北이 내걸고 있는 教育理念은 南측의 '全人教育思想, 世界主義, 民族主義, 民主主義, 資本主義의인 自由와 責任을 完遂하는 것' 과 北측의 '鬭爭하는 革命家, 智德體를 갖춘 共產主義의 새人間으로 키우는 것' 으로 크게 다르다」고 하였다.

나. 統一教育의 水準이 政府의 統一政策 弘報 次元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長期的 眼目的 '韓國 民族主義' 에 대한 配慮가 充分치 못하다.

다. 教育內容이나 方法上 지나치게 單線的이고 感情과 情意的 측면을 中心으로 注入式이어서 動機誘發이나 興味維持가 어렵다.

라. 現在의 統一教育은 장차 이루게 될 統一祖國의 社會에서 서로 다른 思想과 意見을 가진 사람들끼리 合議를 創出하고 合理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며 民族 共同體의 成員으로서 和合하고 協力하는 次元의 指導는 疏忽히 取扱되고 있다.

마. 統一에 대한 論議方式이나 論議節次, 統一方案 등에 대한 評價의

眼目の育成이 輕視되고 直接 兒童이 參與하는 協議나 討議, 問題 解決을 實質的으로 體驗하는 機會는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다.

바. 指導를 直接 擔當하는 教師 자신들의 確固한 所信이 不足한 가운데 他教科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여 計劃的이고 組織的이며 綜合的인 指導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教科書에만 依存하는 安易한 指導에 더 큰 問題가 있다.

3. 統一教育의 새로운 方向

가. 統一前 西獨의 統一觀 定立 教育

西獨의 教育部가 歷史的 獨逸 統一以前 10여年間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統一教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편집한 教育指針書는 15개項의 유의점을 提示하고 있는데 서울大 師大 정세구 박사는 이것을 要約하여 그들의 教育的 努力을 다음과 같이 解說하고 있다.

(1) 分斷에 對한 올바른 認識을 갖게 하기 위하여 充分한 歷史的 知識을 주려고 하였다.

(2) 統一의 問題를 平和指向的인 政策을 通하여 漸進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確信을 넣어 주려고 하였다.

(3) 民族의 概念을 通하여 統一의 正當性에 대한 確信을 갖게 하려 하였다.

(4) 人權의 尊重을 統一의 條件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5) 分斷으로부터 派生되는 問題들을 正確히 알게 함과 同時 東獨의 存在를 認定하고 西獨만이 獨逸 全體가 아님을 認識시키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西獨의 統一教育은 歷史的 背景이나 內外的인 諸與件이 우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統一教育의 方向 設定에 示唆하는 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나. 6차 教育課程에서의 統一教育 方向

現行 5차 教育課程에서의 「統一·安保 教育」이 95년부터 施行 豫定인 6차 教育課程에서는 「統一教育」으로 바뀌어 보다 統一指向的이며 積極性을 띠게 된다.

教育部에서 마련중인 教育課程 試案의 主要內容을 보면 國民學校에서는 ‘한겨레 共同體 意識의 培養’ ‘分斷이라는 民族의 苦痛教育’ ‘統一 이후 民族의 삶’ 向上등에 重點을 두어 3개 領域에 걸쳐 指導內容을 提示하

고 있는데 이것이 統一教育 現在の 位相을 再定立하고 앞으로의 方向 設定에 根幹이 된다고 보아 그 內容을 簡略히 紹介해 본다.

(1) 民主市民 教育

人間尊重的 概念을 理解시키고 民主的인 生活 態도와 基本習慣을 形成하고 民主的 節次를 통한 個人間的 立場과 見解의 調整 能力을 키운다.

(2) 民族共同體 教育

悠久한 歷史를, 더불어 살아온 한 겨레로서의 共同體 意識, 分斷의 現實 理解 및 分斷으로 인한 苦痛과 諸般 폐해에 대한 認識, 7천만 民族 成員 모두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統一에 重點을 둔다.

(3) 統一國家 教育

統一의 方法, 平和統一의 條件, 安保(對北韓 및 對外國)와 民主國防의 必要性, 人口, 國土, 資源 등 새 統一國家의 모습 등을 다룬다.

4. 統一教育의 展開와 指導 方法

가. 統一教育의 展開 方向

統一教育의 궁극적 指向點은 民族 成員 모두가 人間다운 生活의 保障과 自由·平等·人間의 尊嚴性이 享有되는 社會여야 하므로 教育의 方向도 南北韓이 相互 信賴 回復을 이룬 뒤 平和的이고 自主的인 方法으로 民族統合을 成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1) 民族共同體 意識을 바탕으로 眞正한 民族의 統合을 指向하여야 한다.

(2) 南北韓 異質化를 漸次 解消시켜 가면서 民族의 同質性을 優先 回復시키는데 努力해야 한다.

(3) 統一指向的 價値定向을 뜻하는 統一文化의 創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民主市民教育의 次元에서 併行 推進되어야 한다.

나. 統一教育의 指導 方法

(1) 教育課程의 융통성 있는 運營과 時事性 資料를 教材化함으로써 생성하고 實證的인 教育을 통하여 效果를 極大化하기에 努力한다.

(2) 道德(바른생활)教科에서 體系的이고 集中的으로 指導하되 全教科에 걸쳐 관련 內容을 指導한다.

(3) 教科指導 뿐 아니라 訓話, 行事, 時事契機, 揭示教育 등 全教育活動

을 통해 綜合的이고 多樣하며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4) 一方的 講議式의 指導보다는 實證, 事例 中心의 討議式, 探究式 方法을 통하여 學生들이 스스로 分析·綜合·判斷할 수 있는 思考力과 問題解決力을 기른다.

(5) 新聞雜誌, TV映像, 관련 圖書 등 生생한 資料를 수집하여 效果的으로 活用한다.

(6) 學生들이 北韓의 實像을 바로 알고 統一을 向한 마음자세를 가다듬는데 도움을 주어야지 否定的인 側面만을 強調하여 敵對感을 誘發하거나 憧憬心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특히 北韓의 各種 資料는 住民에 대한 啓導性과 宣傳性이 강하므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留意해야 한다.

5. 本校 統一教育의 實際

가. 教科를 통한 指導

道德(바른생활)教科를 통해 가장 體系的, 組織的인 統一教育을 重點的으로 實施하고 社會, 國語教科를 비롯한 全教科 領域에서 關聯 內容의 綜合的 指導를 試圖하고 있다.

(1) 統一에 관한 올바른 價値觀의 定立을 위해 理解와 判斷을 바탕으로 論議課程을 통한 思考力, 問題解決力의 伸張 重視

(2) 教材(教科書)內容에 局限하지 않고 이와 關聯된 時事性 教材를 最大限 活用, 이를 學年性에 맞게 再構成하여 實證的, 事例的 指導 方法 摸索

(3) 教師 爲主의 一方的, 講議式 指導가 아니라 教育活動에 兒童을 積極 參與시켜 調查 發表, 討議, 問題解決 中心으로 展開

(4) T.V, 라디오, 新聞, 雜誌 등을 통해 報道되는 生생한 자료를 活用하여 效果 提高

(5) 重點的 指導 要項

① 民主市民의 資質 涵養: 人間의 尊嚴性, 民主的 過程과 節次, 自由와 權利 行使 및 責任과 義務, 合理的 意思 決定 能力과 이의 實行

② 民族 共同體 形成: 우리 民族의 現實, 北韓의 實相, 分斷의 原因 및 背景, 民族의 同質性과 共同體

③ 統一의 過程과 未來像: 統一의 當爲性, 統一政策, 統一過程의 理解

와 協力的 態度, 統一國家의 未來像과 國際的인 位相

나. 特別活動을 통한 指導

어린이회 活動, 클럽 活動, 學校 行事의 全領域에서 關聯있게 指導하고 國家的 次元의 主要 狀況 變化나 事案展開 時에는 特設時間을 運營하며 特히 時事契機 教育의 內實에 努力하고 있다.

(1) 兒童이 教育活動의 主體가 되어 스스로 參與하고 計劃·實踐하는 가운데 意思決定 能力과 自律의 實踐, 自己 表現과 教育行事を 통한 올바른 統一觀의 定立과 統一세대의 資質 育成 重視

(2) 융통성 있는 教育課程의 運營과 統一 關聯 時事的 內容을 中心으로 全 教育活動과 연계한 體驗의이며 綜合的인 指導方法 講究

(3) 每月 마지막 주 수요일, 3學年 以上 全校生이 參與하는 時事教育 特設時間 運營

(4) 重點의 指導 要項

① 어린이會 活動: 協議 活動, 役割 分擔 活動, 生活 適應 活動을 通하여 양보와 妥協 및 寬容, 相互 尊重과 協力 等 主로 民主市民의 資質 育成에 關聯된 內容

② 클럽 活動: 趣味, 學藝 活動, 奉仕·修練 活動, 特定 活動의 自己 表現과 自律의 參與 活動을 通하여 民族共同體 意識과 統一國家 國民의 올바른 價値觀의 定立과 實行 意志 高揚, 生活樣式의 體得에 努力

③ 學校 行事: 兒童이 主體의으로 參與하는 儀式 行事, 學藝 行事, 時事的인 特定 行事에 統一教育의 教材를 效果的으로 導入하여 統一 世代 成員의 基本 資質과 態度 育成에 努力

다. 各種 關聯 施策 推進

(1) VTR錄畫 放送 實施

「南北의 窓」, 「統一 展望台」, 「南·北 總理 會談」등을 비롯한 主要 南北 關係 및 統一 關聯 TV放送 內容을 錄畫, 점심시간을 利用하여 全 教室 放送 實施

(2) 資料箱 運營과 活用

映像 資料의 錄畫, 新聞과 雜誌의 報道 內容, 各種 畫報 資料 等を 스크랩하여 資料箱에 分類 保管하고 全 教育活動과 關聯하여 活用

(3) 發表 및 討論會 運營

發表力 伸張을 目的으로 週1回 中間놀이 時間을 利用하여 時事問題 및 統一에 관한 調査 內容이나 自己 意見과 主張을 發表하고 問題點 解決을 爲한 討論會 開催

(4) 學藝 競試會 開催

月1回 統一教育 素材를 中心으로 그리기, 서예, 글짓기, 응변 등의 2 學年 以上 全校生 參與의 校內 行事 實施

(5) 揭示教育 實施

教師가 꾸미는 時事 契機教育 위주 學校 揭示板과 兒童이 參與하는 弘報板 및 各 教室의 벽신문板을 時事問題 中心으로 統一教育和 關聯있게 構成하여 多樣한 情報 提供

(6) 訓話教育 實施

校長·校監이 윤번제로 年間 計劃에 의한 統一教育和 關係되는 時事 契機 中心의 訓話指導案을 作成하여 週1回 愛國朝會 時間을 利用, 訓話を 實施하고 學級에서는 擔任이 이를 學年性에 맞게 보다 具體的으로 指導

(7) 仁浦通信 發刊

學父母의 學校教育 參與를 誘導하기 위하여 月1回 發刊하는 仁浦通信에 統一教育 關聯內容을 게재하여 學父母의 啓導 및 指導方法 提示

(8) 統一日記 쓰기 指導

4學年 以上, 主要 時事問題의 TV시청 소감이나 讀後感 中心의 日記 쓰기를 通하여 統一課題에 대한 關心과 理解를 높이고 實踐意志 涵養에 努力

(9) 教職員 研修 活動 強化

週1回 實施하는 研修 內容에 時事 및 統一教育을 包含시켜 相互 情報交換은 물론 資料의 教材化와 活用 方法, 指導 方向의 設定과 效果의인 指導 方法 講究

6. 맺는 말

통일교육을 積極的으로, 能動的으로 實施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 民族 이면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어떤 內容을 어떻게 體系化하여 어떻게 指導 할 것인가에는 쉽게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統一教育의 內容을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 涵養, 民族共同體

形成과 民族의 正體性, 統一의 過程과 統一國家의 未來像으로 集約한다면 現在의 教育課程 속에서도, 教科指導를 通하여 올바른 價値觀을 形成하고 特別活動 指導를 通하여 實行 意慾을 鼓吹하며 生活指導를 通하여 實踐의 態度 涵養과 行動 樣式을 익히는 有機的이며 體系의인 指導를 위한 努力이 前提된다면 教育의 效果는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期待하는 統一教育의 效果는 民族의 所望인 統一國家의 實現에 기여하고 새로운 統一 祖國의 發展을 위해 必要한 國民的 價値觀과 資質, 態度를 기를 수 있어야 하며 統一에 對한 굳은 意志와 希望과 期待를 가지게 하고 進就의이고 開放的이며 合理的인 思考力을 가져야 하며 統一國家의 形成 및 發展을 위한 進取적 思考와 創意力 問題 解決力의 發揮를 북돋우고 未來指向의 시각에서 統一國家 및 民族共同體 建設을 構想하고 對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인간을 출발시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

— 플라톤 〈국가론〉

北韓理解教育資料의 開發과 活用

慶山 金谷國民學校長 李 東 厚

I. 序

오랜 分斷의 歷史속에 南北韓이 統一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크지만 6.25라는 아픈 傷處가 아직도 우리의 腦裡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고, 北韓은 金日成 體制에 얽매여서 統一의 꿈을 움추려 들게 하고 있다.

이 金日成 體制는 對外的인 衝擊이 있으면 能動的으로 對處하기 보다는 閉鎖的으로 나아가는 同時에 內部的 統制를 더욱 強化하는 態度를 보이기¹⁾ 때문에 統一을 빠른 시일안에 이루려는 생각에는 조심성을 가져야 하겠다.

1990년 10월 3일에 이루어진 獨逸統一을 보고 統一의 熱望에 나라가 들떠 있고, 學校에서는 統一對備教育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獨逸의 事例를 보면 統一後에 생긴 문제들은 거의 共產主義體制下에 있었던 舊東獨의 住民과 地域에서 發生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統一對備教育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統一教育을 잘못하면 分斷의 固着化를 強調하는 것이 될 것이고, 어쩌다 보면 北韓의 宣傳을 하는 것 같이 될 수 있기에 北韓理解資料를 開發해서 活用하는데는 充分한 研究가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考慮하여 北韓理解教育에 대한 資料의 必要性, 北韓의 現實, 資料開發方向과 活用에 대해서 말하겠다.

1) 백인학, 韓中修交의 意義와 南北關係展望-새교육, 1992. 11월호, p. 40.

II. 北韓理解教育資料의 必要性

우리가 統一을 생각할 때면 독일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統一이 되면 모든 것이 解決되리라고 믿었던 統一獨逸의 모습을 보면 '東方은 붉다'고 했던 70년전 레닌의 幸福에 찬 장담은 歷史의 發展에 의해 빛이 바래졌다. 昨年 10월까지 東獨이었던 이 곳은 오늘날 암울한 霧圍氣와 沈默에 싸인채 마치 戰爭에 敗北한 나라처럼 意氣가 消沈해 있다.²⁾

또, "東獨人は 게으르고 懶怠하며 勤勉은 옛말이다. 表情은 굳고, 도적질을 많이 하며 40年の 긴 세월이 完全히 다른 게르만族을 만들고 말았기 때문에 生活方式 統一이 더 시급하다³⁾고 했다.

"東獨사람들이 지난 날의 經濟的 缺乏과 政治的 壓制에 대한 補償이 統一로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면 西獨사람들은 統一이 자신들의 生活에는 아무런 變化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期待와 豫想이 빚나간 지금 東獨사람들은 西獨사람들을 倨慢하고 獨善的인 利己主義者들이라고 非難하고 있으며, 西獨사람들은 東獨사람들을 게으르고 自立心이 不足한데다 情緒不安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한 輿論 調査는 심지어 東獨地域 住民들의 약 半數가 統一自體를 後悔하고 있다는 調査結果를 밝히고 있다.⁴⁾

우리는 흔히들 "역시 獨逸民族은 다르다"라는 말로 게르만 民族의 特性을 칭찬했고, 獨逸은 統一前에 兩便에서 TV나, 라디오를 自由로 들을 수 있었으며 고르바초프가 극찬을 하는 빌리 브란트 前西獨總理의 '東方政策'에 따라 兩獨의 接觸은 始作되었고, 統一 10年前부터 西獨에서는 統一教育을 했었는데, 統一된 모습은 너무나 기대 밖이다.

우리 나라의 現實은 半世紀동안 斷切과 對決로 치달다가 7.7宣言과 7.4共同聲明으로 겨우 對話를 하고 있지만 今年 10月 14日 北韓의 總理가 南韓에 보낸 편지에는 이제까지 成就되어 가던 和解무드와는 正反對의 內容이 담겨져서 다시 南北關係는 찬바람이 일고 있다.⁵⁾

北韓에는 金日成 父子 體制속에 國民情報가 굳게 단혀져서 國民들이 外部의 世界를 모르는 가운데 文化, 政治, 經濟, 社會 등등 모든 것이 너

2) 조지엔 가이드, 舊東獨人들의 自己喪失, 世界日報, 1991. 7. 7, 8면.

3) 朴聖祚, 東獨人 이젠 "게르만 本性" 잃었다, 朝鮮日報, 1990. 9. 22, 4면.

4) 李必宰, 統獨 2돌 明暗(下), 中央經濟新聞, 1992. 10. 6, 5면.

5) 張秀根, 北 또 賊反荷杖, 서울신문, 1992. 10. 16, 4면.

무나 異質化되어 있다. 그 중에 現在 北韓에서 日常生活에 빈번히 使用되는 語彙나 우리 말과 뜻이 顯著하게 달리 使用되고 있는 말이 253개⁶⁾, 北韓의 特殊用語, 北韓에만 있는 말 등은 수도 없이 많으니⁷⁾ 南北의 差異點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統一後에 民族和음을 沮害하게 되므로 異質化를 最少化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和解精神을 길러주자면 北韓을 理解해 주고 받아들여야 하는 教育이 必要하겠다.

韓國을 사랑하고 韓國에 永住하고 있는 한 外國人 學者는 “韓國인은 아직 꿈을 잡지도 않았으면서도 꿈 가죽을 팔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냥꾼 같이 보이기만 한다”⁸⁾고 꼬집더라.

統一祖國建設은 7千萬 겨레의 所願이지만 차근히 생각해야 할 일이다.

北韓이 아무리 닫혀 있어도 地球는 돌게 마련이므로 統一의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어도 언젠가는 올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을 통하여 ‘北韓은 永遠한 적’이 아니라 우리의 땅, 겨레임을 이해시켜야 하겠다.

Ⅲ. 北韓의 現實

北韓의 政治主體는 모두 金日成에게만 專屬되어 있기 때문에 人民大衆은 金日成의 積極의 指導에 依存할 때만 主體性과 自主性을 지닐 수 있다는 論理로서 首領에 대한 忠誠과 絕對服從⁹⁾을 中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80개가 넘는 金父子 招待所(호화 별장)를 두고 生活하고, 3만 5천개의 金日成 銅像과 胸像¹⁰⁾을 北韓 各地에 세워놓고 銅像에 대한 겨울철 管理指針 6個項을 示達하는데에 銅像의 두상과 어깨, 팔에 눈이나 먼지가 쌓이면 偉대한 首領의 肉身이니 새벽에 더운 물로 닦아 내라¹¹⁾는 등의 內容이 있다.

6) 教育部, 오늘의 北韓-教育用 北韓理解教育資料, 1991. 3月, pp. 160~168.

7) 홍연숙, 統一로 가는 教育, 言語異質化 克服을 위한 言語教育-새교육, 1991. 1月號, pp. 59~66.

8) 洪思重, 獨逸統一 ‘他山之石’-朝鮮日報, 1992. 10. 28, 5면.

9) 教育部, 전게서, p.13.

10) 金昌勳, 國際情勢의 變化와 우리의 나아갈 길-1992년도 學校管理者 研修教材, p.13.

11) 朝鮮日報, 1991. 12. 26日字, 18면.

제4차 南北總理會談때에 訪北했던 記者가 본 北의 모습 즉,

“第一百貨店 樂器販賣店에서 만난 쌍꺼풀 눈의 감쪽하게 생긴 奉化국민 학교 4학년 백은실양(10)은 기자들을 서글프게 만들었다. ……記者는 物件을 사러왔다는 백양에게 “아저씨는 北韓돈은 한 번도 못보았는데 어디 北韓 돈 좀 구경할까”라고 하자 돈이 없음이 分明한 백양의 얼굴이 흥당무가 되는 순간 TV카메라 플래시가 꺼지고, 주위에 있던 大學生들이 集團으로 비난성 질문을 퍼부어 댔다.”¹²⁾

는 것은 北韓 教育 모습의 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統一院 發表資料에는 北韓人民學校·高等中學校의 90, 91年度 各科目 教科書 內容 가운데 人民學校 국어 77%가 政治, 思想性 主題이며 그중 60%가 金日成 父子 偶像化 內容이고 音樂教科書는 68%가 金 父子 讚揚의 노래였다¹³⁾고 한다.

第8次 南北高位會談取材次 다녀온 記者의 訪北記를 보면, 北韓이 美國을 포함한 西方世界와의 具體的 接近 움직임과 韓-中修交를 아직 上層部만 알고 있고, 平壤 보통간구역 제1고등중학교에서 對面한 學生은 ‘남한 어린이의 30% 이상은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¹⁴⁾ 있다.

그리고 北韓은 留學生들에게 思想汚染이나 改革바람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고 判斷되면 이들을 언제든지 強制召喚¹⁵⁾하고 있는 것은 北韓의 思想的이나 政治的, 社會的으로 開放의 바람을 막아보자는 苦肉之策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이해시키는 데는 무엇보다도 북한 현실을 바르게 가르켜 주어야 하겠다.

IV. 北韓理解教育資料의 開發 方向

北韓理解教育資料는 北韓의 實態를 偏狹된 視角에서 보지말고 客觀的으로 볼 수 있는 眼目에서 開發이 되어야 한다.

分斷半世紀는 民族의 異質感이 깊을대로 깊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敵

12) 朴炳錫, 平壤 77時間(上)-中央日報, 1991. 10. 27日字 3면.

13) 金仁哲, 統一院 北韓教科書內容分析-서울신문, 1992. 9. 24日字, 17면.

14) 薛完植, 平壤은 요즈음……. -朝鮮日報, 1992. 9. 19日字~9. 21日字, 4면.

15) 呂永茂, 北韓式 教育和 留學政策.-東亞日報, 1992. 10. 11日字, 20면.

對視해 오면서 살아오는 동안 너무나 모르고 미워했었다. 그 結果 어린 아이들에게 北韓사람들을 그려 보라고 하면 南北對話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뿔이 난 도깨비 모양을 그려왔으니 그냥 웃고 넘기거나 看過해 버릴 수는 없다.

“北韓은 마치 韓國이 自己를 ‘흡수통일’ 하려고 한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일단 ‘自由의 바람’을 許容한다면 실제로 暴力이 介入하는 革命없이 自己體制가 ‘平和履行’을 꾀어서 瓦解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北韓은 南韓과 民族共同體를 形成하는 合意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¹⁶⁾

이기 때문에 이를 미워하는 內容보다는 理解하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하겠다.

李榮德은 統一韓國이 指向하는 社會의 特徵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 ① 人間尊嚴性이 最大로 尊重되는 社會
- ② 모든 사람이 自由를 누리고 自由에 따르는 責任을 질 줄 아는 社會
- ③ 共同體 意識이 충만한 構成員들의 協同과 奉仕가 特徵인 社會
- ④ 모든 差異와 葛藤과 對立이 合理的이고 平和的으로 解決될 수 있는 社會

⑤ 道義로 다스려지는 社會

⑥ 精神的 豊饒에 더하여 經濟的 繁榮을 누리는 社會 바로 그것이다.¹⁷⁾

위와 같은 것을 볼 때 北韓을 理解하는 教育資料의 開發方向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겠다.

첫째, 自由民主主義를 尊重하게 하는 資料를 開發해야 하겠다.

北韓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南韓도 그 前에는 絶對權力에 의해 自由를 抑壓당했던 일이 많았다.

이 絶對的인 權力은 人間의 皮를 淨化시켜줄 뿐만 아니라 또한 人間性의 비열한 점도 바로 잡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者가 있다면, 그러한 者는 現代의 歷史冊도 좋고, 기타 어떤 時代의 歷史冊도 좋으니, 그것을 한번 읽어만 본다면 事實은 그것과 正反對라는 것을 납득하게 될 것이다.¹⁸⁾ 라는 말과 같이 絶對權力은 어떠한 理由이든 不容되어야 하겠고,

16) 안병준, 국제환경의 변화와 統一教育의 課題-교육일보, 1991. 11日字, p.15.

17) 李榮德, 民族同質性 高揚을 위한 教育의 課題, 教育學研究, Vol. 28(1990), pp. 12~13.

18) J.Locke, 李克燦譯, 統治論, 世界思想全集13, (三省出版社, 1983), p.96.

미국의 政治學者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1989년에 發表한 論文 ‘歷史의 證언’에서 說明했듯이 自由民主主義보다 더 훌륭한 理念은 더 이상 期待할 수 없다. 自由란 人間의 幸福을 위한 기초 자료라는데서 統一對備教育의 첫 머리에 놓아야 한다. 人間은 自由를 박탈 당할 때 노예나 다름없다.”¹⁹⁾

自由는 歷史發展의 必須要件이요 統一祖國 構成員들의 幸福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우리 民族을 한 단계 더 높은 次元으로 昇和시키는 要件이므로 自由의 保障이 없는 統一은 無意味하다는 것을 統一教育에서 教育되어야 하겠다.

둘째, 民族和合의 次元에서 北韓을 理解하는 資料여야 하겠다.

우리는 말과 글이 같고 피가 같은 하나의 民族이었지만 뜻하지 않는 外勢에 의하여 분단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보다도 霸權主義國家들의 野慾 때문이다. 이렇게 당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해 주고 감싸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教育에서는 北韓의 生活現狀을 正確히 學生들에게 理解시켜서 民族의 同質性 恢復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겠다.

獨逸이 事前에 統一教育을 했으면서도 統一이 된 오늘날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서로 “이쪽” “저쪽”이란 말을 쓰고 있다고 하니 民族和合을 위한 統一教育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繁榮을 이루는 데 必要한 資料여야 하겠다.

貧困을 決定하는 要因은 家族背景, 能力, 教育, 勞動市場 分節要因²⁰⁾ 등이 있는데 北韓은 政治·經濟體制의 問題 때문에 이 4要因 모두가 취약하다.

統一이 되면 先進隊列에 빨리 進入할 수 있고, 民族繁榮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學生에게 알려주고, 南韓은 統一을 위해 큰 犧牲을 覺悟해야 하며 어떠한 난관도 克服하고 民族번영을 이룩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必要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統一의 과정은 南北韓 國民들이 함께 일할 수 있을만큼 經濟 및 文化的 紐帶가 強化되어야만 비로서 始作될 수 있고²¹⁾, 南北經協이 이루어지면

19) 정용석,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교육월보, 1991. 1月號, p.58.

20) 李斗護外3人, 貧困論, 翰林科學叢書3, (서울:나남, 1991) pp. 105~121.

21) 스킨라데노, 한반도 統一 始作되었다. -朝鮮日報, 1992. 1. 10日字, 5면.

紛爭이 있기 마련인데 북한에 대한 투자정보가 전무상태²²⁾이고 보면, 이러한 상태로는 統一이 되어도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된다.

V. 北韓理解教育資料의 開發과 活用

이 教育에 必要한 資料는 北韓을 理解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6가지 예를 提示 하겠다.

첫째, 分斷前後의 우리나라 歷史를 쉽게 알 수 있는 資料가 必要하다.

北韓의 現代史는 金日成의 活動부터 始作되고 그 內容·分量에서 半이 넘게 金日成의 活動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니²³⁾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歷史教育을 통하여 國家적 정체성이 決定되므로 바른 歷史教育이 되어야 하겠다.

分斷前後의 우리 나라 歷史를 反共, 勝共 또는 이념적 대결을 하던 時代의 觀으로 보지 말고 客觀的으로 學生들이 判斷하고 理解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분단의 아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는가를 알려서 統一的 當위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어야 하겠다.

둘째, 자세한 地理的 資料를 개발·활용해야 하겠다.

社會科 教育을 좀 더 심화해서 北쪽에 또 다른 아름다운 祖國이 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 즉, 北韓의 아름다운 경치, 豊富한 林産資源과 鑛物資源, 水資源 등등의 자료를 多樣하게 개발 해야 하겠다. 이러한 資源들은 統一이 되었을 때 번영된 祖國建設의 바탕이 됨을 알려주고 統一意志를 길러주는데 活用하여야 하겠다.

셋째, 北韓의 民俗놀이 資料를 募集하여 活用 해야 하겠다.

民俗놀이는 그 地方의 特殊한 思考原型이 內在되어 있기에 그 地方住民의 內面世界를 엿볼 수 있다. 共產主義下에 오래 있었으므로 다소 변형되었을지라도 그 內面世界는 우리 民族의 범주를 별로 벗어나지 못했을

22) 李淳雨, 남북경협 넘어야 할 고개-朝鮮日報, 1992. 8. 7日字, 1992. 8. 7日字, 5면.

23) 金貞培, 北韓歷史의 英雄史觀-朝鮮日報, 1992. 10. 27日字, 5면.

것이다.

그 民俗놀이에서 南韓地方의 것과 유사점을 찾게 해 보면 民族의 共通性을 쉽게 찾을 수 있고 北韓에 대한 親近感을 가지게 될 것이다.

北韓에 있는 文化財를 찾아보는 것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제, 세시세모 풍습이나 명절 행사의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다.

北韓의 歲始歲暮風習이나 名節의 概念과 行事들이 많이 변질되었다고 본다. 一人獨制下에 오랜 기간을 지냈기 때문에 民族魂이 깃들었던 것들은 사라지거나 변질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변질되지 않았던 것을 찾아서 그 내면에 흐르는 민족의 情感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변질되게 된 原因을 알게 하고, 그 原因을 미워하기 보다는 統一의 鎔鑪에 넣어버리면 不純物은 저절로 걸러져 버리게 됨을 認識하게 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北韓을 理解할 수 있는 TV資料를 活用하여야겠다.

TV에서 放映하고 있는 “南北의 窓”과 “統一展望臺”를 學校·學年水準에 맞게, 또 敎科單元과 맞게 再編成하여서 活用하는 것이 좋겠다.

이 두 資料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하고 現場感이 있는 資料이기에 學生들에게 興味를 誘發할 수도 있고 最近의 北韓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北韓生活를 理解하는 데 알맞은 資料가 될 것이다.

이 資料를 통하여 討議學習을 시키면 學生들이 自己의 느낌을 얘기하고,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自己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나면 때때로 價値混亂을 誘發할 수가 있기 때문에 充分히 討議를 시키고 나서 敎師가 整理를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新聞資料를 活用하여야 하겠다. 요즘 各種新聞에는 北韓에 관한 記事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들을 스크랩하여 두면 좋은 資料가 된다. 여기에는 統一院에서 發表한 內容들이 신속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TV보다는 또 다른 자세한 內容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資料를 活用할 때에는 選擇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VI. 結

獨逸統一 當時 現地에서 보았던 우리 나라 유학생은 “統一이란 철없이

신나서 떠들어 대고 祝賀할 만한 일이 아니라, 向後 적어도 10年間은 이 社會 全般에 걸쳐 커다란 負擔으로 作用하여 이들을 안팎으로 괴롭힐 골치 덩어리 課題이다.²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6.25로 인해 相互不信과 憎惡에 묻혀서 살아왔기에 統一問題가 여간 어려운 課題가 아니다.

北韓은 “軍事社會”와 “閉鎖社會”²⁵⁾로서 개방과 民主化를 거부하고 있고 가난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統一이 되면 個人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많은 不便과 犧牲이 따를 것이 分明하고, 統一過程에서도 個人的·國家的 次元에서 많은 要求가 따를 것이다. 또 南韓 學生들은 北을 잘 모르고 있으며, 教師들도 皮相的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먼저 教師가 北을 알기위해 노력을 하고, 확실한 이해속에서 統一教育에 임해야 좋은 教育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을 理解한다는 것은 우리의 安保를 넘어서서 北韓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自由·和合·繁榮의 바탕 속에 統一을 위한 ‘마음의 벽 허물기’, ‘民族共同體 形成’, ‘民族同質性 恢復’을 하기 위한 전초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편협된 觀이나 舊時代的인 對立意識보다는 和合精神에서 北韓을 이해해 주는 마음 가짐을 길러야 하겠다.

지식에 대한 욕구는 재물에 대한 갈망과 마찬가지로 이를 획득
하면 할수록 증대한다.

— L. 스티븐

24) 최재경, 統獨以後 獨逸의 學校現場-새 교육, 1992. 7월號, p.48.

25) 李基鐸, 북한의 체제와 남북협상의 문제점-한국미래학회 제69차 학술토론회, 1992. 11. 14~15日.

統一對備를 위한 學校 教育의 課題

逢城 桐谷國民學校長 李 光 旭

I. 現狀要因과 統一教育의 方向

이제 우리 大韓民國은 지구상 유일한 分斷國으로 民族의 罔원인 統一을 渴望하면서 이를 위해 全力投球하고 있다. 2年前까지만 해도 형제(?) 分斷國이었던 동서독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統一을 위한 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된 국토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점은 같은 目標이나 그 過去와 現在는 우리가 처한 狀況과 매우 현저하다는 점에서 보다 냉철한 비판과 國民的 自覺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가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統獨은 지금 두가지 문제점에 逢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와 사상의 문제이다.

첫째, 經濟問題는 빈부의 차이가 격심하던 東西獨이 통일됨으로써 동독의 低水準을 西獨水準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過程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둘째, 思想의 問題이다. 비록 모든 思考나 行動에 自由가 賦與되었다 해도 장구한 세월동안 共產體制에 익숙해진 習性은 自由를 謳歌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또 일자리 등이 생겨도 여기에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改革과 開放으로 共產宗主國인 소련에 오늘의 변혁을 가져온 고르바초프 前소련대통령은 “PELESTLOIKA정책은 공산주의의 포기인가?”란 西方 記者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共產主義나 社會主義를 拋棄한 것은 아니다. 다만 社會主義 理想의 潛

在力을 現實化하는 것이다.”라고….

現下 中國은 經濟特區나 하는 등의 經濟運用으로 生活水準이 놀랍게 向上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自由主義 經濟體制의 原理의 適用 結果임은 不問可知이다. 그럼에도 ‘社會主義 方式’ 이니 ‘中國式’ 이니 하고 자기 변명에 불과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事例에서도 共產理念의 무서운 執拗性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단 教育 뿐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등 모든 分野에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勿論 보다 長期的인 안목으로 教育方法을 摸索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우리 民族의 異質化 현상은 40년이 넘는 長期間이 낳은 결과이며 하나의 價値觀에 層을 이루는 한 世代인 30년이 훨씬 넘게 지났다는 것은 더욱 과제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이는 教育을 통한 보다 體系的이고 論理的인 接近을 要請하기도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前提로 한다.

첫째, 教材의 適切性이다. 內容의 體系的 指導를 위한 선결 과제는 適切한 教材를 갖추는 일이다.

둘째, 指導方法의 適切性이 保障되어야 한다. 統一教育의 方法을 教育目標 側面에서 보면 두 가지 接近이 주가 된다. 卽 知的 領域과 情意的 領域의 方法에 대한 教科 個別 또는 統合的 接近 方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공산이념의 執拗性이나 北韓 靑少年들은 ① 이론 敎育과 實踐敎育의 結合, ② 學校敎育과 家庭 및 社會敎育의 結合을 통한 體質化가 그들 사상 敎育 方法의 基本原則이 된다는 점 등이 우리 立場에서 反省과 對策構案에 있어 前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認識의 連繫性이 필요하다.

統一敎育은 그 性格上 國民全體의 課題이지 學校敎育이나 特定階層의 것만 일 수 없다.

II. 統一敎育의 課題

統一을 위한 敎育은 南北間의 和解와 協力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相互批判보다 相互理解가 強調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의해야 할 것은 틀림없는 兄弟이면서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

대라는 점이다.

急變하는 周邊狀況이나 人倫의으로 兄弟인 對北韓 住民感情에서 보면 그들을 보다 넓은 아량과 寬容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북한 당국의 행위에서 얻은 경험이나 最近의 政府關係 發表에 의하면 포용 일변도 자세만이 能事가 아니라는 점도 깨닫게 된다. 이는 統一 接近에 있어 學校教育 方法의 多樣性, 對北 住民에의 價値·態度 多樣化가 要求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立場과 관련하여 統一教育의 一般的 性格을 살펴보면 ① 知的 內容보다 情意的 學習의 특성이 강하다—情意的 學習方法의 接近이 필요하다. ② 理論보다 實踐의 經驗이 필요하다. ③ 따라서 보다 具體的 事例를 통한 學習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內容 몇가지를 提示해 보고자 한다.

첫째, 國民輿論 統一을 위한 意識의 擴散이 필요하다. 이는 그 實踐을 위한 노력이 舉族의이며 舉國의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統一에 대한 國民意識이나 의지가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自己 判斷力이 부족한 장차의 統一世代에게 統一意志를 심는데 혼란을 줄 우려도 크다. 물론 多樣한 國民輿論을 聽取하고 이를 收斂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代案 창출이 가능하다는 論理에서 보면 百家爭鳴의 현상은 오히려 있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政略의 立場이니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國民意識을 集結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둘째, 對北韓觀은 보다 긍정적이고 發展 指向的이어야 한다. 對北觀이 二元的 立場일 수밖에 없는 不可避性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이는 對北觀이 否定的이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일부 否定的인 對北의 태도에 대해서도 보다 發展의 前提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란 立場이다.

불행히도 지난 한때의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다 하여 그것을 이유로 現實 개선에 소극적 자세를 갖는 것은 發展指向的인 行動特性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것을 송두리째 잊어버린다는 것도 主體性 있는 국민적 자세는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교과서나 교재의 내용에서도 상호 비방하거나 멸시하는 내용은 보다 肯定的이고 主體的 史觀의 立場에서 선택, 지도되어야 한다.

셋째, 統一教育 과제의 내용은 現實的이면서도 구체적인 문제부터 선

정, 체계화 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課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

① 남북한 相互理解 증진을 위한 내용보완, ② 言語·藝術 등 民族文化 教育의 強化, ③ 教育者와 學生의 交換訪問 視察, ④ 教育에 관한 研究訪問 視察, ⑤ 教育에 관한 研究事業 推進,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 성격상 非政治的, 非經濟的 내용이면서도 民族의 同質性을 確認하고 찾는 데 現實性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next, 自由民主主義의 優越性을 認識시키고 信念化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 形態의 政治體制는 그 目的이 人間의 삶의 質을 보다 向上시키는 데 있다. 모든 체제는 그 나름대로의 主張과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체제의 特性을 단면적이고 지역 一般적으로 또 微視的 立場에서만 보면 오히려 價値混沌을 가져오는 착각도 있을 수 있다. 우리 自由民主主義의 優越性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人間의인 삶을 營爲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쪽인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體制 비교 접근방법으로서 ① 실생활 장면의 비교 검토, ② 귀순자나 전문가의 경험담 사례 청취 ③ 對北資料 작성 활용 ④ 共產 宗主國인 소련의 붕괴와 그 위성국들의 民主化 실상 등 각종 시사자료 活用이 보다 具體化 되는 것이 중요하다.

Ⅲ. 統一教育 實踐 接近要領

學校教育은 그 領域이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져 지도된다. 教科指導, 特別活動 指導, 生活指導가 그것이다. 學校教育을 통한 課題의 지도란 결국 이 세가지의 單一 또는 統合指導의 形成이 주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統一教育의 實踐을 위한 몇가지 基礎要項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1. 統一教育 教材化와 教科를 통한 指導

가. 統一教育 指導資料의 教材化

統一教育의 體系의 지도를 위한 첫째의 과제는 지도자료를 教材化하는 일이다. 다음은 實踐模型의 한 예이다.

1) 韓國教育新聞, “南北教育交流에 거는 期待”, 私設, 1992. 9. 23, p.2.

(1) 教育 過程 分析

教材化의 첫번째 절차는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재내용을 조직하고 체계화하는 일이다. 統一教育은 그 성격상 바른생활 및 道德科를 中心으로 하고 타교과는 관련 통합하여 學年目標와 영역별 개별 수준 등을 분석한다.

다음은 도덕과 내용 분석 예이다.

(표1) 통일교육 영역 학년 목표

학년	일 반 목 표
3	○ 북한 국민의 생활상을 우리와 비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인식하여 민족적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표2) 통일교육영역의 요소별 개념수준

학년	요소별 학년목표	지 도 내 용
3	○ 분단문제의식 강조	(1) 함께 살아가야할 우리 민족(◎) (2) 우리 어린이 생활과 북한 어린이 생활(○) (3) 6.25 납침과 그후의 도발사태

○, ◎은 강조사항 및 정도

(2) 統一教育 教材化의 基準

통일교육 자료는 이제까지 우리들이 취급해 온 자료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향해 오고 또 앞으로 나아갈 목표가 統一에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는 소극적으로 '反共' 이나 '勝共' 을 전제로한 統一이었다. 이것은 어떤 경우이든 힘의 優位를 전제로 하는 경우의 통일 論理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빈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필요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統一을 위한 國

民意識 調査' 2)에 나타난 國民情緒에서도 이러한 주장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즉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3) 對北韓 國民意識

대 북 한 태 도 방 법	비율(%)
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상태이다.	43.5
② 대등한 수준에서 주고 받아야 할 상태이다.	42.8
③ 아직까지 대결해서 이겨야할 상태이다.	11.3
④ 잘 모르겠다.	2.4

이러한 立場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준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상호 비방하는 내용은 배제해야 한다.
- ② 장기간의 단절에서 온 異質化를 극복할 수 있도록 同質性 회복 내용을 강화한다.
- ③ 對北中心의 자료는 相補的 原則을 살려가도록 노력한다. 즉 같은 종류(내용)의 대비우열보다 이질적 내용을 대비시켜 남북 통일 肯定的 信念을 심기에 노력한다.
- ④ 내용의 조직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肯定的 측면을 강조한다.

나. 統一教育 資料 수집

1) 자료의 수집

통일교육 자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사적인 자료를 많이 이용한다. 각종 TV, 신문, 통일관련기관의 기관지 등은 물론 특히 TV방송 프로그램 중 '통일 전망대' '남북의 창' 등을 녹화 이용한다면 生動感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다음의 두가지 성격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각종 자료는 먼저 時事性이라는 면에서 교육적 가치이다. 아동을

2) 서울신문, "한반도 統一 國民意識 調査", 1992. 1. 1, p.18.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성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예로 '多邊的外交'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나 각국 원수의 訪韓 및 대통령의 他國 訪問 등 보도는 이러한 추상성을 보다 具體化시켜 주는 때가 된다. 따라서 각종 TV등을 잘 이용하면 학년성에 맞는 課題學習도 가능하다.

북한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생략하고 정확이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 사정 이해에 혼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마치 풍요로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농촌의 자연 환경에 매료되어 농촌을 동경하듯……. 이러한데서 우리의 입장을 대비한 나머지 幻想에 젖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 자료를 관점에 따라 자료화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지난 9月 제8차 南北 高位級 회담 참석차 평양에 갔던 우리측 한 인사가 북측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中의 한 부분을 정부측 인사가 전한 내용이다.³⁾

북 : 남쪽에 쫌大協이라는 단체가 아직 있습니까?

남 : 뭐, 있긴 있는데, 요새는 활동이 뜸합니다.

북 : 그 학생들 아마 북한에 와서 6개월 정도 있으면 돌아가겠다고 야단일겁니다.

남 : 네?

북 : 봉급을 세달째 못받아 물건도 제대로 못사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무슨…….

政治性이 짙은 회담에 어떤 式으로든지 참가하고 있는 北側 人事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각종 보도에 대한 適正 資料를 選擇하고 또 바르게 지도할 수 있다. 多樣한 國民의 목소리가 正論의 結은 아니다. 통일에 도움되기 위해서는 衆口難防의 목소리가 하나로 집결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資料의 수집 및 조직에서 유의할 일은 지적한 바 남북 대비자료를 이질적 측면에서 장점 위주로 대비하는 한편 단점은 서로 보완하는 입장에서 체계화하고 동질적인 자료를 통해 民族의 共同性 認識을 誘導하도록 노력

3) 朝鮮日報, 1992. 9. 27, p. 2.

해야 할 것이다.

2) 수집된 자료의 資料化

수집된 자료는 내용에 따라 자료특성에 맞게 資料化한다. 다음은 자료화의 첫단계 작업이다.

(표4) 통일교육 교재화 자료의 특성 분류

번호	제구성 자료 제재	자료종류				출 처
		원기자료	문화자료	계 도	VTR	
1.	북한의 생산 현장				○	'92. 10. 15 조선일보
2.	아동방송시간				○	'92. 9. 7 한국일보
3.	인민학교 4학년 국어(제1차)	○				인쇄자료
4.	남북 한글 로마자 표기법의				○	'92. 6. 19 한국일보

위와 같이 보류된 자료는 현장활용을 위해 제작에 임한다. 제작과정에서 자료의 정확성 확인, 전문인사의 지도, 상담 등의 절차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다. 統一教育 資料의 活用

자료의 활용은 이용 방법에 따라 다음 몇가지 방법을 構案할 수 있다.

1) 特設單元 設定 指導

教材內容에 따라 하나의 단원을 새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경우로 도덕과나 특설시간 설정을 통한 지도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

2) 代替指導

이미 설정된 단원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를 작성된 자료로 대체지도하는 경우이다. 통일교육 자료는 기존의 자료와 성격상 차이가 있으므로(교재 선정기준에서) 이러한 방법 선택에 장점이 될 수 있다. 도덕과나 다른 관련 教科를 통해서 지도할 수 있다.

3) 挿入指導

이미 설정된 단원이나 제재에서 강조해야 될 내용을 삽입해서 보강 지도하는 경우이다. 代替指導나 挿入指導의 경우는 教材研究시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지도안에 朱書등으로 明記하는 것이 좋다. 모든 관련 교과에서 지도가 가능하다. 教科關聯 指導의 경우 學習內容은 주로 認知的

領域이 중심이 되며 教材特性이나 관련 교과 성격에 따라서 글쓰기, 그리기, 글씨쓰기 등 여러 가지 形態로 이뤄질 수 있다.

2. 統一教育의 經驗擴大 過程을 통한 指導

통일교육은 그 성격상 教材內容을 통한 체계적 지도와 實踐的 經驗이 중요하다. 學校 教育課程 성격에서 보면 특별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통해서 경험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

가. 特別活動을 통한 指導

특별활동은 운영 요령에 따라 통일교육과 같은 교재의 지도에 매우 효과적인 경험의 기회가 된다.

첫째, 통일동산 조성, 통일조례 운영, 통일판(코너)설치 운영, 유적지 순례, 강연회 개최, 영화 관람, 연극, 순회전시회 참관, 특수시설(북한관)관람 등 다양한 경험 내용을 설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둘째, 교과지도와 관련하여 經驗을 深化시킬 수 있다. 情意的 性格 課題의 內面化 過程은 教科學習 경험으로는 내면화의 초기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情意的 學習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實踐的 意味를 이 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교과 시간의 지도 내용과 연계하여 ① 글짓기 및 발표 ② 討議學習의 實態 ③ 統一學習 코너 꾸미기 ④ 관련 책 읽고 讀後感 쓰기 ⑤ 관련 자료 내용별 스크랩북 만들기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學校 및 사회적 행사와 관련한 深化活動이다. 각종 행사는 학습 내용에 대한 경험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나. 生活指導

學校 生活指導의 일반적 개념은 학생 생활 자세의 지도이다. 포괄적으로는 학교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스스로의 생활을 보다 自律的으로 營爲해 가는데 있다.

統一教育은 교과서 내용을 암기하는데 있지 않고 북한 주민이 바로 내 형제요 부모란 의식을 가지고 인간 본연의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大乘의 意味의 統一 倫理가 될 것이다. 생활지도가 삶의 현장을 지도하는 것이라면 통일교육은 곧 삶, 자체의 교육이기도 하다.

IV. 結

教育의 機能은 어느 한 곳에만 국한하여 기대되지 않는다. 가정, 사회, 학교 모두가 특성있는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중 학교는 가장 체계적이고 意圖的으로 교육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國民的 課題인 통일 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학교교육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노력과 기대는 조급할 수 없다. 이 말은 부지하세월로 기다려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蓋然性을 다음 몇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統獨이 주는 敎訓이다. 우리는 아직 통일된 독일과는 매우 다른 상황 조건에 있다. 즉 유리한 통일 조건에 있었던 독일이 많은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둘째, 統一費用이란 경제 문제이다. 서독은 統一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兩獨의 水準差에서 오는 일체감 상실은 사회적 혼란을惹起시키고 있다.

셋째, '思想의 벽'이라는 과제 자체의 특성이다. 한 사람의 행동을 옳과 惡의 극단선상에 두고 관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 주민은 兄弟요 부모인 동시에 유의해야할 상대란 점은 주변 요인과 관련해서 지적하였다. 이러한 성격은 더욱 과제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國內外 전문가들은 한반도 統一 時期를 향후 10年 내에 도래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1996年~2000年까지의 4년간이 가장 타당성 있는 통일 시기로 보고 있다.⁴⁾

이 시기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다. 統一 努力의 合理性, 體系性的 意味는 최소한 統韓뒤에 야기될 수 있는 통독의 후유증 같은 문제점에 대한 豫防的 노력도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北韓의 비교적 풍부한 自然資源과 南韓의 産業技術이 합치될 때 보다 발전된 先進의 모습이 될 것이란 기대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妥當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극빈한 가정과 부유한 한 집이 모여 바로 중류의 생활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統一 努力은 조급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나태하지 않은 자세로 인내하고 포용하는 持續的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韓國教育新聞, "南北教育交流 現況과 展望", 1992. 10. 7, p. 3.

北韓의 學校 教育의 片貌

聞慶女子中學校 教師 權五錫

I. 머리말

世界史의 흐름은 어느 한 個人이나 어느 한 國家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東西 冷戰時代의 對立과 갈등으로 人類가 겪은 고통은 실로 筆舌로 다 表現할 수 없다.

8·15 해방後에 外勢에 依한 南北分斷으로 우리 民族은 同族相爭의 歷史的 悲劇을 겪게 되었다. 오늘날 世界는 共產主義가 막을 내리고 있으며, 마지막 남은 소련과 中國, 쿠바 등의 共產主義 國家들도 많은 變化를 하게 되었다.

北韓도 더 이상 그들의 主體思想만으로 무장하고 四方을 빗장으로 걸어 잠그고 世界史의 滔滔한 흐름을 外面할 수 없게 되어 南北 交流 協力の 協商테이블에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歷史의 흐름에 따라 우리 教育界에서도 統一에 대비한 教育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禁忌事項으로 되어 있던 北韓에 대한 資料를 開發하여 教育에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 對峙狀況에서는 教育現場에서 北韓에 關한 資料를 接하기도 어려웠고 關心을 가지지도 않은 것이 事實이다. 南北 交流 協력이 잘 履行된다면 모든 分野에서 統一을 向한 協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北韓의 學校教育에 關한 資料를 다음에 간단히 소개하여 北韓 理解 教育資料 開發의 始發點이 되었으면 한다.

II. 北韓의 學校에서 배우는 教科目

1. 人民學校

人民學校는 우리나라의 국민학교에 해당하는 學校다. 北韓의 人民學校에서 배우는 教科目은 국어·산수·김일성 혁명활동·김일성 어린시절 따라 배우기·공산주의 도덕·역사·지리·자연·음악·미술·체육 등으로 1~2학년은 10과목 3~4학년은 12과목을 배우고 있으며, 4년간 총 3604시간을 실시하고 있다.

국어 교과서를 살펴 보면 김일성에 대한 송시로 시작하여, 김일성의 어린 시절, 김일성에 의하여 철도가 발전했다는 이야기, 청산리 現地 교시 이야기, 항일무장 투쟁 이야기, 金日成의 肖像畫를 보면 기운이 나서 밤을 새우며 노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등 特定人的 傳記와 같은 內容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국어 教科書와는 전혀 다르게 편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수 과목의 內容도 한 예를 들면 “人民軍 비행기 2대가 美國 비행기 20대와 싸워 이겼다. 몇 대 몇으로 싸워 이겼는가?”와 같은 식으로 學生들을 教育시키고 있으니 이는 好戰的인 反美 感情을 일깨우는 教育이다.

美術時間에 그림을 그리는데도 전쟁을 主題로 한 그림이 아니면 金日成 首領의 肖像畫를 그어야 한다고 하니 北韓 어린이들의 情緒가 메마르지 않았을까 염려가 된다. 체육시간에는 50% 이상이 戰爭놀이이며 統一달리기 훈련도 시키고 있다.

2. 高等中學校 中等班

1~2學年은 일반 課程에 치중하고 3~4學年은 수학·물리·화학·기술·이론·실습 등 科學技術 科目에 치우쳐 있다.

年間 教科目 時間 配定을 보면 文學·歷史·露語(최근에는 英語) 등이 30%이고, 무생물과 관련된 學科 卽 수학·물리·화학·지리 등이 40% 생물과 관련된 생물(동물·식물) 위생 등이 5% 基礎 技術教育과 관련된 技術 理論·實習이 20%, 그 밖에 도서·제도·음악·체육 등이 5%로 되어 있으며 適當 1時間의 ‘공산주의 교양’ 시간이 추가된다.

국어 교과 중에서 ‘나의 따발총’이라는 글을 보면, 「삼팔선을 넘어 원수에게 복수의 죽음을 주며 끝까지 승리 속에 전진해 갑니다. 나의 따발총아, 원수를 향해 퍼 부어라. 제주도 끝까지 가자. 나의 따발총아!」이런 內容으

로 되어 있다. 얼마나 好戰的인 내용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高等中學校 高等班

고등중학교 고등반에서 실시되는 教科目은 국어·문학·로어(또는 영어)·산수·대수·기하·조선역사·세계사·자연지리·조선지리·식물·동물·세계지리·물리·화학·체육·미술·제도·음악·실업·가사·재봉·위생 등이었으나 最近에는 한문·영어·공산주의 도덕·金日成 革命活動 研究·金日成 덕성실기 등이 追加되었다.

教科 內容도 우리 나라 教科書 內容과는 전혀 다르다. 그 예를 들어 보면,
국어: 김일성 우상화, 반제·반일 투쟁 의식 고취, 김일성에 대한 충성
強要, 北韓體制的 우월성 認識, 革命傳統敎養

영어: 金日成 찬양, 反美 鬭爭意識 고취, 북한찬양, 민족자부심 고양,
적화투쟁 촉구, 反日鬭爭 고취

사회: 金日成의 抗日鬭爭記 해설,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과시, 6·25동
란 後의 경제건설상 선전

국사: 계급교양 강화, 북한체제 찬양, 對南非難, 사회주의 교양

4. 實習時間

기술이론과 실습시간은 학교 부근의 産業種別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탄광 부근에 있는 학생들은 탄광에 나가서 實習을 통해 石炭을 캐는 일을 배우게 되며, 發電所 부근의 학생들은 발전소에 나가 電氣에 關한 技術을 배우고 農場 부근의 學生들은 營農技術을 배우게 된다.

5. 義務勞動

北韓의 學生들은 法的으로 年間 45日 이상 社會主義 勞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의무 노동은 대체로 의화별이, 受領의 生日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산삼캐기, 모내기 전투, 물주머니 만들기 등 그 種類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 課外活動

學校에서 課外活動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自治的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自律的인 活動을 일체 許容되지 않는다. 모든 課外活動은 '少年團'이나 '사로칭' 등 學校內的 政治 단체들이 주관한다.

高等學校 이상의 課外活動과 그 조직에는 學科目 研究 서클, 체육 서

클, 예능 서클, 학과목 경연대회, 체육경기, 독후감상 발표회, 영화 감상회, 혁명 전적지 답사, 창작 발표회, 시 낭송회, 미술 전람회, 담화회, 노력 및 전투영웅과의 面談 등이 있다.

7. 少年團

소년단은 북한 초등학교 소년들의 유일한 政治 組織이며, 이 조직의 目的은 로동당과 어버이 首領을 위하여 무한히 충성하며, 어떠한 곤란도 극복할 수 있는 붉은 戰士로 길러 내는데 있다. 少年들은 8세부터 13세까지 누구나 소년단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소년단에 입당하면 붉은 넥타이를 항상 매고 다니면서 서로 인사할 때는 오른 손을 쳐들고 「항상 준비」하고 외친다. 「항상 준비」란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는 뜻이다.

人民學校 및 高等中學校에서는 소년단 지도원이라는 교사가 배치되어 소년단원의 사회활동과 少年들의 훈련을 책임지고 있다.

Ⅲ. 맺음말

序頭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南北이 和解協力하는 時代에 들어서고 있으며, 南北統一에 대한 希望도 더욱 밝아지고 있다.

民族의 至上課題인 統一聖業을 완수하기 위하여 民族全體의 共同努力이 절실하게 要請된다. 南北이 各分野에 걸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交流와 協力を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不信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先決과제이다.

教育에 있어서도 南北統一에 대비한 教育을 위하여 北韓의 實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이해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教育現場에서 活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으며, 일선 교사들이 북한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指針書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 北의 實相과 虛像

李恒九 著(1986)

○ 北韓便覽

共産圈問題研究所(1971)

北韓의 人民學校 國語教科書에 대한 考察

아동문학가 정 춘 자

I. 머릿말

독일의 통일과 동구 유럽의 자유화의 물결이 점점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근래의 세계 정세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통일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 질 것이라 예언하는 이가 많아져가고 있다.

이를 반응이라도 하듯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91. 12. 10 ~ 91. 12. 13)에서는 경제·문화·이산가족·불가침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합의서가 채택되어 통일의 문턱에 한층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가 염원하는 민족통일은 단지 단일정치체제의 형성이나 지역적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감정을 같이하는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룩될 민족통일을 상정할때 북한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어떠한 교육에 의하여 그 의식이 형성되어 가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기란 인간의식과 정서형성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교육내용이 주입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바로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 인민학교(우리의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내용상 특징을 중점으로 하여 북한에서의 아동문학 작품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II.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북한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북한의 헌법에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세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혁명가 양성과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이 그들의 근본 교육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¹⁾

이러한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을 위해 북한에서는 사회과학 과목을 강화하고 있다. 국어 교육은 이러한 사회과학 과목들의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민학교 4년 동안의 총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국어 교육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표1 참조>

<표1> 인민학교 학과목 시간 배당표

과 목 이 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수								총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17주	2학기 22주	1학기 17주	2학기 22주	1학기 16주	2학기 21주	1학기 16주	2학기 21주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152
특 강	1		1		1		1		152
공산주의 도덕	1		1		1		1		152
국 어	8		8		7		7		1,142
수 학	5		5		6		6		834
자 연					3		3		222
위 생							1		37
체 육	2		2		2		2		304
음 악	2		2		2		2		304
도화·공작	2		2		2		2		304
계	22		22		25		26		3,603

1)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서울, 1988, p.111.

분석된 국어 교과서는 총5권으로 인민학교 1-1, 1-2와 2, 3, 4학년용이다. 분석 내용은 교과서에 실린 단원을 형태상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분류 고찰하였다.

1. 형태상의 특징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는 총5권으로 1학년이 1학기과 2학기과 구분되어 있고, 2, 3, 4학년은 단권으로 되어 있다.

1학년 1학기의 책은 처음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 글자의 모음과 자음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공부해 나가도록 짜여져 있으며, 글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책의 후반부에는 동시와 이야기글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서의 단원은 1학년의 31과, 2학년의 50과, 3학년의 40과, 4학년의 40과로 총 161개과로 되어 있다. 1-1의 교과서는 단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시켰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장르별로 분류해 보면 동시와 동화, 생활문, 전기문, 설명문, 기행문, 편지글, 일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동화와 생활문, 전기문을 이야기글로 묶어서 분류하였다. 그러면 각 교과서의 장르별 분류를 살펴보자(표2 참조).

〈표2〉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장르별 분류²⁾

장르 \ 학년	1	2	3	4	계
동 시	8	11	7	8	34 (20%)
이 야 기 글	12(1)	22(1)	16(1)	13(2)	63 (40%)
설 명 문	11	14	12	14	51 (32%)
기 행 문		1	1	1	3 (2%)
편 지 글		1	1	1	3 (2%)
일 기 글		1	1	1	3 (2%)
독 후 감 상 문			1	1	2 (1%)
극 본			1	1	2 (1%)
계	31	50	40	40	161 (100%)

2) 이야기글의 ()속 숫자는 의인동화로 그나마 정치색을 덜 띄고 있음.

위와 같이 우선 글의 종류에 대한 심한 불균형을 첫째로 지적할 수 있다. 전체 161과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이야기글이 단연 으뜸으로 그 주 내용은 김일성과 그 가족에 대한 전기문이거나 투쟁을 조장하는 생활문과 동화이며 그 중에서 앞서 말한 그나마 정치성을 배제했다는 의인동화도 그들의 사회주의 도덕교양의 일환인 노동예찬이나 전체를 우선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야기글 속에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전기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들의 의도를 짐작케 한다.

2. 내용상의 특징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김일성을 구세주와 같이 이상화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29%)이며, 두번째로 차지하는 것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26%)으로 전체의 55%가 김일성 가계에 대한 찬양 및 충성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3〉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주요 내용	학 년				과수	%
	1	2	3	4		
김일성 찬양과 충성심 고취	8	14	11	14	47	29
김일성 찬양과 세습합리화	8	9	13	12	42	26
혁명정신과 투쟁의식 양양	5	8	3	5	21	12
사회주의 도덕 교양	1	5	8	4	19	12
순수언어 생활 기능 학습	9	13	5	5	32	20
계	31	50	40	40	161	100

그 다음으로 반미 감정과 반일 감정을 고취시켜 투쟁의식을 조장하거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나 공산주의의 도덕 교양을 주제로 한 것이 25%나 된다. 그러나 국어 교육의 본래 목적인 문법, 낱말, 문장 해석 및

작문과 같은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주제는 겨우 20%를 차지할 뿐이다.

이것은 북한의 국어 교과가 정치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별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성 우상화 및 충성심 고취

전체의 29%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주로 김일성의 인품과 행동 및 가계(부, 모, 처)를 찬양하여 존경심을 갖게 하고, 모든 혜택이 그의 배려와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시켜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김일성의 인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인자함과 자상함을 표현한 글은 다음과 같다.

제가 입학하던 날입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찾아오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저는 맨 앞줄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만세를 불렀습니다.(중략)

아버지 원수님께서서는 저의 두 볼을 따듯이 어루만져 주시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어쩔줄 몰랐습니다.

〈어디 가방을 좀 볼까〉

아버지 원수님께서서는 저의 가방을 여시고 교과서와 학습장 연필까지 하나하나 만져보시었습니다.(중략)

이날 아버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들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입학날을 즐기는 우리의 마음은 훨훨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³⁾

〈입학하는 날〉

산삼을 받아든 그 아저씨는 너무 감격하여 더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아!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위해 두해동안이나 산삼을 건사해 두시었구나...)

유격대 아저씨들은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에 목매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격대 아저씨들의 가슴마다에는 아버지 원수님을 위해 목숨바쳐 싸워갈 굳은 결의가 흘러 넘쳤습니다.⁴⁾

〈산삼에 깃든 이야기〉

3) 국어(2), 인민학교 제1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5, pp. 22~25.

4) 국어:인민학교 제2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48.

또한 그가 어릴 때 얼마나 총명했으며 애국심과 효성이 지극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실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창덕학교에 다니실 때 일입니다.

《밀들이 말라 죽는데 날씨가 왜 이리 가무는지 모르겠구나》

외할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중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는 없을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밀밭에 물을 주시여 가뭄도 막고 마을 사람들의 생각도 깨우쳐 주자고 결심하였습니다.(중략)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다음 크시면 나라에 물길을 내어 이땅에서 영영 가뭄을 없애버리리라 다짐하시었습니다.⁵⁾

〈밀밭에 물 주신 이야기〉

이러한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와 충성다짐은 인민학교 4학년 교과서 제1과에 나오는 동시에 이르러는 극에 다다른다.

하늘 땅의 끝까지 따르렵니다.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렵니다.

수령님의 그 은혜 길이길이 전하며 일편단심 충성을 다하렵니다.⁶⁾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2) 김정일 찬양과 세습 합리화

인민학교 교과서에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26%로 김일성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그의 효성과 충성, 자애로움 등 품행을 찬양하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편의와 은혜가 그의 배려로써 이루어졌으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김정일에게도 대를 이어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일의 은혜와 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나라 일을 한몸에 지니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가셔야 할 곳은 그 얼마이시며 하실 일인들 또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그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한 어린이를 위하여 승용차를 병원으로 몰아가게 하시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린애를 따듯이 보살펴 주시면서 어린이들이

5) 국어, 인민학교 제2학년용, pp. 143~145.

6) 국어, 인민학교 제4학년용,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p.4.

건강해야 집안에도 나라에도 웃음꽃이 핀다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랑에 목이 메여 자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⁷⁾

〈뜨거운 사랑을 신고〉

누구의 단추일까.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주신 옷인데 누가 단추 떨어진 것도 모르고 다닐까.⁸⁾

〈단추〉

또한 김정일이 대를 이어 혁명을 계승하여 실행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화하고 있다.

원수님의 높은 뜻
이어가시는
김정일 선생님께
인사드려요.⁹⁾

〈온나라 꽃봉오리 인사드려요〉 제2연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모습을 우러르는 유격대원들의 가슴은 한없이 뜨거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큰 뜻을 이어가실 위대한 조선의 장수!)¹⁰⁾

〈백두산의 어린 장수〉

〈아버님께서 싸우시던 곳은 다 가보겠어요. 그래야 아버님을 더 잘 모시고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¹¹⁾

〈그림책을 보시며〉

이렇게 김정일이 김일성의 뜻을 이어받아 대를 이을만한 훌륭한 자질과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의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3) 혁명정신과 투쟁의식 양양

혁명의식과 투쟁의식을 양양시키기 위해서 교과서에서는 반미·반일·반지주계급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케하거나 한국 정부의 최고통치자

7) 국어(2), 인민학교 제1학년용, pp. 86~87.

8) 국어, 인민학교 제2학년용, p. 27.

9) 국어(2), 인민학교 제1학년용, p. 42.

10) 국어, 인민학교 제2학년용, p. 11.

11) 국어, 인민학교 제4학년용, p. 9.

를 비방하고, 그의 악행으로 남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또한 군사들이나 전쟁에서 원수를 처단하는 기쁨을 갖게 해 투쟁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2학년 39과 〈체육대회〉라는 과목에서 체육대회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체육대회는 집단체조 <아버지 원수님께 영광드려요!>로 시작되었습니다. 영남이네 반 동무들은 <미제놈 까부시기> 경기에 나왔습니다. 영남이가 첫번째로 뛰게 되었습니다.

<차렷, 땅!>

신호총소리가 났습니다. 영남이는 <미제놈>을 노려보며 냅다 달렸습니다.

저놈이 남녘땅 어린이들을 못살게 구는 원수놈이라고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선참으로 달려간 영남이가 <미제놈>의 대가리를 힘껏 내리치자 동무들이 <와!> 소리치며 손뼉을 쳐주었습니다.¹²⁾

〈체육대회〉

학생들에게 이러한 적개심과 투쟁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비단 이러한 군사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문장과 낱말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제송냥이놈들을 때려 부시자!>

마을 사람들은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하시몬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제놈의 집에 숨어있는 미제놈을 찾아내어 그 자리에서 쳐죽이고 말았습니다.¹³⁾

〈미제송냥이〉

이러한 극도의 적개심은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 안길래요”는 동시의 첫줄에 “미제놈 물러가라, 전두환 괴뢰놈 때려 부시자”¹⁴⁾로 시작하여 총칼을 무서워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투쟁의식으로 나타난다.

(4)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사회주의 도덕교양 강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강조하기 위해 남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

12) 국어, 인민학교 제2학년용, pp. 119~120.

13) 국어, 인민학교 제2학년용, p. 62.

14) 국어, 인민학교 제3학년용, p.133.

리고 있으며 불평등과 부정 속에서 착취와 압박을 받고 있는 생활을 북한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과 비교시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남한의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봤더니
미제놈들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무들에게 실어간대요.¹⁵⁾

〈내동생〉

(나는 왜 공부할 수 없나?)
수원이는 두 주먹을 꼭 틀어 쥐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썩어빠진 세상,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 전두환 괴뢰놈이 끝
없이 미웠습니다.¹⁶⁾

〈공부하고 싶어요〉

온나라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행복을 주시는 김일성 원수님.
누구나 돈 한 푼 안내고 공부하는 넓고 넓은 배움의 길 펼쳐주시고 궁전
도 야영소도 지어 주셨대요.¹⁷⁾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 안길래요〉

이렇게 그들 체제의 우월성을 인식토록 유도하는 한편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을 예찬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다.

아버지 원수님의 이 교시를 되새겨보면서 나는 지난날 일하는데서 부끄
럽게 행동한 것은 없는가를 깊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원수님의 교시대로 노동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고 일
하기를 즐겨하는…….¹⁸⁾

〈동화〈먹고 놀던 꿀꿀이〉를 읽고〉

지금까지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에 대해 내용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에서의 아동문학의 역

15) 국어(2), 인민학교 제1학년용, p. 33.

16) 국어, 위의 책, p. 80.

17) 국어, 인민학교 제3학년용, p. 133.

18) 국어, 인민학교 제3학년용, p. 38.

할이나 위치에 대해 미루어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아동문학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맺는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맺는말

북한의 <문학예술사전>을 보면 북한에서의 아동문학의 본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혁명적 아동문학은 자라나는 세세대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사회주의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무한히 사랑하며 온갖 계급적 원수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지덕체를 갖춘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사상교양의 힘있는 수단의 하나”¹⁹⁾라는 규정으로 어린이의 맑고 깨끗한 순수성과 꿈과 희망을 키우며 인간다운 정서와 의식을 심어주는 우리의 아동문학 본질과는 엄청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아동문학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본문에서 살펴본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문학작품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아동문학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아동들로 하여금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충성하게 하는 것이 아동문학 역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과서의 문학작품중 55%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배려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 품안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도록 행복하므로 그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 목숨 바쳐 대대로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적에 대한 증오심을 조장하여 투쟁의식을 고양하고 혁명전통을 계승하게 하는데 아동문학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일제 36년과 6·25전쟁때의 침략자로서의 일본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의 폭발이거나 남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지주놈, 피퇴군놈, 미제놈, 남한의 최고 통치권자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투쟁의식을 키우고 그들의 혁명전통을 계승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평범

19)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p.474.

한 소재에서도 전투적 의미를 부여하고, 「돌로 대가리를 까부시다」 「가슴에 복수의 날창을 박고」 「시퍼런 총창으로 앞가슴을」 등의 말초적이고 중오어런 언어선택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아동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핵심으로서 아동문학의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세재로는 노동을 예찬하고 전체에의 복종과 협동심을 고취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도덕교양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공산주의 사회의 새로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질로 보아 중요시하고 있어 노동을 보람으로 삼고 전체에의 복종을 우선시 할 것을 아동문학 작품을 통해 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커다란 줄기로 북한에서의 아동문학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로써 북한에서의 아동문학은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목적과 혁명투쟁의 사상적 무기가 되어야만 그 존재가치가 있으며 동심의 세계는 무참히 짓밟은 채 공산주의 신봉자, 그것도 김일성주의적인 인간을 키워내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언젠가 이룩될 민족통일을 내다보고 남북동질성을 생각할 때 정서적이며 의식적인 측면의 이질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열망하는 통일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족끼리 갖는 근본적인 증오심과 적개심을 해소하고 남북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남북 아동 문학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활성화되고 보다 통일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學校 發展의 序章

— 校長의 指導力 —

慶尙北道敎員研修院 敎育硏究官 姜 贊 中

校長의 存在理由는 學生의 敎育에 있음을 前提한다.

효과적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¹⁾을

첫째, 강력한 학교장의 지도력(Strong leadership), 둘째, 학생의 성취에 대한 높은 期待, 셋째, 질서 정연한 환경, 넷째, 학생의 基礎 技術·能力에의 초점, 다섯째, 지속적인 確認과 聽取, 여섯째, 학교 敎育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일곱째, 자원의 창의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담임교사를 보면 그 學級의 모습이 비춰지고, 교장을 보면 그 學校의 모습을 聯想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지나치지 않음을 알게된다.

효과적인 學校란 결국 학교장의 지도력에 좌우되며 學校發展의 關鍵은 學校長에게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효과적인 학교의 특징의 焦點인 校長의 지도력에 대한 생각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지금 世態의 興件이 校長職은 도전을 받고 있고, 시련기에 있다고 하면 어떤 편견 때문일까?

學校長이 確固한 召命感과 哲學, 그리고 透徹한 敎育愛로 우리 敎育을 이끌어 왔다면 이런 樣態를 겪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한다.

敎育法 75條는 學級敎育의 責任을 校長에게 지워놓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校長의 指導力에 대한 문제는 看過할 수 없다.

1) 朱三煥, 새로운 세기의 校長과 獎學, 서울:星苑社, 1991. p.93.

校長の指導力の強化는 教育의 本質的인 問題의 接近이다.

校長職을 行政家, 管理者, 指導者로 보는 것은 見解에 따라 다르겠지만 指導者를 보다 上位의 概念으로 보고 指導力 向上에 대한 論議를 展開하고자 한다.

學校의 責任을 맡은 校長으로서 하여야 할 일은

첫째, 教育의 方向舵를 바르게 잡는 일이다.

學校마다 그 처한 모든 條件이 다르다. 그런데 學校 經營(運營·教育) 計劃을 보면 어느 學校나 大同小異한 것은 地域의 特性이 비슷하다는 설명도 되겠지만 實態를 바르게 보지 못함에도 緣由한 것인지도 모른다.

學校의 經營計劃은 前年度 經營實態 分析의 土台위에서 教職員 및 學生의 組織, 地域社會의 實態와 要求, 上位의 獎學方針 등을 基底로 하여 集團智에 의해 目標를 導出하고, 合意를 보고 接近方法을 緻密하게 研究하여 提示할 것이 要求된다.

한 해 學校를 經營하고서도 달라진 것도 없고, 다음 해도 같은 모습으로 남는다면 學校發展은 요원한 것이며 누구나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職으로 轉落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個人이 살아가는 일에서도 올해도, 내년에도 비전없이 지내었다면 살아온 보람이 있을까? 未來를 위한 삶을 構想한다면 무엇인가 變化를 計劃해야 하고 골짜기가 깊으면 메워야 하고, 굽은 길은 곧게 만들어야 할 責任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할 일이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彷徨이라고 한다. 그냥 물에 떠서 흘러감을 漂流이라고 한다. 方向舵가 잘못 쥐어진 '教育號'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明確한 일이다.

둘째, 權限을 나누어 가지자

校長도 萬能人이 아니다. 대체로 能力이나 人品엔 조금의 差異가 나더라도 平凡한 사람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나 아니면 안된다' 든가 '모든 일은 내가 이룬 것……' 등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固執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意思決定權을 내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장 선생님을 모신 중에 印象 깊은 분이 많이 계셨다. 그분은 指導力이 成功的이고 強力하다는 評判이 난 분인데 校長의 權限을 과감하게 委任한다는 사실이다.

경미한 事案에 대해 교감의 전결사항을 규정하여 일임하고 주임교사의 업무 처리규정을 만들어(法이 규정되기 前) 自律처리 하도록 誘導하였

다. 그 시책은 自律化·民主化의 風土를 定着시켰고, 저마다 일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사랑을 투자하면 사랑을 받고 권한을 투자하면 權限이 돌아온다는 이치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한 組織體의 經營目標을 혼자서 달성 할 수 있다는 생각은 禁物이다. 成功的인 業績에 대해서 이 일은 校監先生님이 推進해서 이런 實績을 이루었고, 이는 어느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刮目할 成果가 있었으며, 이는 어느 고용원의 努力의 結晶이다 라고 자랑한다면 결국 그 功은 迂廻해서 되돌려 받지 않던가?

組織의 狀況에 따라 그들로 하여금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중에 진한 고민이 있고 그들의 潛在能力을 充分히 發揚하게 한다면 指導力의 共有가 더 效果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經營 參與를 強化하자.

參與는 民主主義의 原理이다. 參與는 멀리보아 學生을 위하고 教師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교장의 意思決定에 도움을 받고 교장 자신을 위한 일로 觀點을 定立하면 積極的인 參與活動이 가능할 것이다.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두사람이, 나아가 열사람의 의견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있다고 본다.

자신이 참여한 일에 더 깊게 關心을 갖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경험이다.

사실 參與도 適正해야 한다. 모든 일의 修行에 全員을 참여시키는 일은 浪費일 뿐만 아니라 民主化·合理化의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효과적이겠지를 분명히 생각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學校教育目標 達成에 있다면 構成員 各자가 主人으로서의 役割을 分擔하고 責任있게 遂行해 나갈때 그 效率性이 增大된다. 서로 존중하고 信賴하는 분위기가 參與活動을 더욱 活性化시킬 것이다.

넷째, 스스로 쓸모있는 資源이 되자.

校長이 多方面에 해박한 知識과 能力의 所有者라면 더욱 좋은 일이 겠으나 그렇지 못할 때 方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현안문제의 해결에 學校의 人的資源도 活用하기 나름이고, 이웃학교, 지역인사, 교육청으로도 눈을 돌리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 이의 活用

이 能力的 補完指標로 가능하리라 본다. 결국은 思考의 전환 문제이다.

교장에게 教育目標 달성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상 그 효율화를 위하여 무엇이든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식이든, 기술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후한 인심이라도 좋다.

수업연구를 위하여 고심하는 교사에게 導入은 이렇게, 展開에는 이런 자료가 探究的인 發問은 이런 장면에서는 이런 형태가 有用하지 않을까 하고 조언 했을 때 교사의 고민은 줄어들고 한결 안정된 속에서 자신감이 더해 갈 것이다.

어떤 교육적 문제에는 해결사가 되고, 어떤 일에는 바람막이도 되고, 교사가 저야할 책임에 대해서 선선히 교장이 떠맡는다고 한다면 즐겁고,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일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다.

볼 것이 없는데 구경꾼들은 봄비지 않는다. 교장은 무엇이든 풍성하게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쓸모 없으면 천대받기 마련이다.

다섯째, 資質을 높이자.

本院의 院訓에 '未來의 創造는 平生學習으로'의 方針이 있다. 指導者가 되는 길은 외롭고 고통스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항상 공부하고 정보를 얻고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교사 아래서 훌륭한 제자가 태어나듯이 훌륭한 교장이 경영하는 학교에서 내일의 棟梁이 육성될 수 있음도 믿을 수 있다.

교장은 학교조직의 경영자로서 專門性을 발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校長의 資質論²⁾에서는

첫째, 校長의 課業은 法的地位나 경영의 實際的 側面으로 學校教育目標 設定과 學校運營方針의 樹立, 教育課程의 편성과 운영 등 9個 項目, 둘째, 課業의 遂行課程으로 意思決定, 計劃, 組織, 評價 등 7個 項目, 셋째, 校長의 課業遂行 技術로 事務的 技術, 人間關係 技術, 綜合的 技術을 들고 있다. 그리고 校長 職務의 理想的인 順位(美國)³⁾로 1位 授業獎學, 2位 教育課程 獎學, 3位 教職員 選拔과 오리엔테이션을 들고 있고 校長의

2) 배준근·정태범, 교육행정·교육경영(서울:정민사, 1986) pp.464-471.

3) 朱三煥, 전계서, p.138.

適當 理想的 時間配當은 장학 40%, 행정 24%, 교육과정 개발 13%의 조사결과 보고이다.

위의 내용을 吟味해 보면 알기도 알아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하고, 훌륭한 인품 등 여러 資質이 요구된다. 校長은 평소에 研磨된 基盤위에 專門讀書, 研修會, 學位課程, 相互 學校訪問研修 等 接近方法을 摸索할 수 있다.

校長 自身이 발전하여야 현장의 교사에게 資質向上의 施策을 펼 수 있으며, 自身이 모범을 보이는 姿勢여야 본보기의 교육이 될 것이다.

고민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에 대하여 '나는 그런 것 모르오, 나는 그分野에 關心이 적어서……' 등의 대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차선의 방법이라도 摸索하여 支援과 격려가 주어진다면 責任을 진 사람의 行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教育指導者의 資質을 높이는 길은 教育力을 높이는 첩경이다. 權威意識에 의한 敎職員의 指導는 舊時代的 思考이고 能力의 權威로 指導되어야 한다. 現在 교장 직무의 順位에 어느 것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지, 授業獎學이 주간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할애되는지 反省해 봄직하다.

여섯째, 效果性의 分析과 還流를 學校運營에서도 計劃-實踐-評價의 순환과정을 밟고 臨床獎學에도 計劃協議會-授業觀察- 피드백 협의회의 課程이 있다.

시책이 시행되었으면 그 結果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되고 피드백 조치가 필요하다.

學年初에 教育目標를 樹立하고 實踐結果를 어떻게 따져보고 있는지, 學級經營計劃의 結果產出은 어떤지, 特別活動의 實績은 어떤지를 짚고 넘어야 한다. 직원회의, 각종 위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지 않으면 시책수행의 의미가 없다. 개선을 위한 아픔은 필연적이다.

本道에서는 다행히 쉽게 적용할 '學校教育의 效率性 評價' 資料가 發刊되어 學校與件에 따라 一部 補完을 하더라도 반드시 適用하여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評價에서 유의할 점은 自身에 대한 批判이다. 성공을 거둔 지도자는 자기 自身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寬大한 例를 본다. 自己에 대한 評價부터 엄격히 하고 그리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그런 후에 교사 평가에 관여하여야 한다. 자신은 '바담풍' 하면서 '바람풍'을 기대할 수는 없다.

수업연구는 專門的 成長과 直結되는 現職教育임에도 얼굴 위를 먼저 의식하기 때문에 ‘수고 했습니다. 계획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아동활동도 수준작입니다.’ 등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本質的으로 專門的인 접근이어야 한다. 단원의 위치, 수업계획, 목표수립, 교사·아동활동, 형성평가, 자료, 시간배분, 목표 도달도…… 등등 수없이 많은 觀點이 있다. 수업자가 결점을 스스로 자각할 수도 있지만 건전하고 올바른 지도가 있음으로써 발전한다. 칭찬만이 인간관계를 좋게하는 것이 아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은 입에는 쓰다고 하지 않던가?

학교발전의 序章에 가장 깊이 관여할 사람이 교장 자신이다. 대(大) 교장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학교 내부의 일은 교감에게 맡기는 듯한 印象은 本務를 외면한 일이 아닐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Key는 교육과정 운영 즉 교육활동인데 여기에 集中投球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어떤 잘못이 있는가? 授業獎學에 전념하는 校長이 小校長(?)이 되는 대접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

우리 교육의 문제⁴⁾를 첫째 한국의 학생들은 입시준비의 고역과 고뇌에 찬 고달픔에서 구출되어야 하며 둘째, 한국 교육은 가난에서 구출되어야 하고, 셋째, 교육풍토를 개선하여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한국교육에 깃들여져 있는 권위주의와 집단주의를 自省해야 하고 교직의 專門倫理風土를 確立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難題의 解決은 與件이 허락하는 문제부터 리더인 교장이 개혁의지가 서리고 스스로 資質을 높이며 올바른 指導力을 發揮할 때 正常化에 접근할 것 같다. 未完이지만 完成을 指向하고 專門職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그 努力을 傾注하면 本來의 位置에 回歸할 수 있을 것이라 念願한다.

4) 정범모, “고달픔, 가난, 교육본질 歪曲”, 1992. 4. 29 교육신문 3면 특별기고문.

‘일을 끝까지 해 내도록 하는 教育’

漆谷郡 東明國民學校長 鄭基範

I. 머리말

最近 우리는 소련과 동구권의 엄청난 變化와 東西獨의 統一, 그리고 韓·中修交 等으로 北韓에 크나큰 영향을 주었다는 證據를 第8次 南北總理會談에서 可視的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民族統一의 實現可能性은 分명한 事實로 實感케 되었다. 民族統一은 政治·經濟·制度 等の 統合이 優先됨이 그 順序이겠으나 그보다 眞情한 意味의 統一은 將次統一時代의 主役이 될 지금의 우리 어린이가 바르고 굳세게 자라고 있는 나가 더 根本的인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北韓의 어린이는 옳게 먹지도 옳게 입지도 못하면서 영하 20도의 冬寒을 거뜰히 이겨낼 뿐 아니라 執銃訓練까지도 하면서 心身을 鍛鍊하고 있는데 比해, 우리 南韓어린이는 잘 먹고 잘 입히는 過剩保護下에서 나약해지고 霸氣와 排戰力도 弱하다고 하면 將次 南北統一이 된다고 해도 그 統一의 結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統一教育의 課題라고 하면 統一의 當爲性·民族의 同質性回復·民族共同體意識涵養 等を 꼽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根本이 되는 것은 ‘바르고 굳세고 맡은 일과 일단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도록 하는 教育’이 優先되어야 한다고 筆者는 主張하고 싶다.

II. 일을 끝까지 해 내도록 하는 教育

1. 裡體教育의 敎訓

몇해 前엔가 大邱教育大學에서 職務研修 中 視聽賞教室에서 日本의 某

幼稚園의 教育場面을 撮影한 것을 보았는데 그 幼稚園生들은 펜티만 입은 裸體의 狀態로 하루의 日課 모두를 主로 旺盛한 身體的活動으로 一貫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땀글고 엮치락뉘치락 興에 겨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누구하나 물러서거나 울거나 엄마를 찾거나 먹을것에 매달리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너무나 野性的이요 動物的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으나 우리나라 어린이는 過剩保護속에서 콩나물같이 연약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對比해 본다면, 또 北韓어린이가 國營託兒所에서 嚴格하게 心身을 鍛鍊하고 있음이 事實이고 보면 現時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教育은 그대로 滿足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 自立心を 기르자.

義父子息은 아예 翁석이 通하지 않을거란 생각때문에 스스로 自立하는 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比해 翁석을 잘 받아주는 父母 밑에는 自立心과 反對되는 退嬰的 行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經驗으로 알고 있다. 잠에서 깨어난 幼兒는 거의 울음부터 터뜨리는게 普通이나 周邊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면 울어도 소용이 없고 울어야하는 負擔때문에 울음을 그쳐버리는 것과 같이 過剩保護는 自立心 發達을 크게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教師와 父母는 어린이와 서로 情다운 對話를 주고 받아야 翁석이나 幼兒萬能症을 벗어나 自立心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뜻한 사랑을 根據로 하며 自身에 對한 諸般事의 事理判斷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人格과 自發性을 無視한 채 教師와 父母의 權威를 앞세워 盲目的으로 順從시키려는데서 問題點을 만들고 있는것 같다. 7세 어린이도 그 나름의 人格과 自發性은 嚴存하는 것이다. 이것을 銘心하는데서 그들의 自立心を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成就動機를 기르자.

強靱한 意志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克服하는 勇氣와 끈기를 보여준다. 이를 가리켜 成就動機가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

成就動機란 주어진 課業을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達成하려고 하는 意慾을 말한다. 늘 意慾이 넘쳐 흐르고 어떤 일을 完遂한 後 받을 수 있는 代價나 報酬보다도 일 自體를 훌륭하게 達成하는데 關心을 가진다. 그리하여 그 일에 沒頭하고 精力的으로 活動하여 남보다 더 나은 成就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나 같은 일을 反復하는 일에는 別로 興味를 갖지 않으며 現實에 滿足하지 않고 보다 더 水準 높은 일을 찾아하기를 좋아한다.

成就動機가 높기로 널리 알려진 猶太人の 例를 들어보면 大學生들이 教授에게 끈질긴 質問을 계속하다가 反對意見이 생기면 끝까지 討論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比하여 우리나라 學生들은 質問도 잘하지 않지만 설사 教授와 다른 意見을 가지고 있어도 입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猶太人이 世界各國에서 높은 業績을 올리고 있는 것도 그들의 成就動機水準이 남달리 높기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個人의 成就動機水準은 教師와 父母에 依하여 크게 左右된다. 幼兒期부터 自主的이고 開拓的인 行動을 強調하고 또 그같은 行動을 適切히 칭찬해 주면 成就動機는 길러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學校와 家庭의 實情을 보면 無條件的인 順從만을 強調하고 開拓的이거나 創意的인 行動은 위험시하여 경계하는게 普通이어서 어린이들의 끈기있고 精力的인 成就動機를 기르지 못하고 있는데 比해 猶太人 父母·教師들은 말은일.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成就動機의 育成에 큰 關心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4. 意志는 成功의 原動力

國民學校의 소풍날 풍경을 보면 來往距離 2km 程度의 目的地를 다녀 오는데도 극성스런 어머니와 할머니들은 子女의 所持品을 代身들여다 주는가 하면 아예 子女를 등에 업고 歸家하기도 하고 車를 불러서 타고가는 것을 볼 수 있다.

意志는 自身の 생각을 貫徹시키는 精神力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決斷을 뜻하기도 하고 끈기있는 執念으로 역경을 참고 견디는 忍耐力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러한 意志는 人生의 過程에서 大端히 重要な 資質인 것은 두말 할 餘地가 없다. 아무리 頭腦가 좋고 有能한 사람이라도 意志가 弱하면 社會的으로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와 反對로 意志가 強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堂했을 때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周邊에서 찾아볼 수 있는 企業家로 成功한 사람, 맨주먹으로 客地에서 큰 事業을 일으킨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남다른 學識이나 豊富한 資本이나 天才的 知能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強韌한 意志, 지칠 줄 모르는 끈기, 역경에 굴하지 않는 勇氣 등이 미천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意志가 強하고 每事에 意慾이 왕성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猶太의 家庭教育에서는 이 忍耐力을 기르기 위하여 어린이의 食生活에서부터 始作한다고 한다. 猶太人은 옛날 애급의 노예생활에서 解放된 것을 記念하는 유월절 기간 중에는 누룩이 안들어 있는 무교병만을 1週日間이나 먹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 比較하면 밥이 아닌 죽으로만 1週日을 지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나라 어린아이들은 무교병 아닌 빵을 달라고 울어대겠지만 猶太人의 어머니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무교병이 먹기 싫으면 굶어야 된다는 것을 強調했을 뿐이다.

이와같은 過程을 통해서 그들은 幼兒期부터 주어진 現實을 받아들이면서 週日間이나 참고 기다리는 忍耐力을 發揮하게 된다. 또 猶太의 어린이들 中에서 偏食하는 어린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위와 같은 食生活에 對한 徹底한 訓練에 基因한 것이며 不滿스런 食事도 참고 견디어 내는 忍耐心까지 길러준 것으로 믿어진다. 그들에게는 해마다 유월절이 있어서 모든 國民이 다함께 反復해서 忍耐力을 다져 나가고 있다는 點에 우리는 깊이 注目할 必要가 있으며 同詩에 우리의 實情을 살펴서 깊이 反省할 必要도 있다고 느껴진다.

여기에서 우리의 現實을 살펴보면 大多數 家庭에서는 어떻게 하면 營養價値가 좋은 飲食을 내 子女에게 보다 많이 먹일 수 있을까. 너무도 신경을 쓰는 것까지는 좋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必要以上の 間食을 주어서 억지로 먹일려고 하는가 하면 용돈을 함부로 주어서 衞生的인 習慣化된 어린이가 날로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肥滿症狀 어린이도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現實이니 強韌한 意志의 教育은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5. 일을 끝까지 해 내도록 하자

猶太의 어린이 生活은 매우 規則的이라고 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잘 짜여진 時間計劃에 따라서 生活하는 秩序가 몸에 배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時間觀念은 그들의 徹底한 宗教的 信仰에 基因되는바 크다고 한다. 猶太人은 安息日을 지켜왔다가 보다는 安息日이 猶太人을 지켜왔다는 말이 있을 程度로 그들의 安息日은 敬虔하고 嚴格하고 지나치게 단조로운 만큼 빈틈없는 生活, 卽 時間嚴守·規則嚴守·強靱한 意志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의 規則的 生活은 成人이나 어린이를 莫論하고 國民모두 例外가 있을 수 없이 安息日에는 일찍 歸家해야 하며 學生들은 學校를 쉬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宿題와 工夫를 모두 마쳐두고 沐浴을 한 다음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하는 등 모든 일을 金曜日 밤 촛불을 켤때까지 完了해야 한다. 每週 이와같은 일을 反復하다 보니 時間嚴守·責任完遂習慣이 몸에 배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猶太人이 教育機關으로 크게 成功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키브츠' 教育에서도 一定한 일을 定해진 時間內에 해낼 수 있도록 하는데 教育의 力點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곳의 出身者들 中에는 現存 政府要職, 軍指揮官 教授 등 여러 要職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實態를 살펴본다면 영리하고 똑똑하고 영양발육 상태가 좋다는 등 長點도 많이 있으나 宿題를 하다가 TV視聽에 熱中하는가 하면 장난감을 펼쳐놓는 등 여러가지 일을 펼쳐놓기만 하고 其中 한가지 일도 끝까지 해내지 못한 채, 아무런 責任感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着手한 일을 끝까지 最善을 다하여 繼續하는 持久力, 끝까지 完成시키겠다는 意志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持久力이 不足하다는 것은 完成慾求가 不足한 것과 같으며 어떤 일에 熱中하여 注意를 集中할 수 있는 訓練이 不足했다는 것이다. 持久力이나 執念같은 것은 어떤 外的補償보다 基本的인 內的動機에 依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둘 必要가 있다. 어떤 일을 完成하면 稱讚을 받거나 物質的 稱讚을 받는다는 期待때문에 熱心히 한다는 그것 보다는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自己能力感과 마침내 내가 할 일을 完成했다는 完成感 또 나는 주어진 일을 훌륭하게 完遂했다는 自己滿足感을 맛볼 수 있는 經驗을 쌓아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100點 成績을 따면 1,000원을 받는다는 外的補償 보다는 自己 스스로 하고싶어서 하는일에서 더욱 滿足感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心理學者의 말을 빌릴 必要도 없이 內發的 動機가 훨씬 持續性과 自己成就感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重要的 內發的 動機라는 學習原理를 發見함과 同時에 앞으로 어린이의 教育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하는 意慾을 기르는 데는 外的動機보다는 內發的 動機에 關心을 갖고 일을 끝까지 몰고 늘어져서라도 꼭 成功的으로 完遂해내는 經驗을 몸에 붙여주도록 努力해야 할 것이다.

Ⅲ. 맺는말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잘되고 못되는것은 떡잎부터 알 수 있다’ 등의 말은 참으로 眞理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한 平生을 長距離競走(마라톤)라 比喩한 것도 그 뜻이 깊은것 같다. 長距離競走에서 勝利하자면 피나는 訓練으로 強靱한 體力을 쌓은 것을 바탕으로 中斷됨이 없이 꾸준히 熱走해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의 統一課業도 이 長距離競走와 恰似한 點이 많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將次 統一의 役軍이 될 지금의 어린이의 모습은 어떤가? 自己의 옷가지·學用品·이부자리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챙기는 일이 大部分이며, 한 둘 밖에없는 女子라고 받들어 키우다보니 家族모두가 自己를 爲해서 存在하는듯 家庭의 王노릇을 하고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버릇이 없고 나약하고 忍耐心이나 霸氣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分斷된 조국을 統一시켜나가야할 오늘의 우리 아들딸들에게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하는 教育’을 위하여 ‘強靱한 意志를 심어주는 教育’에 온갖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

萬苦 우리들이 將次 統一時代의 役軍에게 強靱한 意志의 바탕을 길러 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所望하는 統一時代는 期待하기 어렵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放送 프로그램의 教材性を 살리는 길

珍良國民學校 校長 洪 寅 澤

1. 머리말

一線 教壇에서 放送教育에 對하여 最近 相當한 關心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放送에 의한 授業을 전개함으로써 學生들의 變容이 奏效하며, 教師의 自己授業 보람에서 적잖은 魅力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映像教材가 갖고있는 뛰어난 教材性を 밝혀 봄으로써 一線교사의 理解를 높이고 올바른 放送프로그램 活用の 意欲을 提高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放送프로그램의 教材性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放送프로그램의 教育的인 價値를 意味하는 것이다.

이 教材性を 탐색하는 觀點을,

- 電波미디어(media)의 特性,
- 映像의 特性,
- 프로그램 構成의 特性등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보기로 한다.

2. 電波미디어(media)의 特性

요즘에는 뉴미디어(new media)라는 말이 常用되고 있지만 20~30年前의 視聽覺教育에서는 電波에 의한 通信媒體로서 TV가 뉴미디어로 등장 하였다. 지금은 지상파 및 인공위성과 모두를 포함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電波미디어의 教育的인 特性을,

- ① 電波의 波及範圍의 廣範性

- ② 每週 曜日別로 정해진 시간에 放映되는 定時性,
- ③ 坊坊曲曲어디서나 같은 時間帶에서 視聽되는 同時性,
- ④ 세상의 變化모습을 재빨리 알려주는 速報性,
- ⑤ 한 羣의 모니터 TV로서 많은 視聽者들을 상대로하는 메스콤 (mass-communication)性
- ⑥ 스위치 하나의 操作으로 곧 簡單하게 視聽할 수 있는 簡便性 등의 편리함도 있지만,
- ⑦ 映像이 비쳐지는 瞬間에 곧 사라지는 一過性과 같은 關心을 끄는 特性도 있다.

이들 特性중 ①~⑥까지는 放送프로그램을 製作해서 放映 提示하는 쪽의 입장이고 ⑦은 시청을 하는 쪽 즉 學習者의 입장인데 視聽活動上 直接 關係되는 特性인 것이다.

이 一過性은 放送 授業·學習 課程에서 아쉽다고 하는 편과 도움이 된다는 쪽의 두 입장이 있다.

즉 瞬間的으로 映像이 나타나고는 곧 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知識, 情報를 하나하나 獲得시키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이 一過性은 負的인 것이라고 보아 低速이나 停止畫面을 요구하고 VTR로서 反復再生을 하다못해 放送프로그램을 活用하기 困難하다고까지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一過性이야말로 教育的 價値가 있다고 보는 쪽이 有力해 졌다. 그것은 視聽하는 학생의 能力·態度育成의 一環으로서 이 사라지는 映像에 대한 情報處理 能力伸張에 상당한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

人生도 一過性일진대 適時에 適切히, 正確하게 생각하고 行動하는 힘을 기르는데 教育적으로 效果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一過性은 확실히 具體物(實物) 教材와 文字·活字教材와는 다른 映像教材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3. 映像의 特性

教材分類의 하나로서 具體物(實物)教材, 文字, 活字教材, 映像教材의 세가지를 꼽고 있다.

映像教材는 다른 教材와 달리 高速 또는 低俗攝影 그리고 시간의 길이

를 映像에 의하여 實際時間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서울에서 美國 LA까지 飛行機로 旅行하는데 實所要 時間이 10餘時間이 걸리지만 映像으로는 단 10餘秒내에 實現이 가능한 것이다. 즉 漢江邊을 自動車로 달리는 主人公이 金浦空港을 통하여 KAL機에 올라 離陸하여 LA空港 트랩을 내리는 映像文法으로 可能해 진다. 이것이 ①時間의 擴大, 縮小인 것이다.

또 微細한 것이나 肉眼으로 볼 수 없는 것을 擴大 또는 透視해서 보여주며, 巨大한 것도 縮小해서 可視化해 주며, 過去의 모습이나 未來의 모습도 생생한 現實의 映像으로 보여 주는 것은 ②空間의 擴大, 縮小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天然色으로 實物이 實在하는 것처럼 브라운관에 비춰지고 자기나름의 言語로서 理解하기 때문에 映像은 具體物의 性質과 抽象的인 存在로서의 兩面性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③半具體性 ④半抽象性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半具體性과 半抽象性은 결국 間接經驗을 通하여 새로운 經驗은 마침내 創造性을 자아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映像은 畫像(視聽情報)과 音像(聽覺情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畫像은 어디까지나 肯定的인 表現일뿐이다. 즉 꽃이 핀다면 꽃이 피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지 꽃이 피지 않는다는 否定的인 면은 言語나 記號로 밖에 表現이 안되기 때문에 畫像은 언제나 ⑤肯定的인 表現일 뿐이고 否定的이거나 假定的인 것은 言語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映像은 言語의 助詞(-이, -가, -는, -에게, -한테, -부터, -을, -도, -에 등)에 해당되는 것도 없고 言語와 같이 一定한 語法이 있는 것도 아니고 事象의 連繫에 의하여 直感的으로 把握이 可能한 ⑥映像文法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音像은 對話語, 說明語, 音樂, 音響效果 등을 모두 包含하는 範圍인데 畫像과 아울러 實際의인 迫眞感이 있으며 意味 있는 감정을 激昂하여 主體的 感動을 주게 된다.

우리 신변의 情報源인 映像情報(TV放送)에 대하여 그 映像情報 處理能力은 시대가 낳은 새로운 學力으로서 우리는 學校教育에서 當然히 길러야 할 映像學力의 向上에 關心을 두어야 할 때이다.

4. 프로그램 構成의 特性

教育的인 價値가 있는 放送 프로그램의 構成을 論한다는 것은 放送 프로그램의 製作 過程 四要素를 하나하나 살펴 봄으로써 쉽게 理解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즉 이 特定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엇을 呼訴하며 무엇을 主張할 것인가의 프로그램 製作意圖(①目的)이고,

그 意圖를 위하여 무엇에 카메라의 焦點을 맞추며 무엇을 撮影할 것인가(②死傷)이며,

그들의 自然이나 社會事象 하나하나에 어떠한 意味를 賦與하느냐(③意味)이고,

그들 하나하나의 事象과 意味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무엇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어떤 順序로 프로그램의 目的에 副應하는 줄거리와 意味를 어떻게 꾸며내며, 關係지워 意味있는 內容 構成을 하느냐(④意味構成)의 過程인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製作의 四要素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 製作意圖(目的)라고 할 수 있다. 自然科에서 예를 들어보면 指導教師의 授業의 意圖(目標)에 따라 解說型的 知識注入이 된다든지 그저 自然의 事物, 現狀에 마구 주무르는 活動型 授業이 되거나 또는 自然의 事物, 現狀에 스스로의 疑問을 갖고 探究해 가는 問題解決型的 授業이 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製作意圖에 따라 프로그램 自體도 크게 바뀌어지는 것이다.

프로그램 製作者들은 自然科에서 또는 社會科에서 아니 各教科가 期待하는 人間育成은 무엇인가에 바탕을 두고 目的(目標)에 맞는 프로그램 製作에 努力해야 할 것은 너무나 當然한 것이다.

5. 三種의 프로그램의 情報

放送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이건 間に 프로그램情報를 學習者(視聽者)에게 주는 것이지만 이들 프로그램의 大部分은 ①프로그램事象의 情報과 ②프로그램 意味, 知識의 情報 그리고 ③프로그램全體로서의 意味構成法에 힘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三種를 數衍하면 다음과 같다.

(1) 브라운관에 비쳐진 事象

눈으로 볼 수 있는 事象에 무게를 둔다면 具體物(事物) 教材의 代用이나 觀察, 實驗의 代行이나 또는 體驗의 間接的 代用으로서의 教材가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間接經驗의 擴大라는 次元에서는 그 特性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즉 直接經驗이 不可能한 過去의 事象이나 他地域의 모습을 代用으로 間接經驗을 한다는 그 自體는 프로그램 事象情報로서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事實인 것이다.

그러나 科學은 具體物로 始作해서 具體的 事象의 把握으로 끝나는 自然科에서는 直接自然의 事物, 現狀에 맞당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쪽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事象의 情報만 活用한다면 教材性이 卓越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事象이 갖는 意味와 知識

프로그램 事象이 갖는 意味와 知識에만 치중하게 되면 결국 教科書와 教師의 代用으로서의 教材가 되기 쉬운 것이다. 즉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로 知識의 풀이로 그 理解를 돕고 思考와 行動의 틀을 박아 주는 것이 되고 만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內容을 바르게 記憶하여 얼마만큼 再生하느냐에 焦點이 있고 教育의 本質의 領域인 能力, 態도의 育成을 꾀하기보다 知識, 理解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이와같이 事象이 갖는 知識에만 치우친다면 프로그램은 知識의 傳達活動의 補助資料의인 取扱을 받게되어 프로그램 內容 以外의 學生들의 斬新한 發言 또는 質問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며 또 歡迎도 받지 못하고 教材의 테두리를 넘은 擴散的 思考와 旺盛한 意志는 默殺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事象이 갖는 意味와 知識追求로 그 補助的인 資料的 取扱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教材性이 卓越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프로그램 全體로서의 意味構成하기

프로그램 全體로서의 意味構成하기를 달리말하면 未知를 既知化하는 人間의 思考와 行動의 展開라고 表現할 수도 있다. 이 人間의 未知를 追求하여 意味있는 內容을 發見해 간다는 思考活動은 머리속의 處理로서 直接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머리속의 思考活動과 問題를 追求하여 解決 해가는 展開過

程을 視聽覺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映像의 特徵인 것이다.

프로그램의 全體 흐름으로서 教材化가 되는 것이 意味構成하기인데 이것은 具體物教材로 또 文字, 活字教材로도 堪當할 수 없는 것을 視覺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對象으로 프로그램化한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이 最上位의 主觀的 思考活動을 誘發하게 된 것이다.

더욱 學習의 成立은 經驗의 累積에 의한 思考와 行動의 變容이라고 본다면 各種 教育的인 特徵을 가진 放送프로그램의 活動과 映像學力 培養은 時急한 課題가 아닐 수 없다.

人間의 最上位의 思考活動을 學生個體가 스스로 이룩하고 深化發展이 可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意味構成하기인 것이다.

이 部門에서 映像 프로그램의 教材性이 다른 어떤 媒體보다 卓越하다고 보고 있다.

6. 맺는말

위에서 言及한 三種의 프로그램 情報에 있어서

① 프로그램 事象의 情報와,

② 프로그램 意味, 知識의 情報는 프로그램 全體로서가 아닌 部分的으로 取扱되거나(分節投入) 다른 部分과 連結되어(再編輯) 活用이 可能하다고 할 수 있지만,

③ 프로그램 全體로서의 意味構成하기는 프로그램 全體構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分節하면 意味가 사라지거나 또 再編輯하면 또 다른 意味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映像 프로그램 全體로서의 製作意圖를 살려 意味構成하기로 連繫하려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視聽시켜야 한다. 映像(畫像+音像)은 우리 인간이 直接 눈으로 볼 수 없는 머리 속의 思考와 創造性을 자아내게 하는 意味構成하기가 可能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放送教育 프로그램 하나 하나는 모두가 全體構成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교과프로그램은 그 나름대로 製作意圖가 있으며 여타 教養프로그램도 主題別로 意味構成이 가능하고 直接教授性을 지니고 있으며 連續的 시리즈는 하나하나가 獨立의으로 連繫된 作品인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全體로서의 意味構成하기를 위하여 통째로 繼續視聽함으로써 人間教育의 中核인 能力, 態度育成에 寄與할 수 있는 것이다.

初等 新規任用豫定教員 研修 課程에 對한 小考

徐 正 隆

漆谷郡 架山國民學校長

I. 概 論

1. 研究의 必要性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교육의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수한 교사가 필요하다.

우수한 교사가 교육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행정적 조치가 요구되지만 무엇보다도 교원에 대한 현직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R. watkins는 ①지식의 변화 ②교수기술의 변화 ③사회의 변화 ④교사의 변화 ⑤학교의 변화 때문에 교사의 현직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¹⁾하였다.

경북교원연수원에서는 매년 32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고 있다.

본 연수원에서는 투철한 교육관을 바탕으로 교육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즐거운 연수, 알찬 연수, 교육혼을 일깨우는 연수'에 역점을 두고 연수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금번 초·중등 신규임용예정교원(초등151, 중등119명)을 대상으로 6일간 연수를 실시한 바 연수과정에 있어서 기획, 교육과정 편성, 운영 프로그램 등이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가를 연수생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金鐘健外 敎員의 現職敎育 體系化 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敎授論叢 第6輯, 第2號) pp.39~40.

2. 研究의 目的

첫째 ; 전국 연수원의 신규임용예정교원연수과정 교재를 모집, 분석하고,
둘째 ; 본 연수원 「신규임용예정교원연수」과정 연수생에 대한 반응을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분석하여, 다음 연구과정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研究의 制限點

- 1) 신규임용예정자 연수에 대한 선행 연구물이 없는 상태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초등교원 양성 및 현직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 2) 신규임용예정교원연수 교재는 5개 연수원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1. 敎員任用豫定者 事前研修의 概念

교원임용예정자 사전 연수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임용)과 제10조(임용후보자 명부등제)에 해당하는 자로서 즉 임용예정자에게 더하는 직무적용을 위한 사전 훈련으로 오리엔테이션의 기능을 갖춘 넓은 의미의 직전교육으로 본다.

시간상으로는 직전교육에 가까우며 내용상으로는 현직교육에 가까우므로 직전교육과 현직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관된 과정으로 본다.

이는 장차 맡게될 새로운 지위나 역할에 따라 관련된 규범이나 기대 등을 탐색, 학습,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며 기간은 일정기간으로 한다.

2. 문헌의 탐색

- 1) 미국의 초등교원 양성 및 현직교육²⁾

〈생략〉

2) 朴太佑, 初等敎員의 質的向上을 위한 繼續敎育의 方案摸索, (淸州敎大論文集, 第22編) pp.61~66 요약발췌.

2) 영국의 초등교원양성 및 현직교육³⁾

〈생략〉

3) 프랑스 초등교원양성 및 현직교육

〈생략〉

4) 일본의 초등교원양성 및 현직교육

〈생략〉

Ⅲ. 研究의 方法

1. 教材 蒐集 및 分析

1) 교재

본 연수원 도서관에 기증된 전국 지방교원연수원의 '92년도 초등신규 임용예정자연수' 교재를 <표-1>과 같이 수집하였다.

<표-1> 신규 임용 예정자 연수교재 수집

기 관 명	수 량	기 관 명	수 량
대구교원 연수원	1종	울곡 교원 연수원	1종
단재 교육원	1종	경북 교원 연수원	1종
경남 교원 연수원	1종	계	5종

2) 교재 내용 분석

- 기간
- 인원
- 교수요목
- 실시시간
- 연수종별
- 영역별 구분
- 교재 명칭 등

3) 朴鵬培 外, 基本 學歷 未達 敎員의 學歷補充 敎育方案에 관한 研究, 1978, p.9. 발췌요약.

2. 설문지 작성 및 자료처리

- 1) 대상 : 본연수원 '92신규 임용예정자 연수자
- 2) 연수기간 : 92.2.10~92.2.15(6일간)
- 3) 인원 : 초등 151명
- 4) 설문지 작성 : 본 연수원 운영부에서 작성한 설문 10문항중 7개 문항을 선정해서 분석함.
- 5) 자료처리 : 3단계 척도의 빈도수에 의한 백분율(%) 산출.

IV. 新規任用敎員研修 體制와 法的根據

1. 敎員 現職敎育의 體制와 運營

1) 敎원현직 敎育의 법적근거

敎育법 제74조에 “敎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敎育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국민敎育에 전심전력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敎育공무원법 제38조 제1항에 “敎育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敎원 현직敎育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敎育공무원법 제38조 제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敎育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敎원의 현직敎育을 실시할 임무를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위와같은 법에 의하여 ‘敎원연수에 관한 규정’과 ‘敎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 敎원 현직敎育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敎원의 현직敎育과 관련된 이러한 법령들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개인중심 현직敎育과 관 주도 현직敎育의 복합적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중심 현직敎育은 도의적 차원의 의무이며 비형식적인 敎원 현직敎育 체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敎원 현직敎育체제는 관 주도의 체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현직교육의 종류

현직교육은 크게 나누어 국가 또는 시·도 교육청에 의하여 실시되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및 특별연수와 각 학교에서 학교자체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내연수와 같은 종류로 나누어 진다.

자격연수는 상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1,2급 정교사 과정, 교감(원감)과정, 교장(원장)과정이 있으며, 교도교사, 사서교사 과정도 있다.

일반연수는 교육이론 및 방법등에 관한 일반적 교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교장(원장) 교감(원감) 전문직 직무연수, 과학교사 실험연수, 특별영어반 지도교사 연수, 교육평가관리자과정연수, 예체능 교사 실기연수, 특수교사 판별연수, 컴퓨터 실기연수 등 6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직무연수는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휴직하였다가 복직하고자 하는 여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다.

특별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0조 제1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받는 연수이며, 1년 이상의 장기간 연수이다.

그러나 특별 연수를 받은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0조 제4항과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복무 의무가 주어진다.

우리나라의 교원 현직교육은 대부분 국내의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되지만, 국외에서 실시되는 국외연수도 있다.

3) 현직 교육 대상과 선정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에 제4조 제1항에 의거 “일반연수 및 직무연수의 대상자는 소속 교육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규임용예정자 교원연수’는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임용고사에 합격한자와 40세 미만자로 국민학교 1,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퇴직후 1년이 경과된 자) 시·도 교육청 임용순위고사에 합격한자로 교육부 연수25130-

1(92.1.4)의 관련 및 경북초교 25130-20(92. 1.17)에 의거 "92신규 임용예정교원연수 실시"에 의해서 선정하였다.

2. 各研修院 新規任用豫定敎員研修

1) 연수 목적

초등교원 신규임용 대상자의 임용전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기본소양을 갖추도록하여 교육현장에 임하도록 함.

2) 연수 목표

가. 국가의 현실을 이행하고 학생을 인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윤리관 확립

나.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한 식견과 능력을 갖추어 교사로서의 생애를 즐길 수 있는 태도 확립

다. 학생의 지적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기능연마

3. 研修院別 新規任用豫定敎員研修 運營 實態

〈표-2〉 연수원별 신규임용 예정교원 연수 운영개요

구 분 연수원명	기간	교수요목	실시시간	실시인원	비고
대구 교원 연수원	92.2.10~2.15 (6일간)	15	39	319	
울곡 교원 연수원	92.2.6~2.8 (3일간)	9	27	720	합숙연수
단재 교육원	92.2.17~2.22 (6일간)	18	52		합숙연수
경북 교원연수원	92.2.10~2.15 (6일간)	16	34	151	
경남교원 연수원	92. 2.10~2.15 (6일간)	27	33	199	

〈표-2〉에서와 같이 '92년도 기간은 3~6일간 교수요목은 9~27개 요목, 시간수는 27~54시간정도 편성되어 있으며 울곡과 단재 연수원은 합숙으로 과정을 편성했다.

4. 研修院別 研修種別, 領域別, 教材名稱

〈표-3〉 연수종별, 영역별, 교재명칭

구분 연수원명	연수종별	영역별 구분	교재명칭	비고
대구 교원 연수원	.	.	신규채용자 연수교재	
울곡 교원 연수원	직무연수	교양, 교직	신규임용 예정자 연수교재	
단재 교육원	직무연수	교양, 전공직무	신규교사 임용전 교육연수교재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으로 편성해 놓고 교재 내용은 교양, 직무로 편성
경북 교원연수원	기타연수	교양, 교직	신규 임용 예정 교원연수교재	
경남교원 연수원	기타연수	교양, 교직	신규임용 예정교원 연수교재	

〈표-3〉에서와 같이 연수종별을 보면 '직무연수'와 '기타연수'로 명칭을 분류하고 있으나 직무연수를 분류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① '연수는 직무 수행과 직장 적응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배양을 위한 직무연수로 구분한다.'에 해당된다.

그리고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은 일반연수나 직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은 연수원장이 개발 또는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②, ④항)

따라서 일반연수와 직무연수 교육과정은 연수원에 따라 조금씩 다양하

게 짜여지고 있다.

한편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은 자격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③항)

이러한 규정에 의거 1987년도에 <표-4>와 같은 표준 '연수과정표'가 공포되어 각 연수원에서 기본모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연수내용이 엇비슷하다.

<표-4> 연수 과정표

2급 정교사 과정		1급 정교사 과정		교감 과정	
교과	이수시간 (%) 배당비율	교과	이수시간 (%) 배당비율	교과	이수시간 (%) 배당비율
1. 일반교양 교과	10~20	1. 일반교양 교과	10~20	1. 일반교양 교과	20~30
2. 교육대학 졸업정도의 교직 교과 및 특별활동 에 관한 교과	10~20	2. 2급 정교 사 과정 이수 후 계속 이 수하여야 할 교직 교과 및 특별활동 에 관한 교과	10~20	2. 교육대학 원 졸업 후 계속 이수하여 야 할 교 직교과 및 특별 활동에 관한 교 과	10~20
3. 각급 학교 의 전교 과에 관 한 교과	70~80	3. 각급 학 교의 전 교과에 관한 교 과	70~80	3. 교육행 정·교육 재정에 관 한 교과	40~60
합 계	100	합 계	100	합 계	100

교직	• 사회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문서 및 보안업무	2	• 수업장학	2	• 교육 평가의 기초	2	• 학급 학습지도 계획	
	• 산수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교원 인사관리	2	• 교육과정 운영	2	• 장학의 방향	2	• 학급경영 (경영관 경영록 작성)	1
	• 자연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교육 실천사례	2	• 교육연구 방법	2	• 기본 생활습관 지도	2	• 학급장부관리 기술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출석부)	1
	• 체육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분임토의	2	• 생활지도의 실제	2	• 교원 인사와 법규	2	• 담당업무계획과 추진	1
	• 음악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견학	2	• 인간관계기법	2	• 학급 경영의 이론과 실제	2	• 교원의 인사 및 복무	2
	• 음악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시청각교육기타	8	• 시청각 교재 활용법	2	• 학교 조직의 인간관계	2	• 학급경영 관리실무 (공문서 관리)	1
	• 미술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선배와의 대화	2	• 문서관리	2	• 외국의 초등교육(국어 연수 경험)	1
	• 실과 교육의 방향과 수업설계	2			• 분임토의	5	• 전통음악교육	2	• 교사의 인간관계	1
	• 행정	2			• 행정	3	• 행정	3	• 생활지도	1
									• 교과운영의 실제	1
									• 현직 연수의 자기개발	1
									• 잊을 수 없는 선생님	1
									• 배경 희망 제작성	1
									• 리크레이션	1
								• 담임과의 시간	1	
								• 행정	3	
		소 계	23	소 계	30	소 계	23	소 계	20	
	총 계	39	총 계	27	총 계	52	총 계	34	총 계	33

〈표-5〉에서와 같이 교양·교직으로 구분했으나 대구 연수만 통합으로 교재 편찬이 되었으며 합숙(단체·울곡)인 연수원의 경우 '정서 및 체육 활동'에 많은 시간이 배당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교육과정을 보면 대구(교과면), 울곡(교직-실무면), 단체·경북연수원(교직-실무면)에 많은 시간이 할애 되었으며 특히 경남연수원은 교육위원 특강2시간(2명)이 배당된 것이 특이하다. 보다 더 현장 중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수요목이 대폭 포함되어야겠다.

○ 내용면에서 '교양' 과정에서는 너무 정책적인 면이 강조된 경색된 내용으로 편성

폭 넓은 교양을 쌓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 연수방법면에서는 강의 위주로 되어 있으며 토의식연수가 아쉽다.

6. 本院 新規任用 豫定 研修生에 대한 意見調査

가. 신규임용예정교원연수의 필요성

〈표-6〉 신규임용 예정 교원의 종합의견

반응	빈도수	백분율(%)
대체로 좋다	85	56
보통이다	53	35
다소 불만이다	13	9
계	151명	100(%)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56%의 연수생이 대체로 좋은 반응을 나타내며 이는 강사의 친절과 실무중심 강의에 좋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나. 교직 수행에 도움

〈표-7〉 교직 수행의 도움

반응	빈도수	백분율(%)
대체로 도움이 되겠다	83	55
보통이다	56	37
별 도움이 안 되겠다	12	8
계	151명	100(%)

〈표-7〉과 같이 교직수행에 도움이 되겠다가 55% 반응을 나타낸 반면에 이론강의보다 현장경험에 대한 사례, 실습위주 연수를 바라고 있다.

다. 연수기간 및 일정

〈표-8〉 연수기간 및 일정

반 응	빈 도 수	백분율(%)
잘 짜여져 있다	48	32
보통이다	76	50
일부 고려하여야 한다	27	18
계	151명	100(%)

〈표-8〉과 같이 보통이다 50%, 잘 짜여져 있다 32%로 나타난 것은 일정이 하루6~7시간 너무 빡빡하게 강의 위주로 짜여진 관계로 추측해 보며, 토의 및 자율적인 시간을 요망하고 있다.

라. 연수교재의 내용과 활용도

〈표-9〉 연수기간 및 일정

반 응	빈 도 수	백분율(%)
대체로 높다	53	35
보통이다	83	55
낮다	15	10
계	151명	100(%)

〈표-9〉와 같이 대체로 높다 35%, 보통이다 55%의 반응을 나타낸 것은 교재의 내용과 활용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타나내고 있다.

마. 연수과정에서 외래강사 수준

〈표-10〉 외래 강사의 수준

반 응	빈 도 수	백분율(%)
대체로 높다	77	51
보통이다	63	42
낮다	11	7
계	151명	100(%)

〈표-10〉과 같이 외래강사 원고내용과 강의수준이 대체로 높다 51%, 보통이다 42%로 매우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바. 가장 좋았던 강의

〈표-11〉 가장 좋았던 강의

반 응	빈 도 수	백분율(%)
① 원장 특강	72명	47.6%
② 전통 음악	35명	23.1%
③ 문서 실무	20명	13.2%
④ 건강 관리	11명	7.2%

〈표-11〉과 같이 ①특강(원장; 김규련) 47.6% ②전통음악(죽도국 교사 전옥선) 23.1% ③문서실무(김천중앙중 교장 임원수) 13.2% ④건강관리(경북연수원 연구사 김승렬) 7.2% 순으로 나타났다.

사. 편의 시설

〈표-12〉 각종 편의 시설

반 응	빈 도 수	백분율(%)
대체로 좋다	104	69
보통이다	33	22
불편하다	14	9
계	151명	100(%)

〈표-12〉와 같이 대체로 좋다는 반응이 69%로 나타났으며 불편하다는 의견으로는 ①매점 설치 요망 ②자판기 증설 ③여자 휴게실 분위기가 삭막하다 순으로 나타났다.

V. 論 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원 현직교육의 법적근거와 '90년 교육대학 졸업생부터 임용순위고사를 거쳐 직전교육으로 6일간(34시간) 실시한 "신규임용예정연수생"을 대상으로 현직교육의 성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 우리나라 교원 현직교육 체제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주관의 관 주도형이라 할 수 있겠다.

각 학교별 교내연수가 실시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교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이며, 여기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원의 현직교육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구미 여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관 주도형의 교원 교육체제는 현직교육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소극적 내지 수동적 태도를 갖게하고 이러한 참여태도가 현직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⁴⁾고 지적한 학자도 있다.

둘째 : 현직교육기관으로서 지방교원연수원의 시설과 여건이 좋다.

'85. 12. 19(문교재교 25733-33) 지방교원연수원 설립 승인후 88. 12.12 경상북도교원연수원이 개원됨으로 교육여건이 대체로 좋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전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초등교원연수원(전국 교육대학 부설 초등교원연수원)과 종합교원연수원(한국교원 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연수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문교재교 25733-33에 의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지방연수원도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 교원의 현직교육이 비능률적인 시기에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실시되고 있다.⁵⁾

넷째 : 강의위주의 현직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와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표준연수과정'이나 실제 교육과정의 예를 보면 강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효율성없는 현직교육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4) 成宗基, "敎員研修의 오늘과 來日", 敎員研修院 開院記念 學術 세미나, (韓國敎員大學校, 1986), p.39.

5) 金鐘健 外, 敎員의 現職敎員體系化 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敎員 大學校, 敎授論叢, 第6輯, 第2號, (1990. 12) p.53.

VI. 結論

본 연구는 신규임용예정교원 직전연수로 교육과정 개선을 모색함에 있어서 5개 연수원의 연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고, 본 연수원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예정교원 연수생'들에게 질문지를 통한 3단계 평정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현직교육은 관주도형에서 개인중심적인 자율적 연수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둘째; 교육과정 구성면에서 종별, 명칭 등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는데 이를 보완, 명확히 해야겠다.

셋째; 강의중심연수에서 실기중심 및 토의식 자율참여식 연수가 되어야겠다.

〈前 慶尙北道敎員研修院 敎育研究士〉

參 考 文 獻

- 권낙원, '교장 자격 연수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논총, 제6집 제1호 (1990. 7월) 외 다수.

再考되어야 할 教育現場의 問題

金 昌 浩

達城郡 烏舌國民學校 校監

何以來平!

왜 왔는가,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어찌 왔으며 또 그 많은 職業中에서 하필이면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從事하고 있을까요? 무척 哲學的이면서도 人間이 思惟하고 苦惱하는 根本的인 問題이므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厭世主義나 虛無主義를 主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人間은 父母로부터 태어나서 아픈 날 걱정 근심하는 날을 제하고 과연 얼마나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갈까요, 無限의 時空間에서 볼때 짧고도 짧은 一生을 살다가 가는 우리 人間이니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謀事는 在人이요, 成事는 在天이라 하고 不守自性隨緣性이라고는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附與된 所任과 當然히 해야되는 人間의 道理를 다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敎職에 從事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昨今에 벌어지는 社會病理現狀속에서도 質·量的으로 크게 發展하는 敎育에 矜持를 가지면서, 自身의 자리를 孤高히 지키고 敎育發展을 위해 獻身하는 敎育同志들께 敬意를 드리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몇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敎育은 人間의 삶을 위한 手段의 價値라는 敎育觀을 가집니다.

敎育이 사람됨을 일깨워 주는, 사람됨을 도와주는 작용이라면 모든 敎育活動이 이에 직결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과연 오늘날의 敎育이 그렇습니까? 早期敎育이 強調되면서 이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어쩐지 게운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父母의 無節制한 過熱이 社會敎育機關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學院敎育의 沮害要因으로 作用하지는 않으며, 學校敎育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또 學校敎育은 어떤 問

題點이 없습니까? 試驗點數만 百點이면 어떤 過誤도 容恕되는 教育은 아닌지, 과연 그런 教育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過剩保護되어 浩然之氣는 言及하기조차 부끄럽고, 懦弱하기 이를 데 없는 人間을 기르는 教育이 되거나 않으며, 利己의이고 獨善의인 性格形成은 되고 있거나 않습니까? 教育은 그런 人間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霸氣가 있고 進就의이며 不義에 勇敢하고 正義에 앞장서며 正道가 아니면 가지않는 사람, 父母를 父母로 알며 이웃과 民族과 나아가 世界人類와 더불어 人情을 나누고 秩序를 잘 지키며 파스한 感情으로 살아 가면서 文化發展에 寄與하는 사람 즉 사람이 사람다와 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教育이라고 봅니다. 幼稚園生이 가장 秩序를 잘 지키고 上級學校로 갈수록 더 못지킨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또 教育을 더 받은 사람이 덜 人間的이라면 分明히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教育은 人間의 참된 삶을 위한 手段이지 결코 目的일 수는 없습니다.

둘째, 教育의 人間化를 통해 産業社會의 逆機能을 最少化합시다.

21世紀를 主導할 主人公이 오늘의 教室에서 孕胎되고 있는 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教育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社會는 尖端科學技術에 의해 高度産業社會化되어 豐饒롭고 便利한 生活를 하고 있으나 그 逆機能 또한 적지 않습니다. 未來學者 엘빈 토플러가 '未來의 衝擊'이라고 까지 말한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엄청난 變化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社會現狀을 가히 아노미現狀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며 道德性이 墮落되고 아름다운 우리 固有의 傳統價值觀이 崩壞되며 社會秩序는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이 뿐입니까? 人間性喪失, 人間疎外の 問題도 큰 問題입니다. 獨逸의 프랑크푸르트學派의 에리히 프롬은 人間疎外の 現狀을 勞動으로부터의 疎外, 生産·消費過程으로부터의 疎外, 共產體로부터의 疎外, 이웃으로부터의 疎外, 自己로부터의 疎外 등을 들고 있는 것도 의미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變化하는 社會에 對應하는 教育은 두 가지 軸이 있는데 그 하나는 科學技術教育 즉 物質을 위한 教育이요 다른 하나는 精神教育 즉 教育의 人間化를 實現하는 것입니다. 이 두 側面은 동전의 앞 뒤와 같기도 하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기도 하여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만 既成世代 특히 教育者가 앞장서야 될 일입니다. 教育의 內面化를 통해 오늘의 社會病理現狀을 克服해 나갑시다.

셋째, 잘 가르치려는 熱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教師로서의 최고의 價値는 뭐니뭐니 해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입

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어떤 理由도 合理化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치려면 여러 가지 要因이 作用하겠지만 먼저 그것이 教師로서 最高의 價値라는 信念을 確實히 가지는 일 즉 教授力 第一의 教育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바탕은 發達的 教育觀에 입각한 成長可能性을 認定하고 이를 積極 啓發 伸長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教材의 目標, Scope, Sequence등을 正確히 理解해야 되며 兒童의 知的, 情意的, 身體的 變因은 물론 環境變因에도 疏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教育施設과 資料 및 裝備의 現代化를 이룩함과 아울러 教育工學을 適用하는 智慧도 要求됩니다. 또 重要한 要因은 潛在的 教育課程이라 할 수 있는 學校組織風土가 健康해야 합니다. 이는 組織의 雰圍氣 또는 心理的 環境으로서 組織成員의 士氣와 人和 그리고 課業의 效率性이 調和를 이루는 組織風土, 學校長은 매사에 融通性이 있으며 教師들이 스스로 理解, 讓步, 協同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滿足感과 成就動機를 갖게 하고 困難과 挫折感을 克服하도록 刺戟해 주는 組織風土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圓滿한 雰圍氣가 될 때 教師의 잘 가르치려는 熱情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넷째, 늘 새로와지려는 努力이 必要합니다.

오늘의 사회를 急變한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知識과 情報의 洪水속에서 未來社會의 主人公들을 가르치는 일은 다른 어떤 職業에서 보다 社會變化에 敏感해야 됨은 물론 스스로 새로와지려는 努力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校監으로 처음 發命을 받았을때 德望높으신 K校長선생님께서 주신 激勵의 書信에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句節이 있어 좀 더 알아 보았더니 대충 다음과 같았습니다.

中國의 名君으로 堯, 舜, 禹, 湯을 드는데 湯王은 暴君 桀王을 내쫓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 殷나라의 初代 王이 되었습니다. 湯王은 세수대야에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이라는 글귀를 彫刻하고 自誠의 글로 삼았다고 합니다. 禮記와 大學에 나오는 귀절로 湯王은 이 글귀를 보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激勵의 策積을 가하고 不斷한 修養을 한 결과 中國의 聖君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와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새로와야 합니다. 昨年보다 今年이 今年보다 來年이 더 새로와야 합니다. 새로운 것은 前進이요, 向上이요, 發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뒷걸음질하는 後退人이 되지 말 것이며 제자리 걸음에 滿足하는 現狀維持人도 되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前進人, 向上과 發展

이 있는 未來指向人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우려면 날마다 배우고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집니다. 우리는 旺盛한 熱情으로 새로운 知識과 情報을 배우고 敎壇에서 實踐하는 姿勢 즉 '學而不厭 敎人不倦'의 姿勢를 堅持할 때 急變하는 社會를 主導할 수 있는 教育도 可能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합시다.

어떤 社會組織에서나 마찬가지로입니다만 組織構成員 各者는 제자리에 맞는 할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자기에게 附與된 할 일을 正確히 알고 誠實히 遂行하면서 또 人間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學校組織社會에서는 모든 構成員이 제자리에서 제 할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 되돌아 봅시다. 學校長은 校務를 統轄하고 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敎育하는데 最善을 다 하십니까? 校監은 學生을 敎育하고 校務를 掌理하면서 上奉下率하고 調整 統合하는 任務에 充實하십니까? 또 敎師는 자기반 아이들, 자기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敎師의 大道를 가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우리 敎育家族들은 스승의 正道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날의 社會霧圍氣와 맞물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學校長은 經營의 責任者로서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십니까? 高邁한 人品과 德性과 學識을 갖추고 學生敎育에 임하십니까? 敎壇支援의 意慾이 자칫 過慾이 되어 校監이나 敎師의 할 일까지 챙겨서 勤務意慾을 떨어뜨리는 愚는 범하지 않으십니까? 誤解의 여지가 있거나 부담스러워지는 支援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校監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過慾하거나 卑劣하거나 獨善의이거나 自暴自棄하여 行政의 傍觀者가 되고 있거나 않으며 不足한 業務能力을 向上시키는데 게으르지 않으니까? 또 敎師는 어떻습니까? 教材를 研究하여 次元높은 授業을 創造하는데서 바른 人間敎育에서 보람을 찾지 않고 제자나 부형의 指彈의 대상이 되거나 않는지요. 自由放任의 行政家가 가장 民主的인 行政家인양, 責任 法規 秩序가 소홀히 되는 自律이 民主化인양 誤認하지는 않는지요. 또 어린이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그들을 理解하고 그들다운 자리에 두고 敎授力과 敎育愛를 發揮하고 있습니까? 自己자리에서 제 할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強調하는 것이며 어렵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敎育本質 具現을 위해 당연하

다는 것을 銘心합시다.

여섯째, 진정한 만남으로 다져진 教職社會가 되도록 합시다.

어떤 大衆歌謠의 노랫말에 오늘날의 世上 人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 보다는 헤어질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평소의 만남에서 假飾아닌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함께 勤務할 때는 무척 가깝게 지내던 同僚도 헤어지는 마당에서 버리면 그것처럼 서운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社會도 많이 변했고 또 만남의 關係는 兩方關係이므로 어느 한쪽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평소 참다운 友情과 사랑과 믿음이 不足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擔任을 할 때는 매우 尊敬하던 學父母도 弟子도 헤어지고 나면 人事조차 인식해 진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더 잘살게 되고 더 배웠는데도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過去 그 어렵던 時節에도 同僚가 轉勤을 가면 밤이 이슬해 지도록 헤어짐의 아쉬움을 나누고 再會의 約束을 하였습니다. 왜 個人的인 어려움이야 없었고 다소의 浪費가 없었겠습니까마는 純粹한 心性과 人間美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世上이 索莫해 지고 막스웨버의 말처럼 人間行爲가 利害關係에 달렸다 하더라도 우리 教職社會는 Eros의 사랑, Agape의 사랑, Philia의 사랑이 調和를 이룬 教育愛가 바탕이 되어 지금의 만남을 永遠히 記憶하고 싶은 만남으로 昇華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합시다. 鬼과 鬼이 交換되는 진정한 만남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될때 올바른 人間教育도 教育의 能率化도 期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다시 생각해 볼 價値가 있다고 생각되는 現場의 問題點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정말 教育者는 할일도 많고 精誠과 眞實과 勇氣를 必要로 하는 職業인것 같습니다. 또 이 길은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길이면서 보람과 價値가 큰 길이기도 합니다. 이 世上에 와서 教育者의 길을 選擇한 이상 하늘을 바라보아서 사랑하는 제자를 보아서 부끄럼이 없도록 오늘의 모든 일에 最善을 다 합시다. 次元높은 教育創出을 위해 教育現場의 問題點 改善에 積極的이어야 하겠으며 또 거기서 보람을 찾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何以來乎에 대한 解答도 되지 않을까요!

何以來乎……

우리 教育의 虛像과 實像

咸 相 泰

聞慶郡 山北國民學校 校監

I. 머리예

지난 해 지방의회선거를 치루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위 전과 몇범이니 어떤 사회비리를 저질렀다느니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입후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음이 놀랍고, 더구나 그들 중 몇명은 주민들에 의해 선택되어 졌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이가 지적했듯이 오늘의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병은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破廉恥’임을 실감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특히 중등의 경우는 입시중심으로 인해 人性教育面에서는 거의 소홀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버릇없는 청소년들을 量産해 왔는데, 이제 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실정이고 보니 극도의 厚顏無恥의 樣態를 스스로 없이 드러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教育制度상의 책임으로만 돌려야 할지. 교육현장의 우리들 책임은 없다고 해야 할지. 냉철히 自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가 教育을 구실로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教育해 오지 않았는지 虛와 實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II.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教育이란 명분아래 非教育的으로 이끌고 있는것이 있음을 얼마

나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教育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여기서는 학습지도면과 생활지도면으로 나뉘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학습지도면

학습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마다의 타고난 才質을 계발하여 제 빛깔을 잃지 않고 슬기롭게 살아 가는 기초를 익히게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실은 어떤가?

가. 創意性을 죽이는 교육현실

몇 년 전 6학년 담임 때의 일이다. “1+1=1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경우일까?”라는 퀴즈문제를 교실 뒤에 일주일간 게시해 두고 조사해 본적이 있었다. 결과는 성적 하위권 아동 한사람만 ‘장난감 칼집에 칼을 꽂아도 칼은 한 자루’라는 답을 했을 뿐 다른 아동들은 아무런 답을 못했었다. 아동들이 이처럼 고정관념에 젖어 있다. 이런 원인은 교사들이 학습지도시에 대체로 확산적인(divergent)답보다 수렴적(convergent)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어떤 아동이 교사의 기대를 벗어나는 기발한 질문이나 응답을 하는 경우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시간없어!”라고 몰아 붙인다면 아동의 創意性은 기대할 수 없다.

아인슈타인의 傳記에 보면, 국민학교 담임은 통지표에 ‘이 아이는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써 보냈지만 그의 부모는 상처만 받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깊은 애정을 갖고 그의 가능성을 격려해 준 결과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탄생되었음을 증시해야겠다.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는 호기심에 찬 아동들이 교사의 취향대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창의성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91세계과학, 수학경시대회에서 초등은 세계적이었으나 중등은 중하위권이란 사실은 우리교육의 현실을 말해 준다.

나. 과정보다 결과 중심의 사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치고 교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이런 현실에 대한 학교의 책임은 없을까? 아마도 그것은 교사들이 채점의 편의를 위해 수렴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출제방식에 그 원인을 돌려야 할 것 같다. 학생들의 발달상황에 대한 過程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한 번의 지필검사로 성적을 산출하자니 학생들로 하여금

일대 모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소신있는 교사는 아동들에게 결과보다 그 과정을 바르게 거치도록 강조하고 그 변화를 주의깊게 평가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正道를 벗어나는 사례를 발견 즉시 그것이 어째서 가치롭지 못한지에 대해 토의해 보고 무엇이나 쉽게 얻으려 하지않고, 힘들게 얻은 것이 값진 것임을 체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식편중의 교육관

언젠가 미국교포 어머니가 쓴 글이 생각난다. 국민학교 고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이민간 애기다. 서울에서 과외학원을 몇개나 다녔고 늘 학급에서 성적이 상위권인 아들이 미국학교에 입학 후 며칠이 지나자 담임이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학교에 가자 담임은 생활기록부를 내보이며 성적은 모두 A급이나 보이스카웃 활동 경력 한번 없고 자전거 타기나 수영 등 취미활동도 없이 어쩔려고 반쪽 人間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이었다. 미국 아동들이 학교에서 밝고 생기발랄하게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하고 있음을 보고 부끄럼을 느꼈다는 것이다.

적어도 全人的 人間이라면 건전한 심신을 가지고 매사 긍정적으로 처리해 가는 사람이라고도 하겠다.

천차만별의 잠재력을 가진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다움을 키워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으로 이끄는 것이 교육본질이라면 시험성적이 낮다고 풀이 죽어 어께를 처지게 해서 지내는 아동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겠다. 교육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즉효약은 아닐 것이다. 학교에서 '정신박약아' 딱지를 붙여 쫓겨난 에디슨이 세계적 발명왕이 된 사실만 보아도 교육의 효과는 참으로 오랜기간 후에까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

라. 주입식 교육

어느 고학년 교실에서 아동들이 모든 것. 낱말의 뜻까지 교사에게 물어서 해결하려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아동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이 교사의 주입식 교수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일방통행식의 강의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사의 경우 예나 아동들에게 과잉친절을 베풀어, 마치 제비새끼들의 입에 먹이를 통째 넣어 주듯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학습방법을 익힐 수가 없다.

유태 격언의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으나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말에서 우리는 다시금 학습방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학습방법’이란, 기존의 지식보다도 그것을 얻는 방법, 예컨대 참고도서 활용법 등의 지식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겠다. 기하급수적인 지식, 정보의 산출시대에 우리가 평생동안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명한 삶의 지혜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다.

마. 價値教育의 소홀

가치혼돈시대에 산다는 우리가 과연 가치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가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도덕적인 사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때의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다양한 가치문제에 대해 판단능력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시험점수 때문에 친구를 시기하여 공책까지 서로 보여 주지 않으려는 점수광 아동들에게 ‘다함께 사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이끌 교육의 과제는 무겁기만 하다. ‘따뜻한 가슴’은 없고 ‘차가운 머리’만 발달시키는 앵무새같은 아동들은 참으로 삭막한 풍경과 같다.

가치교육의 실체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정직’이란 가치교육에 있어, 먼저 ‘정직’과 관련된 사례를 공동으로 살피고 나서, 정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니까. 항상 정직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예가 많은데, 이와 같은 설교조의 教化는 가치갈등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 그냥 무너져 버리기 쉬운 약점이 있다. 그러나 도덕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에서는 ‘정직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어째서 정직해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정직해야만 하는가?’ 등으로 가치의 갈등상황을 제시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게 한다면 ‘정직’에 대한 자기대로의 정의와 그 당위성을 깨닫게 하고 또한 갈등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熟考해 보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 性偏見의 사회화

필자의 교직경험에서 가장 후회스런 일이 남녀의 性偏見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점이라 생각된다.

이제 우리는 性役割의 偏見에 대해 정말 思考의 轉換을 가져와야 할 때

인 것 같다. 전통적인 고정관에서 벗어나 인간 그 자체로서의 능력에 따라 性差없이 대해야 함이 바람직한 性役割觀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성 회복에 앞장서야 할 학교에서 도리어 비인간적인 성역할의 사회화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다.

교과서를 분석해 보면, 등장인물중 대부분이 남성이고 여성은 보조적 역할로 묘사되고 있으며, 4,5,6학년 국어교과서 1,2학기 중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 14명 중 여성은 단지 2명뿐인데, 거기서도 특히 신사임당은 전통적 여성상으로 강조된다. 이런 결과는 여학생들에게 남성만이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진취적인 여성으로서의 同一(Identification)모델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 역시 대부분이 “여자답지 못하게스리……”, “남자가 그간일로……” 등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편향된 성역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므로 고학년이 될수록 여학생들은 능력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의식을 갖게되어, 남녀혼성학급일수록 여학생들이 더 의존적이며 전통적 여성이 되어진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오늘날처럼 복잡한 생활, 특히 맞벌이 시대에서 남녀의 역할에 대한 偏見을 버리지 못하는 참으로 비합리적이 아닐 수 없다.

2. 생활 지도면

국가, 사회가 소망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기 위해 그의 기본적인 생활태도를 익히게 함은 학교교육의 중요 목표의 하나이지만 우리가 교육활동 중 看過하고 있는 일도 많은 것 같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가. 교사의 偏愛

흔히 초임 여교사들이 예쁘고 깔끔한 용모의 여학생들을 양손에 잡고 정다운 얘기를 나누며 교내를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교사가 공부 잘 하는 아동, 예쁜 아동, 똑똑하고 인기있는 아동들을 편애하게 될 때, 그 반대쪽의 잊혀지듯 지내게 되는 아동들의 가슴에는 원망과 恨스러움만 심어주게 될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 학급에서 소외되는 아동들은 가정에서도 따뜻한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급에서 친구들에게서 외면 당하고 있는데다가 담임에게서마저 외면 당한다면 그 아동들은

이 세상은 모두가 차갑기만한 곳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인간적인 파사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굳어져가는 그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어 세상은 아름다운 人情이 있는 곳임을 익히게 해야 한다.

그들에게도 학습시간에 발표나 자기표현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학급역할도 성실히 해 나갈 수 있게 격려해 주며, 머리도 쓰다듬어 주어 자아발견의 싹을 키워주는 것이 교사의 良心이라 여겨진다.

나. 일관성 없는 통제

교통사고나 쓰레기 많이 버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학교교육에서는 어느정도나 철저하게 시민생활교육이 이뤄지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복도에서 교사가 보이지 않으면 달리기 일쑤이고, 과자껍질을 교실바닥이나 운동장에 슬쩍 버리고 시침때는 아동들이 너무 많다. 공원에서 잔디밭에 모자가 바람에 날려갔는데도 손이 닿지 않아 울고만 섰는 외국의 아동 애기는 수십년 전부터 들어 온 터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역시 선진국으로서 앞서가고 있다고 해야 하겠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관대한 것 같다. “뭘, 그까짓 일로……” 식인지도 모른다.

학급에서 실내생활이나, 과제 확인 또는 약속지키기 등에서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특히 학급대표 등에게는 치외법권이라도 있듯이 대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함을 체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아동들은 눈치나 살피며 약삭빠른 짓을 하는 기회주의자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다. 청소시간의 문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청소시간에 성실하게 맡은 일을 하는 아동은 학급에서 별로 이름없이 묻혀지내는 아동들임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아동들은 청소용구를 든채 교사에게 와서 이야기만 걸며 관심을 끌려고 하는 능청스런 경우도 있다.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날씨가 싸늘할 때, 물걸레 빨아 오는 일 등의 싫은 일을 교사와 아동들에게 인정받는 아동들이, 소의 당하는 아동들에게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청소역할분담을 세세히 하는 것이 좋으며 그래야만 자기 몫은 자신이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는 별로 하게 함은 좋지 못한 것 같다. 마땅히 생활교육의 하

나로 전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하겠다.

라. 상의 가치문제

상찬의 원리에 따르면, 상이 바람직한 행동의 強化因으로 작용하려면 본인이 반드시 상을 받을만한 행위를 自覺했을 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동들의 상을 받을 만한 명분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상들도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착한어린이에게 주는 상들이 아동들의 착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급 임원들 중심으로 또는 교과성적 위주로 주어지게 되므로 상의 효과는 적어진다.

그 대안으로 학급아동 전원에게 월1회 무기명으로 '이 달의 착한친구'를 그 이유와 함께 적어 내도록 하여 시상자료로 활용하니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시도해 보니 교과성적은 낮지만 묵묵히 친구를 도와주거나 학급의 굵은 일에 앞장서서 일해왔던 아동들이 착한어린이로 선정되어졌다.

교육자는 '모든 아동이 다 제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과 '앞서는 아동보다 처지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Ⅲ. 맺으며

우리는 오늘도 아동 교육의 명분으로 학교에서, 인생의 가장 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너무 微視的 입장에서만 본 나머지 숲 속의 나무만 보다보니 숲을 보지 못하는 愚를 범하고 있거나 않나 해서 우리교육에서 逆機能的 측면을 살펴보려고 했다.

교육은 단지 열성만으로는 족하지 않다고 본다. 陳腐한 애길지 모르나 어떤 교육활동을 무엇때문에 하게 되는지를 생각하는게 중요한 것이다. 다음에 그 실천방법이 목적에 합당한지 feed-back해 가며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일에 소홀하면서 교실에서 진종일 아무리 열 올리며 무언가 이뤄지길 독려한다해도 교육본질면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만 할 것이다.

우리는 학교도 교사도 오직 아동을 위해 存在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

理想的인 教育에 접근하는

「열린 교육」과 教育課程運營

馬 公 信

慶北教育研究院 研究士

1. 序言

최근들어 메스컴에 자주 소개되고 있는 「열린교육」(open education)은 그 특이함으로 인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뜻있는 일선교육자들이 주도하여 실행하고 있는 이 열린 교육은 이제 全國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教育現實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現場의 問題를 解決하고자 ‘대안’으로 받아들인 것이 「열린교육」이다. 직접 學生들을 教育하면서 접한 問題들을 解決하려는 절실한 요구로부터 출발한 열린교육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 터하고 있어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대부분의 教育革新이 專門家가 주도했던 것임에 비취 볼때 그 成功 가능성이에 對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Ⅱ. 「열린교육」의 基底

열린교육은 1920~1930년대 미국의 進歩主義 教育, 1960년대 미국의 自由學校運動(프리스쿨), 영국의 비형식 學校運動(씨머힐)등에 기인한 것으로 열린교육은 ‘아동에 관한, 學習에 관한, 그리고 知識에 관한, 사교의 한 방식’(Howes)이라는 열린 教育의 한 정의는 열린 教育의 실체가 개념적으로 쉽게 포착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열린교육은 授業方法의 側面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열린교육은 教育의 對象인 아동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學習행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여기에 더해 教育의 내용인 知識에 대해서도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열린교육은 개별화교육을 중시한다. 學習者들마다 學習내용을 習得하는 速度나 方法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教育課程 재구성자로서 教師는 획일적인 教育課程을 타파하고 자신이 學生들의 水準과 興味를 고려하여 재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열린교육은 평생 教育과도 관련이 깊다. 學習의 장은 교실로 한정될 수 없고 學校 밖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열린 教育은 통합 教育課程을 지지한다. 열린교육에서는 知識, 技術, 感想, 理解를 통합된 學習 過程으로 探究시킨다.

셋째, 責任을 질 줄 알게하며 놀이도 教育의 중요한 活動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아동 자신에게 많은 自由를 허용하지만, '무엇이든지 무조건 수락하는' 것은 아니다. 열린교육은 인간에 대한 理解를 우선으로 強調하고 있다.

Ⅲ. 「열린교육」의 志向點

열린교육이 의도하고 있는 志向點은 매우 다양하다.

學習者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자율적인 學習力을 가진 학습자를 기르려는 의도가 있는가 하면, 創意性을 길러준다는 의도도 있다. 教育者의 관점에서 보면 教育課程을 재구성하고, 수업시정을 자체적으로 決定/運營하는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 學校 行政家의 立場에서 보면 교실의 벽을 없앤다든지 학부모를 教育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Ⅳ. 「열린교육」과 관련된 問題들

1. 「닫힌교육」과 「열린교육」

教育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문제와 관련될 때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교육내용이나 教育課程에 관련되는 것이고 「어떻게」에 해당되는 것이 「教育方法」에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측면은 教室 수준에서 볼 때 교사가 어떤 수업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提示方法을 活用하며 어떠한 授業의 과정을 거치느냐와

같은 문제들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學校教育의 여러 측면에서 學生 개개인의 特性, 信念, 價値, 方法등을 무시하고 劃一性, 경직성, 폐쇄성 위주의 一方的 教育에서는 가르치는 교육내용(주로 교과서의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많다)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내용을 熟達해야 된다고 보는 교육이 곧 「단힌교육」이다.

이러한 「단힌 교육」이 가져오는 現象은

첫째, 教育內容에 권위가 따른다. 學校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내용의 타당성이 認定된다.

둘째, 따라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資料가 교육에서 중요한 役割을 하며 그러한 자료는 대체로 教科書이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대체로 교과서의 내용을 배워나감으로써 이루어진다. 評價도 이에 의존하게 된다.

셋째, 教師와 學生간의 相互作用이 授業의 課程에서 一方的이 되기 쉽다. 교사가 말하거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 자체가 權威있는 일이기 때문에 옳다고 믿도록 학생들은 조건화되기 쉽다. 따라서 學習活動의 대부분은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姿勢가 되기 쉽다.

넷째, 이러한 특성들을 통하여 길러지는 인간형은 정답형 인간이 되기 쉽다. 즉 모든 문제에는 무엇인가 정답이 있고, 그 正答이 아니면 틀린다는 사고 방식을 가진 인간이 길러지기 쉽다.

이러한 「단힌교육」과는 전혀다르게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한 事例로만 보고 아동이 주체가 되어 여러가지 문제들은 스스로 풀어 나가는 기본 과정으로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전개하는 교육을 「열린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열린교육」은,

첫째, 교육내용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 翫得되도록 제시되기 보다 하나의 사례로만 보고 여러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둘째, 교육내용은 問題解決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학습자료는 학습자가 문제해결의 생생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셋째, 따라서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교육은 지양된다. 학습의 중심은 서적으로부터가 아니라 연습하고 문제를 제기해 보고, 假說을 세워 보고 實驗하고, 討論하고 하는 학습 활동에 強調를 두게 된다.

넷째, 생각하는 인간, 즉 사고형(思考型)의 인간이 강조된다. 교육내용은 누구에게나 판에 박은 듯이 답습해야 할 對象이 아니고, 주어진 문제

에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의 해결을 찾도록 돕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데 焦點을 둔다.

2. 「열린교육」과 「創意性 교육」

창의성의 특징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얽매어 있지 않는 융통성 있는 사고 방식이다. 어느 특정한 해결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사고에 있어서 자유가 허용되어야만 촉진될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학생들이 어느 일정한 인간형으로만 방향지어지도록 획일적인 교육 내용을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단힌교육」은 「創意性」발달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열린교육은 곧 창의성 교육의 前提條件이며 같은 맥락의 교육방식으로서 열린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의 主體가 되도록 복돋아 주는 교육이다.

창의성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統制와 指示에 從屬으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교사는 창의적인 학생을 길러내기 힘들 것으로 判斷된다.

교과활동에서 학생들이 갖게 될 구체적인 경험은 創造的 藝術活動, 實演活動, 創案活動, 計劃수립활동 등 활동의 범주에 따라 학생들이 생각해야 할 방식으로서 강조되는 主要活動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창의적 활동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의 사례

영역	활	동
창작예술활동	건물짓기	그림그리기
	사진찍기	안무하기
	자기 만들기	작곡하기
	조각하기	작도하기
	직물짜기	표현하기
	글짓기	
실연(實演)활동	대역하기	악기 연주하기
	무용하기	낭독하기

실연(實演)활동	연출하기 무언극하기	노래부르기 말하기
창안활동	개념 구안하기 연구하기 창안하기 이론 수립하기 숙고하기	가설세우기 모형만들기 발견하기 실험하기
계획수립활동	청사진만들기 도시 계획하기 개념 정립하기 설계하기 입안하기	조정하기 편집하기 도식화하기 투영시키기 영상화하기

IV. 「열린교육」을 위한 教育課程運營計劃

1. 目標: 自己學習力의 育成

교사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제수업, 교사의 명령에 따르게 하는 생활지도,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육성된 어린이는 점차 자율성을 잃게 되기 쉽다. 그리하여 교사의 통제없이 자기태도를 바꾸지 못하고 학교와 학급의 規則도 교사가 감시하지 않으면 잘지키지 못하는 生活習慣이 어린이들의 몸에 배게 되는 것이다.

2. 자기학습력 육성의 기본적인 조건

어린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높은 自我概念을 형성하여 더욱 바람직한 자신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기교육력을 몸에 익혀 주는 基本的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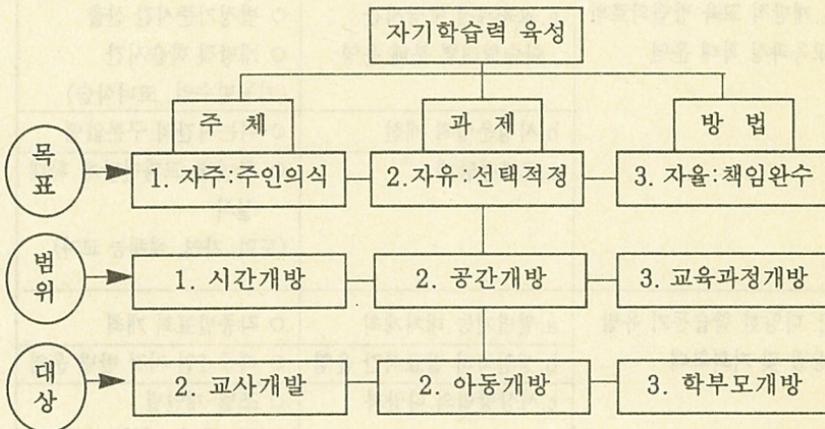
〈기본적인 조건〉

-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자기 반성)
- 자립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길러 주어야 한다. (자기 입각)
-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추구해 나가려는 자세를 길러주어야 한다. (자기 탐구)
- 스스로 하려는 마음을 길러 주어야 한다. (자기 체험)
- 자기향상을 위해 스스로 개척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길러 주어야 한다. (자기 창조)

3. 自己學習을 하는 데 갖추어야 할 行動條件

어린이 개개인의 이해도와 학습하는 방법을 잘 觀察하고 파악하여 모든 어린이들에게 맞는 指導方法을 考案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 개개인에게 맞추는 지도, 이것이 바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다.

4. 열린교육의 組織



5. 運營方針

- 학교가 학생들의 자주적, 주체적인 學習活動의 장이 되도록 한다.

○ 교사는 팀 티칭에 의한 指導 體制의 確立과 그 실천 활동으로 지도력 향상과 專門性 제고 및 現職 敎育의 일상화를 꾀한다.

○ 학교 교육과정은 자주 편성하되 현행 교육과정 내용은 그대로 거의 이용하고 지도 방법의 개선으로 한정한다.

○ 평가 방법은 個人化 진단 資料로 活用함을 目的으로 절대 評價와 自己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講究한다.

○ 학교와 地域社會를 연결시켜 地域社會의 인적 자원과 지역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다.

6. 敎育課程運營

1) 운영내용

「열린교육」과정 내용 조직은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계획 실천하되 다음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 ①유연한 교육과정 ②탄력적인 학습집단 조직 ③개방식 공간
④열린 인간관계 ⑤열려있는 마음

교육과정운영 계획의 작성(예시)

운 영 목 표	운 영 과 제	운 영 내 용
1. 개방적 교육 방법의로의 교육과정 확대 운영	a. 교육과정 주당시간 학습형태별 분배 운영	○ 법정기준시간 산출 ○ 개방적 학습시간 (기능별수업, 코너학습)
	b. 시정운영의 개선	○ 쉬는시간의 구분없앰
	c. 교과전담제	○ 학년별 교과전담제 확대 실시 (도덕, 자연, 예체능 교과)
2.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방법 및 기회확대	a. 월별기능 대처개최	○ 각종발표회 개최
	b. 생일축하 발표시간 운영	○ 매주 1일 지정 반별 운영
	c. 시상방법의 다양화	○ 조별-개인별 (학력, 독서, 생활, 일기)

2) 특수한 수업

열린교육을 하는 학교라고 해서 항상 열린교육의 전형적인 수업방법만

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지정된 요일에 코너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지정된 코너에 자리를 잡는다. 각각의 코너에서는 그 코너에 독특한 주제를 공부한다. 일단 그 주제의 공부가 끝나면 다음 코너로 옮긴다. 코너 학습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만 집단이 의미를 갖고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코너를 이동하면서 학습하는 것이다.

주어진 코너의 학습 과제를 다하면 그날의 공부가 끝나는 것이다. 만약 시간 중에 主題를 다 끝내지 못한 學習者는 방과후의 責任 학습시간에 다 끝내고 귀가한다.

코너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주의 集中力, 自律性, 責任感을 배우게 된다.

3) 열린교육을 위한 物理的 支援

열린 교육을 하는 教室은 보통 教室과 다르다. 우선 복도가 따로 없다. 모든 교실이 그렇지는 않지만, 각각의 교실을 구획짓는 벽이 없는 경우도 있다. 여러개의 교실이 하나의 큰 교실로 되어 있다. 이 큰 교실을 주름식 칸막이로 막아 학습을 구분한다. 물론 行事가 있거나 團體 學習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교실을 툰다. 즉 교실을 지을 때부터 意圖적으로 열린 교실로 할 수도 있다. 한학급의 내부 배열은 學習內容에 따라 수시로 變更된다.

VII. 結 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問題狀況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추구하고자하는 교육목표와 실천되고 있는 학교교육 사이에는 현저한 괴리가 있으며,

둘째, 個性教育 및 創意性 교육이 미흡하고,

셋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가 폐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問題解決의 대안으로 「열린교육」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열린교육이 현장에서 一般化되어 成功적인 結實을 맺기 위해서는 當國의 行. 財政的 지원과 일선 교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혜자인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認識도 진정한 의미의 教育관으로 바꾸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열린교육을 받아들이는 一線學校도 이상적인 模型만 추구하지 말고 열린교육의 基本趣旨를 教育課程運營에 반영하여 각자 여건에 맞는 운영의 형태를 適用, 實踐해야 진정한 意味의 教育의 本質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音樂教育의 當面課題

— 創造性 開發을 中心으로 —

榮豐郡 安定南部國民學校 校監 崔 浩 昌

I. 音樂의 教育的 價値

여러 예술 가운데서도 音樂은 인간의 가장 高潮된 感情을 나타낼 수 있는 次元 높은 예술이며, 인간의 일상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幅넓은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음악인들은 때로는 矜持를 느끼기도 하고, 음악을 崇尚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音樂이 음악만으로 存在할 때는 아무런 빛도 나타낼 수 없다. 즉 음악은 연주자의 人格과 思想 및 感性 등에 의하여 바람직하게 再創造 되었을 때 비로서 그 빛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한 教科로서 학교 교육 과정에 編成되어 人格形成에 기여하고 인간의 참된 생활에 도움을 주었을 때 비로서 그 價値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 사조는 科學文明的 急進的인 발달과 경제력의 진전에 수반하여 인간의 能力開發, 그 중에서도 특히 創造性的인 개발 문제가 社會的인 요구로서 교육계에 깊숙히 반영되고 있다.

創造는 음악 예술의 本質이며, 그것이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음악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創造的인 인간의 육성이라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시되거나 力不足으로 인해 外廓視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음악교육은 이 문제를 中心課題로 하는, 本質的인 교육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유능한 人格形成에 기여하고 음악의 예술적 가치 및 교육적 價値를 保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II. 創造性的 開發

1. 音樂科의 特質

교육이란 학생들의 認識活動을 통하여 全體의인 발달을 꾀하고자 하는 行爲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認識方法에는 대상을 과학적으로 追求하는 客觀的, 論理的, 分析的인 方法과 主觀的, 直觀的, 全體의으로 파악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는데,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 교육의 역할은 후자의 能力開發에 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前者를 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것만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를 수 있겠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꽃을 보며 “아! 아름답다”라든지 처음 대하는 사람을 보고 “믿음직하다” “실망했다” 등 直感的으로 느끼는 일,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들으며 어느 사이엔지 感動 興奮하는 일 등은 직관적 또는 想像的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論理的, 分析的으로 파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相對性 原理를 발견했을 때 “나는 言語로 思考하는 예는 드물다. 思想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을 言語로 표현하고자 試圖한다.”라고 말하였듯이 이미지에 의한 思考는 예술가나 과학자 또는 기술자등 모든 창조자의 思考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필연적인 現象이다.

모든 학생을 發明家나 藝術家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또 만들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認識 方法 중에서 直觀과 想像에 의하여 主觀的이며 感覺的으로 認識하는 能力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 음악 교육의 一次的인 임무라는 點만은 틀림없다.

음악교과는 그 정도의 高下를 막론하고 예술을 내용으로 하는 精神的인 教科이다. 그러므로 眞理를 追求하며 普遍妥當性을 강조하는 지적교과나 기술 연마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교과와는 크게 다르다. 즉 경쾌한 리듬의 움직임은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흐르는 가락의 아름다움을 吟味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아 학생들의 感性과 創造性을 개발하는 精神的인 教科임을 이해하고, 음악 교육을 통하여 현대 교육이 追求하는 창조적인 人間育成에 기여함은 물론 정서(정조)에 넘쳐 흐르는 국민을 기르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2. 創造的 表現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는 음악교육은 그들이 음악에 同化하고 眞心으로 즐기며 感性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음악은 自己表現과 커뮤니케이션의 次元 높은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思辨的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直觀的, 想像的, 全體的, 感覺的 방법에 의하여서만 所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베에토편의 교향곡은 그것을 實際 音を 통하여 全體적으로, 直觀적으로 파악할 때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아무리 잘 정리된 말이나 글로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음악의 意味를 전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같이 言語나 記號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世界를 나타내는 것이 藝術이며 音樂이다.

인간은 자신의 思想과 感情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타내고자 한다.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때는 자기 본연의 모습인 個性이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는 다시 創造性으로 발전하게 된다.

자기 표현으로서의 음악, 자기 표현의 능력을 기르는 수단으로서의 음악과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음악 등을 教育 現場의 中心 課題로 삼아 創造性 開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술에만 급급하는 교육, 재능 있는 몇몇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음악을 지식 교과인 것으로 착각하고 樂典教育에서 방황하는 교육 등은 하루속히 불식하여야 한다.

Ⅲ. 創造的 學習活動

1. 基本態度

창조성을 개발하기 위한 음악교육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教材選擇, 學習의 進行過程, 교사와 학생의 人間關係,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활용하는 과정 등 교사의 태도와 機知가 요구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음악을 공부하는 일이 마음으로부터 기쁘고 여기에 정신을 집중하는 일이 創造性 開發의 밑바탕이 된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폭넓은 想像과 感動으로써 既存의 型이나 論理대로만 움직이지 않으려는, 즉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意慾이 싹터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음악학습의 全過程을 통하여 항상 想像力을 자극하고 활동하게 하는 환경과 機會를 조성해 나아가야 하며, 主觀的인 해석이나 行동을 되풀이하는 틀에 박혀서는 안된다.

창조는 단순한 灵感이나 偶然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 방법을 모색하며, 과거에 익힌 知識이나 技術을 동원하여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狀況을 유도하는 창조적인 問題解決의 과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조성의 개발을 意圖하는 教育現場이라면 問題解決을 중시하고, 그것이 창조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思考와 想像를 刺戟, 誘導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써 해결 방법을 發見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2. 模倣 活動

창조적인 학습활동 속에는 模倣이라는 것이 중요한 要素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典型的인 樂曲을 어떻게 教師의 範唱을 잘 模倣하여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머지않은 장래에 個性的인 표현으로 발전하고 創造的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模倣은 창조의 기본이다.”라든지 “創造는 變形된 모방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모방에는 受動的, 本能的, 無意識的인 모방과 能動的, 反省的, 意識的인 모방이 있다. 그런데 그 후자가 문제해결적인 행동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창조의 한 단계로서 또는 창조의 한 要素로서 존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방과 창조는 전연 다른 것이 아니다. 對象을 판에 박은 듯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變形하여 취함으로써 創造的인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教育적으로 價値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模倣활동은 發明이나 發見을 隨伴할 수도 있으므로 어떤 모델을 주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自發性을 끌어 낼 수 있을만한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教育學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歌唱學習의 具體的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5학년의 우리의 소원(내림 “마”장조)를 學習한다고 하자. 이 때 학생들은 1, 2, 3, 4학년 때 익힌 리듬감이나 音程感 등을 바탕으로 하여 自主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노래는 調性으로 보아 듣고 부르기(또는 리듬 보고 부르기)로 학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의 範唱이나 範奏에 따라 典型的인 악곡 그대로를 模倣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過程, 즉 모방하는 과정을 창조적으로 이끄는 學習指導의 方法이라 할 수 있겠다. 아무리 모방을 중심으로 하는 초보적인 학습활동이라 할지라도 그속에서 創造性을 刺戟, 開發할 수 있는 契機를 충분히 마련해 주어야 하며 이는 교사의 지도방법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能力, 誠意 그리고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는 機知 등에 따라 다양한 지도방법이 摸索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헌의 見解를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듣고 부르기로 가락을 익히는 동안 能動的, 反省的, 意識的인 모방 활동을 어떤 면에서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輕快한 리듬의 표현에 대하여 템포나 強弱에 대하여 發聲이나 形式에 관하여 스스로 느끼고 發見하고, 서로 意見을 교환하며 問題를 해결하는 동시에 個性에 따라 創造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우리의 소원’ 노래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불러 보게 함으로써 樂曲의 性格과 템포의 관계를 스스로 느끼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는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템포를 발견하게 하는 學習活動을 전개한다면 이는 결코 맹목적인 模倣이 아니며, 이러한 活動은 리듬, 強弱, 形式, 發聲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創造的인 學習活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듣고부르기에 의해서 ‘우리의 소원’ 노래를 어느 정도 익혔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重要的 時間이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노래도 個性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創造性 開發을 위한 음악의 學習指導이다.

리듬과 가락과 歌詞가 모두 내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여린내기의 특징과 6/8박자의 리듬과 흐르는 가락을 타고 歌詞의 뜻을 새기며 마음껏 부르는 그 過程이 가장 重要的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3. 卽興的 表現

즉흥성은 창조성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즉흥성의 開發은 음악교육의 본質인 임무이다. 따라서 卽興性 開發을 中心課題로 하는 음악교육은 마음으로부터 즐기고 感動하는 學習活動이라야 하며 이러한 活動속에서 음악적 感性과 적절한 技能을 길러 發展指向的인 音樂性을 開發할 수 있어야 한다.

즉흥적 표현 활동 속에서 演奏活動과 作曲活動이 있으며 일반 음악교육에 있어서의 活動은 그 導入的인 것, 즉 아주 기초적인 활동이라야 하며 作曲活動보다는 演奏活動에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즉흥적 표현 활동에서 演奏活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自信의 음악적 감각을 스스로 活用하게 되고

둘째, 부담없이 音樂的 感覺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셋째, 作曲에 필요한 基本能力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卽興性 開發을 위한 음악 학습의 機會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歌唱教材를 학습하는 過程에서 樂曲의 흐름에 알맞는 리듬 합주곡을 構成하여 보도록 하고 각자 가진 樂器의 性能에 따라 리듬을 쳐보게 한다. 이 때 학생들은 취미와 能力에 따라 악기를 택할 것이며 個性에 따라 창조적으로 리듬을 만들어 칠 것이다.

물론 卽成 合奏曲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화려하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演奏해 보면서 보다 나은 合奏曲이 될 수 있도록 努力하는 過程, 이것이 創造하는 바람직한 音樂學習의 모습이다.

(2)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노래를 학습하는 過程에서 가락악기를 포함한 器樂合奏를 試圖해 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가장 單純한 方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락악기는 항상 멜로디를 演奏하되 樂曲의 性格에 따라 첫째, 둘째 프레이즈는 실로폰과 멜로디언으로, 셋째 프레이즈는 리코더로, 넷째 프레이즈는 전체 가락 악기로 演奏하는 등 프레이즈 또는 動機의 性格에 따라 樂器를 바꾸거나 함께 演奏하는 등의 方法이 있을 것이다.

둘째, 이미 記憶하고 있는 단순한 가락에 卽興的으로 알토를 붙이거나 分散和音으로 變化를 꾀하는 方法도 시도해 볼 수 있다. 다만 3度나 6度, 同度 등으로 알토를 붙이거나 分散和音으로 變化를 꾀하는 등의 技術

은 가창학습에서 이미 어느 정도는 길러져 있어야 한다.

셋째, 리듬 問答, 노래 問答 등의 학습활동을 자주 전개함으로써 즉흥적인 표현에 自信과 興味를 느끼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學習은 讀譜力이나 聽記力이 마련되기 전부터도 활발하게 展開하여야 할 活動이기는 하지만 점차 樂譜化할 수 있는 方向으로 發展시켜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4. 創造的 表現

創造的 表現은 비단 作曲에만 국한된 학습활동은 아니다. 음악학습의 모든 分野, 즉 가창, 기악, 감상 등에도 해당하는 廣範圍한 학습영역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表現 學習活動에 관한 내용은 기 문헌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作曲 및 編曲에 관하여만 간단히 言及한다.

(1) 가락짓기

가락짓기의 內容과 方法은 이미 많은 書籍에 소개된 바 있어,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부연해 두고자 하는 것은 讀譜力이나 聽記力이 마련되기 전부터도 실시하여야 하는 學習活動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2) 編曲

즉흥적 표현에서 이미 言及된 바 있는 合奏曲 만들기 및 노래 問答 등과 관련하여 단순한 리듬 合奏曲, 器樂 合奏曲, 合唱曲, 피아노 伴奏曲 등을 編曲하여 보게 하는 학습 활동은 創造性 開發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학습활동임을 認識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點은 和聲學習에 관한 일이다. 즉 和聲에 관한 學習은 화음 합창, 마침표 합창, 화음 청음 등 실제 音을 통한 학습활동으로써 感覺的으로 體得케 하고 理論은 이러한 활동속에서 자연히, 그리고 서서히 익혀 나아가도록 하여야 하며, 編曲에 활용하는 和聲은 感覺的으로 익힌 和聲의 범위안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音樂教育이 의도하는 創造性이란 音樂的인 의미에서의 創造的 能力, 즉 音樂的인 感覺을 바탕으로 하는 音樂의 基本能力에 의하여 開發될 수 있다는 點을 強調하며 끝을 맺는다.

適性別 科學 日記 쓰기가 發展 的 思考 促進에 미치는 影響

金陵郡 甘文國民學校 校監 南 一 國

I. 연구의 개요

A. 研究의 目的

多様な 素材, 多様な 형태로 자기 個性에 맞는 科學 日記를 쓰도록 해서

1. 個人의 科學의 資質을 發見하고
2. 自律的인 관찰, 실험, 조사, 기록 등의 探究活動을 조장하며
3. 兒童들의 發展的 思考 促進에 미치는 影響을 밝히는데 目的이 있다.

※發展的 思考의 概念 → 本 研究에서 發展的 思考란 이미 學習된 事實이나 原理, 法則을 類似한 自然현상이나 사물에 適用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규칙을 찾아 深化, 확산시키려는 생각을 말한다.

B. 研究의 대상

研究班 - 慶北 金陵郡 甘文面 甘文國民學校 五~六學年 全兒童

II. 실천 內容 및 方法

A. 實行 目標 1의 實行

科學 日記帳 記錄 素材와 記錄方法을 協議 定着한다.

1. 科學 日記帳 記錄 協議會 개최

- a. 기록 내용에 對한 兒童 의견 수렴하기
- b. 적극적 참여 동기 유발
- c. 아동이 소유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을 위해 小集團 協議를 거쳐 기록 素材, 횡수, 양식 등을 결정했다.

2. 과학 일기장 양식 및 제작

- a. 규격 : 16절 모조지
- b. 분량 : 각자의 能力에 따라 自律的으로 定함
- c. 기록 內容
 - 1) 自然(현상) 관찰
 - 2) 科學 관련 T.V, V.T.R, 시청 소감
 - 3) 發展의 思考 事例
 - 4) 科學 도서 탐독 소감

d. 製作

기본이 되는 양식 5種을 모델로 제작해 배부해 주고, 기록 내용의 特性에 따라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했으며, 기록 내용에 따라 변형하거나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創意的인 記錄 活動이 되게 했다.

- 양식 1) — 단일 관찰, 분할 관찰용
2) — 變化 관찰용(모눈칸 부착)
3) — 發展의 思考 事例 기록
4) — 실험 보고서용
5) — 영상 매체 시청 소감 기록용

3. 記錄 素材 提供을 위한 여건 조성

a. 映像 媒體를 통한 人爲的 관찰

1) 목적-호기심 유발과 결정적 장면의 포착, 興味の 持續, 이해력 증진을 위해서 自然 狀態에서 관찰이 극히 어려운 것을 관찰시켰다.

2) 指導 단계

지도단계	지도 방법	특 장
1단계	시청권장프로안내, 시청시간, 시청 명령 주지	유인물 배부, 논의학습 전개로 결정
2단계	학교에서 슬라이드, V.T.R 공동 시청	주요 장면 포착, 예상(가설)수립 훈련
3단계	가정에서 T.V, V.T.R 등 自律 시청	흥미지속 지도, 소감록 쓰기

3) 投入 매체 - T.V, V.T.R, 슬라이드, T.P 자료 등 活用

4) 共同 시청 과정(제2단계)

① 시청 내용 안내, 흥미 유발

② 시청 목표 인식 확인

③ V.T.R 시청 시작

④ 화면 정지 시키고 결정적 장면 추리(예상)시키기

⑤ 예상(추리)의 근거 記錄(各者)

⑥ 결정적 장면 시청하면서 自己 豫상 확인 하기

⑦ 자기 생각(예상)과 일치한 아동 격려 하기

⑧ 알게 된 사실 정리 발표

⑨ 個別 소감 발표, 기록하기

b. 野外 現場 學習 전개

1) 目的 - 大自然과 직접 接하며 주위 자연 환경을 綜合的으로 이해하고, 생동감 있는 素材를 찾기 위해

2) 事前 답사

주의 산만을 예방하려고 觀察組를 편성하고, 研究者가 事前 답사, 관찰 일지를 作成하여 밀도 높은 學習 계획을 수립했다.

3) 野外 學習場 선정

학교 주변 野山을 利用하여 생태계 파괴 현장, 共生 관찰場, 연못 生物 관찰場 등 9개소를 선정 운영했다.

4) 野外 學習場 生物 分布圖 作成 배부

觀察場 位置, 학교에서의 거리, 소요시간, 주위 生物 분포를 자세히 그림으로 나타내어 全 兒童에게 배부 活用했다.

c. 室內 探究의 場 조성(自由 實驗室 설치 운영)

1) 目的 및 種類

① 복습 코너

결손아의 再 探究 機會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② 예습 코너

우수아의 事前 學習의 기회 제공을 위해 설치했다.

③ 발전 코너

발전적 실험, 조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고 活用토록 했다.(各 學年 3個所 설치함)

2) 資料 준비

3일에 한번 정도 교환했다.

3) 活用 方法

個人 能力에 맞게 3個所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活用하되 휴식시간이나 방과후 時間을 利用해서 준비된 자료로 실험, 관찰하게 했다.

4. 觀察의 흥미 지속을 위한 방법 指導

a. 이미지 잡고 관찰 관점 세우기 단계적 指導

지도단계	지 도 과 정 사 례
1단계 이미지 잡고	• 잘 알고 있는 송사리를 그려 보게 함 → 몸체 잘못 그려진 송사리 그림 제시하고 발표 → 지느러미 잘못된 송사리 제시 → 서로 다른점 발표 시킨다.
2단계 관찰 관점 잡기	• 흔히 늘 보는 것이라 쉽게 생각 했으나 잘 그릴 수 없었다 → 실제 모습에 강한 의문 → 무엇에 관점을 들지 스스로 찾게 되었다.
3단계 실제 송사리 관찰	• 호기심과 흥미를 가졌던 아동들이 열심히 관찰하게 됨 → 처음 자기 그림과 비교하기 → 무엇이든 유심히 봐야 함을 자각하게 되었다.

b. 분할 관찰 지도

같은 대상물을 여러 아동에게 부위별로 나누어 관찰시키고, 부위별 관찰 결과를 綜合해서 全體 對象物의 관찰로 확산시켰더니 相互 미비점 보완으로 정성적 관찰에서 分析的 관찰로 전환되었다.

c. 5분 관찰 기록 훈련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對象物을 관찰 기록하도록 했더니 특징 포착이나 집중력 훈련에 도움이 되었다.

d. 비교 관찰 指導

부위별 비교, 변인별 비교, 시간별 變化비교 등 多樣한 비교 관찰을 시켰더니 변인의 특징 파악과 비교 관점 수립에 효과가 있었다.

e. 정량적 관찰 指導

모눈칸이 있는 기록장에 나타내고, 반드시 측정 도구를 使用토록 했고, 特別히 중요 부분은 擴大해서 그리도록 했다.

f. 自然 作文(소감) 記錄 指導

人爲的 관찰, 野外 현장 학습, 독서 등을 통해 自然의 신비함, 自

己 발견의 기쁨, 새로운 發見의 경이감을 솔직히 글로 표현하고, 自己의 決心 反省을 記錄하도록 했더니 精意의 영역 지도에 효과적이었다.

B. 實行 目標 2의 實行

科學 일기장 活用の 단계적 지도로 發展的 思考를 促進한다.

1. 전체적 지도 단계

a. 관심과 호기심 갖기 → b. 학교 학습 적용 → c. 發展的 思考 指導 → d. 資質 파악, 適性別 深化指導 等 全體的 지도 단계를 거치게 했다.

2. 發展的 思考 學習紙 개발

a. 製作 內容

학교에서 학습한 原理나 概念을 토대로 새로운 실험 관찰을 간단한 놀이로 할 수 있게 問題로 提示 했고 本 學習紙를 해결하는 동안 은연중 原理, 法則을 발견할 수 있게 제작함

b. 學習紙 규격

16절 모조지에 인쇄한 자료로서 아동 수만큼 복사해 活用했다.

c. 學習紙 분량

主題別 1~2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0主題에 60매(예: 주제8. 튀어 나오는 구슬)

3. 適性別 科學 日記쓰기

a. 適性 調査

科學의 영역 중에서 국민학교 수준에서 自己 適性(취미)에 맞는 영역을 설문지와 면담에 의거 조사했다.

b. 適性別 組 편성

5, 6학년 아동들 중에서 학년 구별 없이 適性別로 組를 편성하고 組員 상호 協議下에 適性を 살려 適性中心으로 科學 日記를 쓰도록 했다. 아동 희망에 의거 조직한 適性別 組는 다음과 같은 種類로 分類되었다.

- 1) 植物 觀察組
- 2) 動物 觀察組
- 3) 氣象 觀察組
- 4) 汚染 調査組
- 5) 科學圖書 讀書組

6) 映像 視聽組

위 6個組別로 活動이 전개되었다.

4. 퀴즈 탐험 놀이

결정적인 주요 장면을 편집하여 준비하고 결정적인 場面(예: 알 낳는 모습)을 보여 주기 直前に 場面을 추측하고 근거를 대어 보는 過程을 퀴즈식으로 놀이화해서 실시했더니

- a. 근거대며 예상하는 方法의 습득
- b. 自律的 T.V시청 동기 강화
- c. 未知의 事實을 探究하는 發展的 思考 훈련에 효과적이었다.

5. 發展的 思考 事例 發表會

(植物 관찰조)

5-1 김 홍 규

a. 5-1 教科書 실험의 문제점

잎의 증산작용 실험에서 두개의 시험관에 같은양의 물을 넣고, 잎의 수가 많은쪽과 적은쪽의 물의 量을 비교 관찰했더니, 넣은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요인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김

b. 發展的 思考에 의한 실험

삼각 플라스크를 利用, 고무마개로 막고, 식물을 꽂은 뒤, 촛농으로 틈을 막아, 공기 중 증발을 막은 다음 삼각 플라스크를 접시 저울(천칭)에 얹어 놓아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관찰하면, 잎이 많은 쪽이 증산 작용이 活潑해 가벼워져서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을 민감하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했다.

Ⅲ. 結果 검증

평가(검증)내용	도구 및 비교 항목	비교방법	결 과 해 석
1. 과학에 대한 인식 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에 의거 5개항 조사 1) 과학자의 역할 2) 일기 예보 근거 3) 과학자의 연구 한계 4) 자연 공부 흥미도 5) 장래 희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후 좌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반은 과학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31% 높고, 일기 예보가 근거 있다고 믿으며, 흥미도가 67% 높아졌고, 장래에 과학

평가(검증)내용	도구 및 비교 항목	비교방법	결과 해석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아이가 60% 많음
2. 科學 日記帳 기록 내용 分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作 평가 기준에 의거 1) 관찰 素材, 기록 유형, 관찰 관점의 多樣化 2) 정량적 기록과 自律 시청 상황 3) 발전적 思考 기록 상황 	전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적 사고 기록이 73% 증가됨 • 관찰 素材, 기록 유형이 多樣化 되고 있고 • 기록의 정량화가 증가되고 있음
3. 發展的 思考능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發展的 思考 學習紙 5단계 평가 2) 관찰법에 의거 발전적 사고 사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수립 능력 • 학교 학습 적용 사례 	전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學習紙의 문제 해결 정도 47% 향상 • 예상의 근거를 제시함 (85%) • 학교 학습의 내용이 가 정으로 연결되고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있다(81%)
4. 探究的 관찰 태도 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법 의거 학습 태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의 계획성, 지속성 • 야외 현장 학습 태도 • 종합 분석적, 관계적 관찰 	전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으며 지속력이 향상 됨(58%) • 야외 학습시 조별 활동이 활발함(73%) • 관계적 관찰 사례 증가 (56%)
5. 學력의 變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학력 검사지에 의거 학력의 變化 비교 	전후 좌우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반이 평균 12.1점이 높았다. CR 검증 결과 띄 의의있는 차로 판정 • 전후 비교에서 연구후가 12.33점 향상되었고 CR 검증 결과 의의 있다고 판정

IV. 結論 및 提言

A. 結論

1. 科學 日記帳 제작 活用面

a. 市中 관찰 기록장은 個別 思考 過程의 記錄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學校 실정, 아동 능력, 適性 등을 고려해서 多樣한 樣式으로 提示되야 創意的인 思考로 유도할 수 있다.

b. 自己 發見의 기쁨, 자연의 신비함과 놀라움 등을 自然 作文으로 표현하는 것은 情意的 영역의 태도 變化에 효과적이다.

c. 科學 日記帳은 아동의 個別 適性, 科學的 素質 등을 파악하는데 좋은 근거 자료가 되며, 適性別 指導 方向 정립에 유용히 활용할 수 있다.

2. 發展的 思考 促進面

a. 발전적 思考 學習紙 活用은 학교 학습의 轉移力 향상에 도움이 되고, 주위 사상에 도전해 보는 機會 제공을 한다.

b. 퀴즈 탐험 놀이와 自由 실험대 설치 운영은 發展的 思考 促進에 영향을 미친다.

3. 自然 認識과 科學的 態度面

a. 適性別 科學 日記 쓰기 는 누구에게나 저항감 없이 自信感을 심을 수 있고 科學에 對한 인식을 變化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b. 適性別 科學 日記 쓰기 는 흥미나 호기심의 持續에 효과적이며 發展的 思考 促進에 영향을 미쳤다.

B. 提言

發展的 思考나 科學的 態度는 短時日에 정착되지 않으므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로서 기다리는 자세가 必要함을 느끼게 되었다.

참고문헌

- 경북교위, 자연과 기록 지도의 이론과 실제, 대구: 협진사, 1988, 外 다수.

社會科 討議 學習이 探究 力 伸長에 미치는 影響

漆谷郡 洛山國民學校 教師 嚴 泰 燦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討議 學習은 民主 市民으로서 필요한 社會的 態度와 技能을 키울 수 있는 學習 形態로서의 價値를 지니고 있으며 人本主義的 教育 哲學을 教育 現場에서 具體化시키는 最善의 方法으로 提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場 學習에서 討議 學習을 學年性이나 主題에 맞게 적극적으로 導入 適用하여 集團員 相互間에 자기의 意見을 發表하고 同時에 他人의 意見을 尊重하면서 對話를 通하여 같은 問題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意見의 차가 있음을 알게 하고 自主的인 學習 意慾을 높이고 學習 經驗의 폭을 넓히는 것은 現場 教育에서 매우 重要하다고 본다.

따라서 主題 研究를 通하여 社會의 여러 가지 現場을 探究함으로써 個人的, 社會的 問題에 대하여 合理的인 意思 決定 能力과 民主的인 國民으로서의 資質을 涵養하며 同時에 探究力을 向上시키고자 本 研究를 試圖하게 되었다.

2. 研究의 目的

- 1)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 技法을 熟練시킨다.
- 2) 知的 授業 過程, 情意的 授業 過程, 意思 決定 過程에서 討議 學習을 具案 適用한다.
- 3) 討議 學習 適用이 社會科 探究力 向上에 미치는 影響을 究明한다.

3. 研究의 制限

본 研究에서는 研究 實踐의 效率化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制限 點을 두었다.

- 1) 教科는 社會科(6학년 1학기)로 制限하였다.
- 2) 研究의 對象은 6학년으로 制限하였다.

4. 用語의 定義

1) 討議 學習

討議 學習은 Discussion Method에서 翻譯된 用語로 “學級 또는 한 集團 內에서 學習者들의 口頭 活動에 의하여 相互 意見을 交換하고 結論을 내리는 學習 活動을 말한다.”

2) 探究力

問題 解決의 過程에서 “提起된 不確實한 問題들을 解決하기 위해 세운 어떤 假定을 準據에 따라 評價하고 檢證해 가는 능력”을 말한다.

II. 理論的 背景

1. 討議 學習의 目的과 要件, 指導 方法(생략)
2. 社會科 討議 學習 指導(생략)
3. 探究力の 指導(생략)

III. 研究의 方法

1. 研究의 對象 및 期間

- 1) 研究의 對象 : 칠곡군 낙산국민학교 제6학년 20명(남 10명, 여 10명)
- 2) 研究의 期間 : 1992년 1월 ~ 1992년 8월(8개월간)

2. 研究의 節次(생략)

3. 研究의 道具

- 1) 處置 道具

- a. 학습 규율 훈련안 작성, 활용
- b. 발언 형식 지도 Program 작성, 활용
- c. 토의 학습 훈련
- d. 토의 학습의 적용

2) 測定 道具

- a. 평가지 : 탐구력의 변화 경향 평가(한국 교육 개발원의 '국민학교 사회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 참고)
- b. 설문지 : 토의 학습 능력, 토의 학습에 대한 반응 검사(한국 교육 개발원의 '국민학교 사회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와 '자아 개념 및 학업에 관한 태도 검사' 참고)
- c. 조사표 : 발표력 향상도(연구자 자작)
- d. 학력 검사 : 학력 향상도(1992. 3월 준비도 검사와 7월 도내 국민학교 학력 실태 조사 대비)

4. 검증

순	검 증 내 용	도 구	방 법	시 기	대상
1	탐구력의 변화	평가지	전후비교	3, 7월	아동
2	발표력 향상도	조사표	누가 기록	3, 5, 7월	
3	토의 학습 능력	설문지	전후비교	3, 7월	
4	토의 학습에 대한 반응	설문지	전후비교	3, 7월	
5	학력 향상도	평가지	전후비교	3, 7월	

IV. 研究의 實際

1. 實行 重點

- 1)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 技能을 向上시킨다.
- 2) 社會科 學習 過程(知的 授業 過程, 情意的 授業 過程, 意思 決定 過程)
- 3)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의 適用이 探究力 伸張에 미치는 영향을 究明한다.

2. 實行 重點의 實踐

1) 實行 重點1의 實踐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 技能을 向上시킨다.

a. 學習 規律 訓練案 作成 活用

(1) 學習 規律 訓練案 作成 方針

- 가. 밀도 높은 학습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직한다.
- 나. 훈련 단계별로 작성한다.
- 다. 훈련 내용은 요항으로 작성하되 지도 세안은 별도로 마련한다.

(2) 학습 규율 훈련안

〈표1〉 학습 규율 훈련 단계

단 계	훈 련 내 용	비 고
1 단계	• 수업 시작과 마침, 교실 출입	
2 단계	• 학습 준비와 수업에 임하는 자세	

(3) 활용 방법

3월 1주 ~ 3월말(1개월간)까지 오전 08:30 ~ 08:50(20분간) 단계별 학습 규율 훈련안에 따른 파일 자료나 패도 자료를 제작하여 교사의 시범에 의하여 지도하고, 반복해서 보충, 교정 지도하였다.

b. 發言 形式 指導 PROGRAM 作成 活用

(1) 지도 PROGRAM의 내용

가. 아동의 발언 형식

경 우	발 언 형 식
(1)사실이나 의견을 말할 때	1. ~에 대해서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에 대해서는 ~이므로 ~이라고 생각합니다. 3. 내 생각은 ~인데 ~의 생각은 어떠하니?
(2)찬성할 때	1. ○○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기 때문입니다. 2. ~하므로 ~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나. 교사, 사회자의 발언형식

(a) 자기의 생각을 서로 제의할 때

발언자	발언형식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자기 생각을 메모하세요. • ~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해 보세요.

(2) 발언 형식의 지도

가. 중점 지도 시기 : 1992년 3월 ~ 1992년 4월(2개월간)

나. 지도 방법

발언 형식 5가지를 교과 활동, 특별활동, 생활 지도 전 영역에서 반복 지도하여 습관화를 유도하였다.

3. 討議 學習 訓練

학습 시간에 학급 구성원 전체가 전원 참여, 전원 사고, 전원 대화를 통하여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5단계의 훈련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표2〉 토의 학습 훈련 단계

단 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제5단계
훈련내용	짝끼리의 대화 훈련	분단 편성 훈련	토의훈련	조장훈련	수업에의 적용

〈표3〉 단계별 토의 학습 훈련안

단 계	시 기	훈 련 내 용	내 용 사 례
제1단계 (짝끼리 의 대화 훈련)	3월 1주 (아침 자 습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끼리 3분간 이야기하기 • 들어서 이야기한 내용 발표하기(똑똑히, 이야기차례로, 듣는 사람 보며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경험(어제 있었던 심부름) • 주변적 내용(내 동생, 개미 관찰)

2) 實 行 重 點 2의 實 踐

社會科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을 適用한다.

a. 討議 學習의 適用

(1) 수업 과정의 탐색

수업 과정별, 학습 형태별, 학습 단계에 따른 토의 활동 내용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90장학자료 '토의 학습의 실제' (1990)를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수업 과정별, 학습 형태별, 학습 단계에 따른 토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과정	학습형태	학습 단계	토 의 활 동
지적수업	문제해결	예습적 과제의	예습적 과제에 대한
수업과정	학습	해결	해결

(2) 수업 과정의 탐색

6학년 1학기 단원별 내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토의 주제 및 수업과정을 선택하였다.

단 원	주 제	제 재	차시	토 의 주 제	쪽수	수업과정
1. 민주국가 로서의 발전	1) 훌륭한 지도 자들	(1) 단군 왕검	2/8	• 단군 신화는 역사 적으로 어떤 의미 를 갖고 있는가?	8~10	지적 문제 해결 학습

(3) 수업 적용안의 작성 활용

가. 학습 단계에 따른 토의 활동 지적 수업 과정 — (문제 해결 학습)

단계	예습적 과제의 해결	학습문제 의 설정	문제 해결 방법 구상	문제 해결	교사의 보충수정	아 동 확인학습	차 시 예습과정
토의 활동	예습 과제 해결 방법 토의	예습과제 에서 공통 요소 추출	문제 해결 방법을 토 의에 의해 구상	분단 토의 전체 토의			

3) 實行 重點3의 實踐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의 適用이 探究力 伸長에 미치는 影響을 究明한다.

a. 探究力의 向上度

탐구력의 향상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하여 한국 교육 개발원의 '국민 학교 사회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에서 인지적 영역의 정보 습득 처리 기능, 탐구 기능, 민주적 결정 참여 기능, 사회 탐구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을 발채하여 1차(3월), 2차(7월)에 평가를 하여 대비, 분석하였다.

〈표4〉 사회과 탐구력 비교

검사종류	N	문항수	3월(M)	7월(M)	DM	CR	P	비고
사회과 탐구력 검 사	20	20	67.20	73.90	6.70	2.62	$P < .05$	

※ 평가 결과

한국 교육 개발원의 표준화된 문항으로 정보 습득 처리 기능, 탐구 기능 등 사회 탐구 기능을 검사한 결과 〈표4〉와 같이 7월에는 3월보다 평균차가 6.70으로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5% 수준에서 매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 발표력 향상도

발표력의 향상도를 알아 보기 위해 (1)사실이나 의견을 말할 때 (2)찬성할 때 (3)의견이 다를 때 (4)보충이나 수정할 때 (5)그 외의 발언 등으로 구분하여 요소별로 발표 회수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1주일간 사회과 수업 시간에 분단별 토의시 활용된 발언 형식을 조장이 조사한 것과 전체 토의시 활용된 발언 형식을 집계함)

발언 형식별로 활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형식별로 1차 조사에 비해 2·3차 조사에서 활용 빈도가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1차 조사에서는 주로 사실이나 의견을 1시간에 1회 정도 발언하는 수준이었으나, 3차 조사에서는 찬성하는 발언과 다른 의견을 조리있게 발언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보충·수정하는 발언, 사고 도중

의 발언 등 다양한 발언방법을 익혀 활용함을 알 수 있다.

c. 討議 學習 能力의 評價

(1) 평가 방법

가. 토의 학습 능력의 평가는 한국 교육 개발원의 '국민학교 사회과 평가의 원리와 실제'(1986)에서 '민주적 결정·참여 기능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연구반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2) 토의 학습 능력의 평가 결과 토의 학습 능력을 평가한 결과는 <표8>과 같다.

<표5> 토의 학습 능력의 차

구 분	조사월일	N	문항수	M	DM	평점	비고
연구전	92. 3	20	25	68.30	.	양	
연구후	92. 7	20	25	81.20	12.90	우	

<표5>에서와 같이 토의학습 능력이 3월에 68.30(양)에서 7월에는 81.20(우)으로 평균점이 12.90이나 높아져 본 연구의 추진 결과 토의 학습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실행 중점1>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 技能을 向上시킨다.

- 學習 規律 訓練案 作成 活用
- 發言 形式 指導 PROGRAM 作成 活用
- 討議 學習 訓練

<실행 중점2>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을 適用한다.

- 授業 過程의 探索
- 授業 過程의 選擇
- 授業 適用案의 作成 活用 — 授業案의 適用 評價

<실행 중점3> 社會科 學習 過程에서 討議 學習의 適用이 探究力 伸長에 미치는 영향을 究明한다.

- a. 探究力의 向上度
- b. 發表力 向上度
- c. 討議 學習 能力 評價
- d. 討議 學習에 대한 反應 調查
- e. 社會科 學習에 대한 反應

이상과 같은 實行 重點 3개와 그에 따른 實踐 事項 11개를 對象으로 研究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社會 探究 技能 檢査 結果 平均차가 6.70 증가되어 討議 學習을 통해 探究力이 신장되었다.
- 2) 討議 學習 技能 訓練과 討議 學習을 통하여 發言 形式 이 多樣해졌고 兒童들의 發表力이 크게 向上되었다.
- 3) 討議 學習 能力 評價 結果 平均점이 12.90 높아져 討議 學習 能力 이 向上되었다.
- 4) 討議 學習에 대한 反應 結果 '다른 教科도 討議 學習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討議 學習으로 發表力이 좋아졌다.'는 아동이 80.0%로 높게 나타났다.
- 5) 社會科 學力을 前後 比較해 본 결과 平均點이 13.10 높아져 討議 學習은 學力 向上에도 效果的이었다.

2. 결론

本 研究의 實踐 過程과 結果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 1) 討議 學習 技法을 體系의으로 訓練함으로써 發言 形式이 多樣化되고 發表力이 向上된다.
- 2) 注入式 劃一的 教授-學習에서 發展하여 教師와 學生이 對話와 討議를 통해 學習 目標에 到達하기 용이하고 學習 意慾이 增進된다.
- 3) 兒童 스스로 課題를 調查하고 意見과 情報을 交換하여 問題 解決을 試圖함으로써 探究力이 길러진다.
- 4) 討議 學習을 통해 상대방의 意見を 尊重하고 敬청하는 자세를 가진다.
- 5) 討議 學習은 思考, 批判 機會의 확대, 集團 討議를 活性化하여 合理的 思考力이 길러진다.

사고의 점층적 확산지도를 통한 글짓기 능력의 신장

영천여자중학교 교사 서 석 보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 본교 3학년 학생들의 대화 속에 사용되는 단어의 수와 유형 그리고 글짓기에 사용된 단어의 수와 유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는 너무 유치하고 단순한 생각을 전달하는 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좀더 생각하고 단어의 의미를 살려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다.

2) 학생들에게 글짓기를 지도해 보니 마음 속으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 속에서의 느낀 점, 어떤 사물에 대한 관찰 사고 명상 등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사고력 문장 구성 능력의 부족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단계적이고 조직적인 사고 능력의 신장 및 언어의 의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목적은 어휘력, 사고력, 관찰력, 서술, 묘사 등 단계적 지도를 통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 1) 어휘와 사고의 연계 지도를 통하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킨다.
- 2) 생활 주변 속에서 소재와 주제를 찾아 내어 생각과 느낌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관찰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3) 이러한 기초 기능의 배양을 통하여 글의 체계적인 구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부분적 단계적 접근 지도를 통한 글짓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3. 문제의 분석

1) 개편된 교과서 내용은 짓기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나 현재 중학교에서의 국어 지도는 당면한 입시위주의 주입식 설명식 교육에 편중되어 짓기 교육은 자연적으로 등한시되고 평가에 있어서도 독해 위주의 4지선다형에 단답을 요구하는 주관식 문제이어서 문장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그러나 점차 주관식 문제를 확대해 나가려는 출제 경향으로 보아 짓기 교육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교사들은 글짓기 지도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평가가 어렵고 성적에 반영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글짓기 지도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연구의 중점

1) 언어의 의미 지도로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2) 단계적 구상 지도로 작문력을 기른다.

II. 연구의 실행

1. 언어의 의미 지도로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1) 낱말 의미의 연상 작용 훈련을 통하여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1) 제시된 말의 의미를 생각나는 대로 써 본다.

① 호수 → {고요하다, 맑다, 넓다, 잔잔하다, 깨끗하다.}

② 처녀 → {부끄러움, 순진함, 아름다움, 순결함, 청순함.}

③ 건다 → {들판길, 등교길, 오솔길, 산책, 구슬땀, 고달픔, 인생길, 고통, 전진, 굳센의지}

(2) 문답을 통한 어휘력 및 사고력의 신장

(예문)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 ① 피어서 지는 것은 무엇인가?
→ 꽃이다.
- ② 꽃이 피어서 지면 계절이 어떻게 될까?
→ 계절이 바뀌게 된다.
- ③ 그러면 '피어선 지고'의 문맥적 의미는?
→ 봄이 되면 겨울이 지듯이 계절이 바뀌음을 뜻한다.

(예문)

글을 쓰는 것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장래를 위하여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 알뜰한 작업이다.

- ① 이정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 길의 이수를 기록하여 길가에 세운 꽃말로 거리를 나타낸다.
 - ② 인생의 이정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 인생의 목표와 현재의 위치를 나타낸다.
 - ③ '인생의 이정표를 세우는'의 문맥적 의미는?
→ 인생의 설계, 방향을 세운다는 뜻이다.
- (3) 알맞은 소재를 찾기를 통한 어휘력 사고력의 신장
- ① 귀여운 아기의 목소리를 설명하기에 알맞은 소재 → 새소리, 방울소리 등
 - ② 한국인의 창조성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소재 → 훈민정음, 거북선
 - ③ 아버지의 사랑은 깊다. → 바다, 하늘, 관용, 온정, 눈물 등

2. 단계적 지도를 통하여 글짓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1)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전화는 편지가 갖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다. 신속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편지가 담당했던 기능을 전화로 대신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 ()

2) 단락짓기를 통한 구성력 지도

(1)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 ① 이순신 장군은 1591년 전라좌수사에 임명되었다.
- ② 그는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 ③ 1576년 식년 문과에 응시하여 합격되었다.
- ④ 그는 1592년 4월 거북선을 만들었다.
- ⑤ 1572년 무과 과거에 낙방하였다.
- ⑥ 1592년 4월 일본군이 침입하였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문제①: 위의 문장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라.

문제②: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율들을 찾아 결합하라.

문제③: ①과 ②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한 단락 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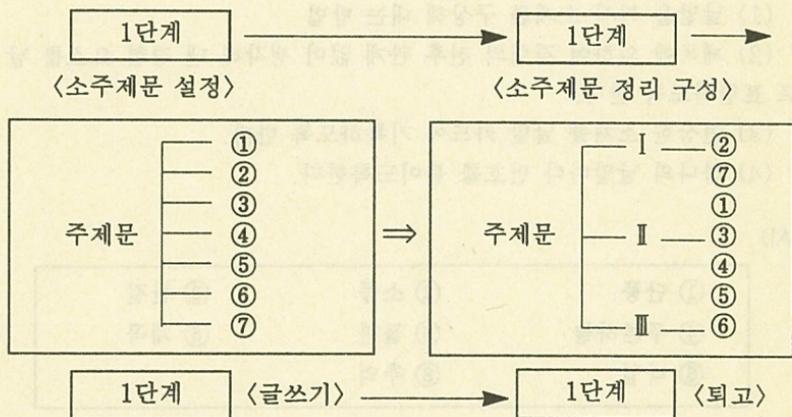
3) 구상하여 글짓기

1단계: 주제문에 따라 소주제문 설정하기

2단계: 설정한 소주제문을 구상 단계에 맞춰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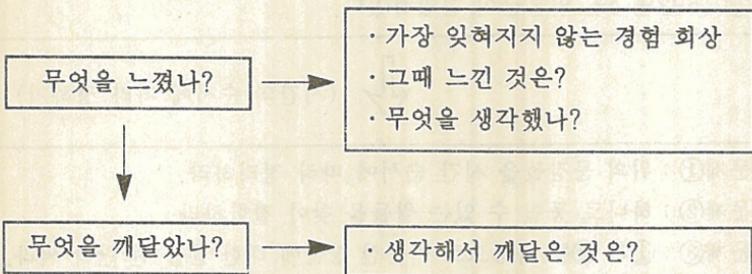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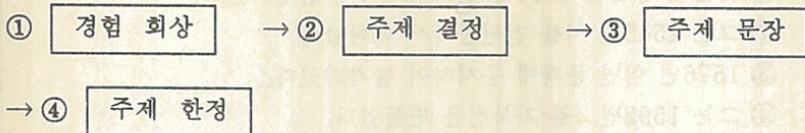
3단계: 정리된 구상에 따라 글짓기

4단계: 퇴고 및 정리



4) 주제 설정 학습 훈련

(1) 훈련 방법



(2) 주제의 한정

- ① 포괄적인 주제 - 나는 꽃을 사랑한다.
- ② 한정된 주제 - 나는 목련화를 사랑한다.

5) 주제 선정 학습 훈련

- (1) 낱말을 써서 소재를 구상해 내는 방법
- (2) 제목에 의하여 경험의 전후 관계 없이 생각해 낸 경험 요소를 낱말로 표현하도록 한다.
- (3) 연상한 소재를 낱말 카드에 기록하도록 한다.
- (4) 하나의 낱말마다 번호를 붙이도록 한다.

(예시)

① 단풍	② 소풍	③ 산길
④ 푸른하늘	⑤ 들판	⑥ 계곡
⑦ 낙엽	⑧ 추억	

6) 중심 문장 쓰기와 보조 문장 쓰기

예시

제 목	국어를 사랑하자.
중심문장 (주제)	우리는 국어를 사랑해야 한다.
보조문장	우리는 국어를 사랑해야 한다. 국어 사랑은 곧 나라 사랑의 길이요, 국어는 국민의 품위와 문화 수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킨다.

7) 시간의 단위로 쓴 문단을 연결하여 완성하기.

시간의 단위 :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아침 일찍 아버지를 따라 등산길에 올랐다. 상쾌한 아침이다. 가벼운 걸음으로 축축히 이슬 먹은 산길을 밟았다. 부드러웠다.
{점심}	점심 때가 가까워서야 산마루에 올랐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내 마음도 광야가 된다. 시야의 풍경화를 감상하노라니 자연의 위대함과 나의 존재를 확인하여 보는 듯 돌아보았다.
{저녁}	이마의 땀을 닦으며 길다랗게 발밑에 놓인 나무 그림자를 밟으며, 가우똥거리며 연신 발을 움직였다. 유쾌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을 때는 저녁 때가 되었다.

8) 공간적 단위로 쓴 문단을 연결하여 글 완성하기

(예시)

제목 : 우리 학교 공간적 사물 : 교문, 교사, 등나무.	
{교 문}	학교의 얼굴은 교문이다. 우람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두 다

↓ [교사]	<p>리를 꼭 잡고 서서 우정의 얼굴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묵묵히 지켜 본다.</p> <p>‘오늘은 즐겁게 하루를’ 하면서 교문에서 아주 빨간 벽돌로 정연하게 치솟는 4층 교사는 배움의 전당, 오늘도 같고 닮는 부지런한 모습들이다.</p>
[등나무 야의 교실]	<p>등나무 야의 교실은 환경과 조화되어 한층 돋보이고 밝고 명랑한 얼굴들이 정담을 나누는 곳, 꿈을 심는 곳이다.</p>

3. 작문 수업 시안 작성 활용으로 글짓기 능력을 신장시킨다.

1) 작문 학습 지도안

(1) 글의 종류 : 설명문

제목 : 김치와 우리 생활

단원명	4. 글쓰기의 절차	차시	3/3	관련	국어3~1 P44~50
학습목표	• 설명문을 단계에 따라 쓸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유의점
경험회상	<p>① 경험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잊혀지지 않은 경험 · 회상 • 그때 무엇을 생각 했나? • 생각해서 무엇을 깨달았나? 				
내용 생각 해 내기	<p>② 머릿 속에 떠오르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자.</p>				
일정한 기 준에 따라 분류 하기	<p>③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및 기록을 한다.</p>				
중심문장 과 보조 문장쓰기	<p>④ 중심 생각과 뒷받침할 생각 쓰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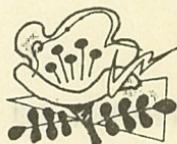
내용 구조 도 그리기	⑤ 내용 구조도 그리기	
구성하기	⑥ 개요표 작성	
표현하기	⑦ 개요표에 따라 표현하기	
퇴 고	⑧ 글 다듬기	

Ⅲ. 결 론

1) 작문 능력의 신장은 기초 과정에서 충분한 과제에 의한 지속적인 훈련 기능과 독서 효과에서 얻어진 풍부한 상상력과 표현 기능의 훈련으로 어휘의 조직과 구상력을 갖추므로써 실현된다.

2) 작문 교육의 신장을 위해서는 기초 과정에서 독서력 어휘력을 갖추므로써 단계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을 실천하는 학습 과제가 선택되어야 함으로 보안적인 작문 학습 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3) 작문 연구의 효과적인 방법은 수업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달성됨으로 교사와 학생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



농촌 벽지학교에서의 학력 향상 활동

화남국민학교 교감 권혁원

I. 서론

본교는 전교생 63명, 5학급(단학급 4, 복식학급 1) 편성의 농촌벽지형의 소규모 학교이다.

농촌인구의 소인수화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학력향상방안의 탐색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본교에서는 1992학년도 학교경영의 중점을

첫째, 아동 기본학습방법의 훈련 철저

둘째, 교사의 교수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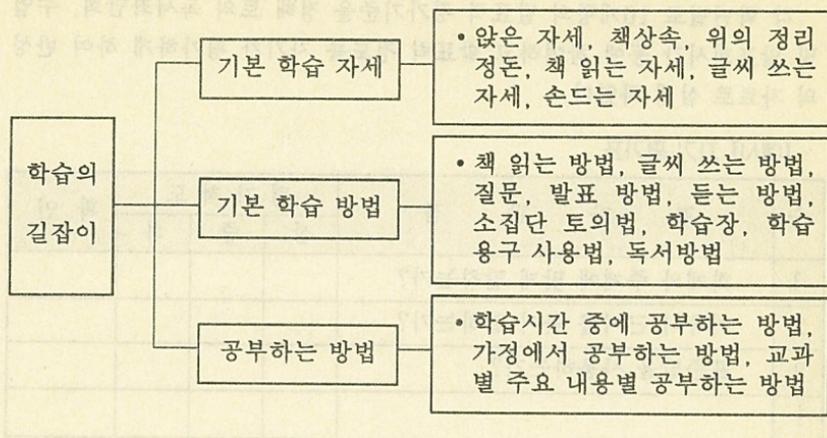
셋째, 교단지원 관리 우선에 두고 1학기간 실천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운영의 실제

1. 학습방법의 훈련

학생들의 자주적, 자발적 학습방법 체득을 위해 학습의 개별화에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전직원을 기본학습자세, 기본학습방법, 공부하는 방법의 3개 연구분과를 조직하여 1개월간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학습의 길잡이”를 개발 활용하였다.

가. 학습 길잡이의 주요내용



나. 활용방법

학년초 1개월(4월달)간 학급별로 집중지도하고 학급별, 개인별 부진사항은 수시 반복 및 개인별 보충 지도하고 항상 소지하여 수업활동의 반성자료로 활용하였다.

다. 발표력 신장

교육과정 국어과 말하기 지도내용의 분석을 통해 학년별 “발표기본 훈련안”과 자기평가표를 작성활용하고 발표기회확대를 위해 발표회 시간을 운영하였다.

1) 학년별 발표기본 훈련안

저, 중, 고 별로 발표기본훈련안을 작성하여 학년초 집중지도와 부진사항을 수시 개별 보충 지도하였다.

[예시] 학년별 발표기본 훈련안

	저 학 년	중 학 년	고 학 년
의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고 생각합니다. • ~인것 같아요. • 저의 생각은 ~와 다 른데 ~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는 ~이고 둘째는 ~입니다. • 예를 들면 ~입니다. • 저는 ~점에서 ~라 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 ~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은 ~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 때문입니다.
찬성			

2) 자기 평가표 작성활용

각 학년별로 10개항의 발표력 평가기준을 정해 토의 독서좌담회, 수업 및 발표회시간 등에 참여하고 발표력 정도를 자기가 평가하게 하여 반성의 자료로 삼게 하였다.

[예시] 자기 평가표

순	평 가 관 점	평 가 척 도			확 인
		상	중	하	
1	화제와 주제에 맞게 말하는가?				
2	이유나 근거를 들어 말하는가?				
3	표준말을 사용하는가?				
⋮					

3) 발표회 시간 운영

매주 화, 목, 금요일 아침방송시간에 윤번제 학급자랑 발표회와 매주 수요일 중간놀이시간에 나, 우리집, 우리고장, 우리나라 자랑발표회시간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여 발표력신장에 노력하였다.

2. 교수력 강화 방안

가. 교재연구 시간 운영

매주 월-금요일 오후 16:00~17:00분까지 60분간 교재연구시간으로 설정하고 이 시간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다음날 시간표대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지도서를 참고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였다.

[예시] ()과 학습지도안 월 일 교시

1. 학습목표 :

2. 지도요점 :

3. 지도자료 및 유의점 :

4. 능력별 학습문제 상 중 하

5. 형성평가 문제

나. 자율연수 실시

교수력 향상을 위해 1교사 1연구 주제해결과 1교과 시범수업을 실시후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 수업참관 협의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부단한 개인연수에 의해 자기수업 창조에 노력하였다.

다. 교사 자기수업 평가제 실시

교사들이 매시간 수업시간마다 수업전, 수업중, 수업후 46개항의 자기수업 평가표를 교탁위에 부착하여 활용하면서 자기수업 반성기회를 갖게 하였다.

[예시] 수업자기 평가표

구 분	영 역	세부 착안 사항	자 가 평 가
1. 교재연구	1)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교과간의 위계 및 관련개요를 이해하고 있는가? 	1 2 3 4 5 ----- 1 2 3 4 5 -----
	2) 개인연수		

라. 학급담임 학력책임제 실시

학년초 준비도검사 학습부진아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학급별, 교과별, 학력향상목표치와 아동개인별 성취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도달을 위해 개인별 학력향상카드를 제작 활용하였다.

마. 자기학습계획표 작성활용

개인별 학력성취목표 달성을 위해 아동 개개인이 전교과를 얼마만큼 공부 하겠다는 계획표를 작성활용케 하였다.

[예시] 자기학습 계획표

월일	요일	교과	학습목표량	목표달성량	평가	확인

바. 소집단 협력학습 분단조직

학습반조직은 능력별, 교우별, 성별, 취미, 자연부락을 고려하여 2-3명으로 조직하고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자율학습시간에 공부짝끼리 협력하

습을 하게 하였다.

사. 가정학습 과제지 활용

생계유지에 전념하다보니 아동가정학습에 소홀한 열악한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교재유형별로 학습요소를 추출, 예습, 복습에 대한 가정학습 과제지를 구안하여 활용하였다.

아. 형성평가문항 개발활용

교재연구시 작성한 형성평가문항을 교과별로 수합하여 형성평가문항집을 교과별로 만들어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자. 부진문항 추적지도

각 교과별로 평가실시후 60% 미만의 통과율을 보인 문항에 대해서는 동일평가목표 수준의 5개 문항을 재출제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재하여 학습결손의 누적방지에 노력하였다.

3. 교단지원 관계면

가. 전일제 학교 운영

농촌벽지지역 아동들의 가정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 이므로 학교일과를 연장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적성, 소질의 잠재능력 개발과 동시에 학습결손의 보충 심화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시] 전일제 시간표

시 정	시간	운 영 내 용		
		1학년	2, 3년(복식)	4, 5, 6년
08:00~08:40	40분	자 율 학 습		
08:40~09:00	20분	청 소 활 동		
09:00~10:30	90분	오 전 수 업		
10:30~10:50	20분	중 간 체 육		
10:50~12:20	90분	오 전 수 업		
13:20~14:00	40분	과제학습	5교시	5교시
14:00~14:40	40분	자율학습	과제학습	6교시
14:40~15:20	40분	취미활동	자율학습	과제학습
15:20~16:00	40분	하교	취미활동	상설클럽활동
16:00~17:00	60분	교사교재연구 및 레크레이션		취미, 자율학습 활동

나. 대리수업매체 활용

복식학급의 간접지도 시간에 교육방송을 녹화한 자료나 학교방송의 녹음자료를 활용하여 대리수업을 받게함으로써 본시학습의 결손방지에 임했다.

3. 사랑의 교실운영

방과후 매일 학급담임이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동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학부모와는 “사랑의 통신카드”를 활용하여 아동교육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4. 교실의 공부방화

학급인구의 감소화에 따른 잉여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율학습장을 조성해 주었다.

가. 교실의 도서실화

학교도서를 학년성을 고려 분류하여 학급도서장에 비치하여 독서활동을 권장하고 독서좌담회와 독후감발표회도 갖게 하였다.

나. 교실의 자료실화

당해학년에 필요한 일반수업자료, 개별자료, 과학실험자료를 교실에 분산배치하여 학습시간에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다. 교실의 실험실화

각 교실마다 상설실험대를 설치하여 사전실험, 심화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관찰 안내와 함께 실험기구를 비치 활용케 하였다.

라. 교실의 재배실화

수중생물은 수족관에 기르며 관찰케 했으며 화분에 1인 1관찰 식물을 재배하여 계속 관찰 및 기록지도를 하였다.

5. 교장실의 교육상담실화

아동들이 학교나 가정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건의사항을 수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학부모들의 학교경영 및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교장실을 연중개방하고 있다.

Ⅲ. 실천결과

농촌 소규모 벽지학교는 교육여건의 열악성 때문에 교육 본질적 기능과 사회화기능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학교경영의 중핵을 교사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에 두고 아동들의 기본학습훈련 철저, 교사의 교수력증강, 학교경영 최우선을 교단지원에 두고 실천한 결과 아동들의 바람직한 학습습관과 점진적인 학력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전교직원의 집단의지에 의한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전교사의 부단한 자기연찬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의 발휘에 기인한 것이라 믿는다.

오늘도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는 제2세 교육에 힘찬 전진을 하고 계시는 우리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젊음은 두번 거듭 오지 아니하고 하루에도 두번 새벽이 있지 않나니, 젊었을 때에 반드시 학문에 힘쓰라.

- 도 연 명 -

남녀 아동의 對立關係 解消를 위한 학급경영

영천 중앙국민학교 교사 임 인 숙

1. 학급집단의 機能과 운영의 배경

가. 학급집단의 기능

(1) 학급집단의 보다 중요한 기능은 구성원인 아동의 社會化를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화란 개인적 행동에서 사회적 행동으로 발달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利己의 役割行動에서 他利的 역할행동으로 발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들은 그가 속하는 학급집단의 생활에서 人格이 재형성되어 간다. 집단기능은 그 집단이 갖는 文化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학급 또는 분단의 集團文化는 언어, 태도, 행동 등에서 나타나며 아동은 이 집단 문화의 創造者인 동시에 受容者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정이나 생각의 방향에 따라 가치기준이 달라지고 이러한 생활이 어느 기간 지속되면 그 특유의 氣風이 형성되는 데 이것을 집단 분위기라고 하고 그 感情反應은 비교적 공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동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 남녀 아동의 對立關係解消를 위한 학급경영의 동기

학급과 학급 사이에 또는 분단과 분단 사이에 자주 對立的인 감정이 일어난다. 이것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집단에 강한 同一視와 「우리」라는 감

정이 짝터서 自我關與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학급내의 남녀간의 대립도 흔히 있는 현상이다. 이것은 협소한 학급내의 문제라기 보다는 남녀의 인격적 평등이 未成熟한 우리 사회와 가정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남녀간 대립의 근본적인 대책과 교육적인 지도가 있어야 한다.

다. 운영의 대상 및 기간

(1) 대상

- 영천중앙국교 제3학년 1반
- 남 18명, 여 23명 (41명)

(2) 조직

- 7개의 학습분단 및 생활분단

(3) 실천 기간

- 1991년 3월 ~ 1992년 2월

3학년은 남녀 서로가 반항하고 다투는 일이 많아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며 특히 社會性的 발달면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놀림을 다하고 交友관계도 남녀가 구별되며 친구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의 아동에게 남녀간의 對立을 해소하는 지도는 교육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학급경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켜서 다루게 되었다.

2. 학급의 실태와 과제의 설정

가. 학급의 실태

본교는 소도시 시청 소재지의 시장주변이 아닌 학구에 소속한 학교로 생활정도는 여유는 없으나 대체로 자족하는 편이고 각 학년은 6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제가 담임한 학급 아동은 남자가 18명, 여자가 23명이다. 소시오메트릭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남자 아동 3명이 남녀 쌍방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으며, 여자 아동 1명이 여자 아동 전원과 남자 아동 일부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었다. 또 학급 전 아동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아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다.

「좋아하고」「싫어하는」관계에 대한 그 이유를 조사하여 본 결과 남자는 좋아하는 이유로서 「재미있다」「명랑하다」「사이가 좋다」가 優位를 차지하였고, 여자는 「친절하다」「사이가 좋다」「재미가 있다」가 두드러졌으며, 또 싫어하는 이유로는 남녀 아동 모두가 「폭력을 쓴다」「욕설을 한다」「견방지다」가 많았고 특히 폭력을 쓰는 것은 남녀 아동 모두가 싫어하고 있었으며, 소시오메트릭 테스트 결과로서 選擇과 批斥은 학급 중에서 특정 아동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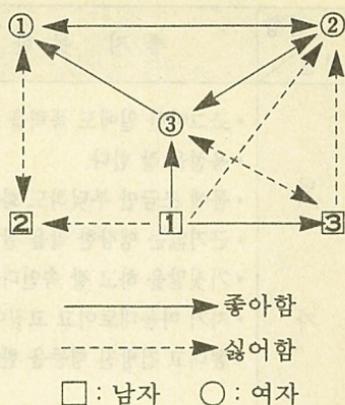
특히 中學年으로서 특징적인 장점인 「우리意識」을 잘 살려서 즐거운 학급 만들기에 힘을 쏟도록 했다. 그 후 1학기 중간쯤 학급의 남녀 상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意識調査를 실시하였다. 7개의 분단에 대하여 「여러분의 분단에서는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와의 사이는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사이가 좋지 않다」「자주 다툰다」라는 회답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사이가 좋다」「잘 어울리고 있다」라고 회답한 것은 매우 적었다. 그룹활동도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갈라져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에, 여자는 남자에 대한 상호신뢰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課題設定의 이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생각해 볼 때 학급의 구성원 상호관계 중에서도 특히 남녀간의 對立問題가 있고 그로 인하여 學習效果마저 저해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고학년으로 발전된다면 학급경영상 큰 장애가 되며 아동들의 人格形成 면이나 생활지도 면에서 또는 학급집단의 질적 향상과 학습활동의 正常化를 위해서도 빨리 그 대책이 세워지고 지도가 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 표는 학급아동 전원에게 남녀별로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얻어진 자료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1학기 중간)



학급 남녀 아동의 장단점

성향 성별	좋지 못한 점	좋은 점
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그마한 일에도 폭력을 쓴다. • 욕설을 잘 한다. • 몸에 조금만 부딪혀도 화를 낸다. • 근거없는 맹랑한 말을 잘한다. • 거짓말을 하고 잘 속인다. • 자기 마음대로이고 고집이 세다. • 뽐내고 건방진 행동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랑하고 재미가 있다. • 같이 놀아준다. •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한다. • 자기의 물건을 잘 빌려준다. • 힘이 드는 일을 잘 도와준다. • 모르는 일을 잘 가르쳐 준다. • 하기 어려운 일에 용기있게 나선다.
여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에게 잘 외어 바친다. • 잘 놀린다. • 남에게 곤잘 신세를 진다. • 작은 일도 큰 일인 것처럼 말한다. • 말을 비밀스럽게 잘 속삭인다. • 잘 운다. • 응을하며 호감을 기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절하다. • 자기 물건을 잘 빌려준다. • 성실하고 일을 깔끔하게 한다. • 애교스럽고 불입성이 있다. • 청소나 학급 일을 열심히 한다. • 정직하다. • 양보를 잘한다.

다. 과제 설정의 觀點

다음 과제는 연구를 통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를 檢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학급 남녀 아동의 對立 상태를 해소하고 상호 人間尊重을 통한 원만한 관계를 조성하여 학습 및 생활지도의 효과를 높이고 즐거운 학급 만들기를 위한 방안으로서 포괄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학급경영과 지도를 하기 위한 과제이며, 지도 결과도 계속적인 결과 평가 보다는 통찰에 의한 개관적인 평가를 해 보기 위한 것이다.

(1) 남녀 아동의 交友와 놀이 및 학습활동 등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

(2) 가정과 지역사회의 人間觀에 대한 문제를 탐색한다.

(3) 개개 아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급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4) 항상 流動인 학습집단의 남녀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고 관찰한다.

(5) 집단지도와 개별지도를 조절하여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한다.

(6) 남녀의 現象面에 나타난 대립상태를 內面的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7) 사회환경의 歪曲된 인습에서 오는 남녀의 차별관에 관심을 두고 지도한다.

(8) 담임 교사와 아동과의 인간관계의 개선에 노력한다.

3. 지도의 實際

가. 分團日記에 의한 지도

소시에메트릭 검사에 의한 지도를 위하여 分團을 편성하였고 남녀 아동의 대립과 갈등을 감소하고 親和의 농도를 짙게 하기 위하여 개개 아동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했다. 또 개개인 서로가 충분한 이해를 하는 데서 그 對立과 反發을 극복하고 학습집단의 응집성을 높여서 즐거운 학습집단을 길러 나가는 데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 아동으로 혼합된 6인조 분단을 구성하고 각 분단마다 분단일기를 작성 배부하여 매일 교대로 기록하도록 했다.

일기 내용은 담임이 과제를 제출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각자가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 아침 기록자가 담임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담임은 이것을 읽고 感想을 붉은 펜으로 기록하여 준다. 「朱書는 담임과 아동과의 마음을 교류시키는 架橋의 뜻으로 하고 있다.」이 분단일기를 기록시키는 목적은

(1) 일기를 돌려가면서 교대로 기록하고 읽고 하는데서 級友의 생활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2) 分團의 성원이 서로 일기를 통하여 친숙한 사이로 결속되기를 기대하고, 말로서는 하기 어려웠던 것을 기록에 의해서 전하여 상호 연관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며

(3) 담임이 학습 아동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칫하면 表面的인 행위에 의해서만 상대방을 평가하기 쉬운 아동에 대해서 분단일기는 級友들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窓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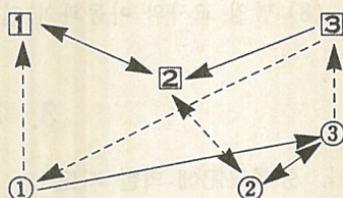
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도덕 및 사회교육을 통한 內面化 남녀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생각을 같이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내에 있어서는 남녀라는 對比의 시각에서 남녀를 초월한 하나의 人格體로 보는 眼目を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도덕시간과 사회시간에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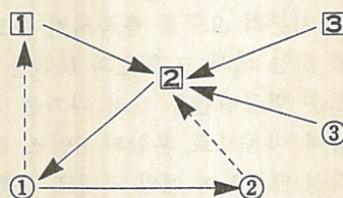
그 결과 2학기 中半에 가서 나타난 현상이 남녀가 서로 친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른 분단의 친구들과도 즐겁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3분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부럽다'는 등이 일기장에 기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는 학부모들의 소리에서도 '생일 때나 학교 후 친구를 집에 초대하는 데도 남녀에 구애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 것이 보기에 매우 좋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고 또 學習時間이나 청소 등 작업시간에도 서로가 이해하고 협조하고 친숙한 분위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학기〉



〈2학기〉



—————> 좋아함

- - - - -> 싫어함

□ : 남자 ○ : 여자

4. 결과 반성과 문제점

가. 바람직한 학급 분위기 조성

분위기란 어떤 極所에서 나온 것이 無意識 중에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담임과 아동이 격이 없이 어울리고 영커서 인간적인 共感이 형성되면서 즐거운 학급만들기의 전제가 되고 학급이 硬直된 분위기에서 解放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의 차별이 무너지고 모두가 정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장이 조성된다.

집단의 對話는 '무엇이라도 말할 수 있다.'는 단계를 만들어서 감정적

발언, 概念的 發言을 서서히 하도록 하고 이어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남녀 아동의 마음이 한 곳에 결집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단은 力動的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지도되어야 하고 집단내의 개인이 집단에 파묻혀 버리지 않도록 또는 특정의 개인이 집단을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나.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관련

학급은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그 背景이 되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상호 관계도 이와 관련을 생각하고 적절한 지도가 되어야 한다. 가정이나 지역의 남녀 차별 의식이 아동들에게 무의식 중에 스며들어서 그대로 학급에 반영될 때 가정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5. 結 論

학급의 남녀 아동의 대립 관계를 해소하고 인간 존중을 중심으로 한 학급경영을 위하여 학급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설정의 배경과 관점을 밝혀서 그에 따른 실천지도의 일 예를 소개하였으나 이것은 「외롭고 고립된 아동을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고, 고립되고 외로운 아동을 만들지 않는 학급경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실천은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신뢰받는 학급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담임도 한 인간의 위치에서 아동과 함께 즐기고 슬픔도 같이 나누는 반면 지도자로서 그들의 잘못이 없도록 안내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학급경영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때 각 학년과 학급에 알맞게 확산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經驗的 活動 強化를 통한 自律性 涵養

울진 죽변중학교 교사 정 한 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60年代 이후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짧은 시간내에 높은 경제 성장으로 국가적으로 풍요로운 社會가 건설되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서구 물질문명의 무분별한 수용은 민족성의 부분적인 상실과 價値觀의 혼란, 물질주의 팽배, 사회 각 분야의 단결력 약화등 새로운 社會問題를 초래하였다. 특히 국가의 전반적인 성장이 官 주도하에 추진되어 짧은 시간에 높은 성장을 이룰 수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自律性의 약화와 수동적인 자세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일의 꿈을 실현하고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깊숙히 침투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의로운 사회 창조를 위한 청소년들의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자질을 기르기 위해 개인, 학급, 학교, 고장이라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실제 사태 속에서 인식하여 내면화하고 現實에 적용하여 실천 행동으로 전이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II. 실천 과제

과제 1. 자율적 활동 분야 — 개인

가. 생활 반성장 쓰기

나. 내 집 가꾸기

과제 2. 자율적 활동 분야 — 학급

가. 자율 학습교실 운영

나. 학급 소식판 운영

다.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

과제 3. 자율적 활동 분야 — 학교

가. 자율 교통반 운영

나. 학교 공공시설물 이용 지도

과제 4. 자율적 활동 분야 — 고장

가. 애향단 활동

나. 향토 사례집 발간

Ⅲ. 과제 운영의 실제

과제 1. 자율적 활동 분야 — 개인

가. 생활 반성장 쓰기

1) 목적

가) 자신의 하루 생활을 반성하며 올바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의 문제를 올바르게認識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다) 現在의 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未來를 설계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행 방법

가) 생활 반성장 활용의 실제

○ 생활반성장 쓰기의 실례

月 생활 목표	반성요목	반성 내용	평가(日)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회 시간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 쉼영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분 기술 (예; 가정 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기술되도록 지도 • 잘못된 점, 잘한 점,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기술 • 형식적인 반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 학생 자율적인 평가하고, 담임 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月別 생활 반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나. 내 집 가꾸기

1) 목적

가) 자신의 가정에 대한 역할을 인식시키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기른다.

나)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기른다.

2) 실행 방법

가) 가정의 중요성, 가정윤리(효, 우애 등)에 대한 유인물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의 역할을 인식시켰다.

나) 한 가정-1화단 가꾸기를 통해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다.

다) 자기 가정의 가화(家花)를 정하여 꽃말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라) 학반별 10명씩 家花를 학급에 구성하여 교실 환경 및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켰다.

마) 우수학반의 실천사례를 發表함으로써 課題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다.

과제 2. 자율적 활동 분야 — 학급

가. 자율적 학습반 운영

1) 목적

가) 자율적인 학습을 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더불어 공부하는 教室을 만든다.

나) 학급 자율학습 운영에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矜持와 자신감을 길러 노력하는 생활 자세를 기른다.

다) 集團生活에 적극 참여하는 정신과 스스로의 責任을 다할 수 있게 한다.

2) 실행 방법

○ 자율학습 운영 일지의 실제

과목 및 학습내용	1. 사회생활과 예절 1) 인간관계와 예절	일시	1992. 4. 3	지도교사	정 ○ ○
학 습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 조를 구성하여 책임 운영(조장 외 4명) • 지도교사의 학습계획을 참고로 월별 자율학습 계획을 학생들이 참여하여 결정하게 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학습내용의 의문 사항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는다. 				
생 활 반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학습조 운영을 반성 • 자율학습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태도를 반성 				

나. 학급 소식란 운영

1) 목적

가) 학급 소식란을 통하여 학급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보도록 유도한다.

나) 급우들 간 관심을 증대시켜 우애심과 단결력을 기른다.

다) 선행사례 소식을 통해 옳고 옳치 못한 일에 대한 판단력을 기른다.

2) 실행 방법

가) 교실 전면에 (그림1)과 같은 학급 소식란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매월 첫번째 주 학급회 시간을 활용하여 월 생활목표, 실천사항을 결정하고, 생일자를 공개하고 게시하였다.

다) 학급회를 통해 급우들의 선행사례를 알린후 구체적으로 기록

하여 본받도록 하였다.

라) 선행 사례중 우수한 것은 전교생에게 알리고 시상하여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1. 학급소식란 예)

○月 생활 목표		선행 소개
실천 사항		
○月 생 일 자		

다.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

1) 목적

가) 자신의 意見 發表,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 및 合理的으로 판단하는 민주적인 會議 진행 자세를 기른다.

나) 학급생활을 즐겁고 풍부하게 개선하여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한다.

2) 실행 방법

가) 학년 초에 민주적인 회의 진행 요령을 숙지시켰다.

나) 학급회를 정기, 임시, 학급조회, 총회로 구분하여 학급회 활동을 확대하고, 학생 참여 기회를 강화하여 자율성을 강조시켰다.

다) 학생 全員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교사의 지나친 간섭으로 학생들의 참여 의욕이 무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과제3. 자율적 활동 분야 — 학교

가. 자율 교통반 운영

1) 목적

가)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그 필요성과 기쁨을 느끼도록 한다.

나) “나 하나 쯤”이라는 생각에서 “나 부터”라는 생각으로 질서 의식을 높인다.

○ 자율교통반 운영 일지

일시	1992. 3. 23 (07:30 ~ 08:30)	장소	활동	반	
	성명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별로 조를 구성하여 한달씩 책임 운영함으로써 학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일일 활동 내용을 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체계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 • 月 1회씩 학급회를 통해 반성하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주지 				
위반사항 및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교사의 실천가능한 방향으로 실천 · 개선함 				
생활 반성					

나. 학교 공공시설 이용지도

1) 목적

가) 학교를 내가 가꾸며, 학교 생활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주어 학교에 있어 역할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를 기른다.

나) 학교시설과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고, 정리하는 공중도덕을 몸에 익히도록 지도한다.

2) 실행 방법

가) 학반별 책임구역을 할당하고 학생들 스스로 청결과 정돈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나) 공공 시설물 사용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개선해 나가도록 반성의 시간을 주었다.

다) 매달 1회씩 학교 가꾸기날을 설정하여 실천하는 애교심을 길렀다.

과제 4. 자율적 활동 분야 — 고장

가. 애향단 활동 활성화

1) 목적

가) 자연부락 담당 지도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락 단위별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 역량을 기른다.

2) 실행 방법

가) 월 1회 전체 회의를 통하여 월 활동목표를 세우고, 지난 달의 활동을 반성하고 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교내 “애향단 소식 코너”를 운영하여 우수 수범 사례를 홍보 확산하였다.

다) 10월경 애향단별 주요 사업 결과를 전시하여 활동을 적극 유도하였다.

○ 애향의 날 실천 현황

종 별	실적	실 천 내 용	비 고
조기 청소	8회	마을 진입로 및 집 주위	
꽃길 조성	4회	마을 진입로 및 회관 주변	코스모스, 금잔화, 당국화등
자연보호활동	8회	자연부락 취약지구	폐비닐, 빈병→학교 일괄 수집→꽃씨분양

나. 향토 사례집 발간

1) 목적

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을 잘 알고 향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기른다.

나) 관광지 주민으로서의 향토 소개 능력과 올바른 예절생활 자세를 기른다.

2) 실행 방법

가) 방학기간을 통해 자신의 마을에 대해(유적, 유물, 인물, 관광지 등) 조사하도록 하였다.

나) 학급별 수합한 자료는 선별하여 복도에 제시하고 학년별 종합

적인 향토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다) 관광지 주민으로서의 생활예절교육을 통해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 관광지 주민의 예절

덕목	실천사항	덕목	실천사항
친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운말 사용하기 • 양보하는 자세 갖기 • 바른 자세 갖기 	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을 위하여 생활하기 • 하루 한 가지 이상 좋은 일 하기 • 희생하는 정신을 갖기
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기 • 거리질서 및 승차질서 준수하기 •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기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의를 단정히 하기 • 밝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생활하기 • 외래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IV. 실행 결과

과제 1. 자율적 활동분야의 실행결과

가. 생활 반성장 쓰기 - 하루 생활의 반성을 통해 계획적이고 노력하는 생활자세를 갖게 되었다.

(문제점 : 형식적으로 반성장 기록하는 문제 있었음)

나. 내 집 가꾸기 -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문제점 : 학교-가정의 접촉 곤란으로 협력관계 유지 곤란)

과제 2. 자율적 활동분야의 실행결과

가. 자율 학습반 운영 - 자발적인 학생 참여에 의한 학습으로 효과가 증대하였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문제점 : 일부 학생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있었음)

나. 학급 소식란 이용 - 급우들에게 관심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으며, 협력하는 학급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문제점 :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지도가 필요)

다. 학급회 운영의 활성화 - 민주적인 회의 진행 요령을 숙지하고, 문제

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제 3. 자율적 활동 분야의 실행결과

가. 자율 교통반 운영 - 질서의식을 생활화하고 봉사활동의 즐거움을 알게되었다.

(문제점 : 일반인들의 질서의식이 학생들에게 수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나. 학교 공공시설물이용 지도 - 교내 생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알고 공공시설물을 아껴 사용하게 되었다.

(문제점 : 교외생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필요)

과제 4. 자율적 활동 분야의 실행결과

가. 애향단 활동 - 자기 마을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되었으며,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

(문제점 :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적었음)

나. 향토 사례집 발간 - 향토에 대한 긍지와 관광지 주민으로서의 안내 능력 및 올바른 예절을 갖게 되었다.

(문제점 : 관광유흥업소에 의한 학생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이 필요함)

V. 제 언

1. 학생들의 自律性 교육은 개인 생활 주변의 내용들을 체계화하여 지도함으로써 스스로 필요성을 자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2. 도덕적 행위의 실천은 그 動機를 강화하여 내면화를 추구하고, 교내 생활이 교외생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이화하도록 노력하여야겠다.
3. 가정, 지역사회, 학교의 협력관계 속에서 효과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밀접한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수시로 반성하고 평가하여 수정·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幼兒의 全人發達을 助長 하는 授業方法 探索

慶尙北道 教育廳 獎學士 權 寧 日

I. 序 言

授業은 學習者가 特定한 目標에 到達할 수 있도록 學習者의 內的 外的 環境을 體系的으로 調整하는 過程이라고 한다. 이에 準하여 幼稚園 授業의 目標는 幼兒들의 全人的 發達을 助長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위한 授業 方法 探索이 重要하다.

따라서 質 높은 授業方法을 講究하기 위해서는 幼兒教育의 特殊性을 理解하여 指導프로그램을 構案하며 이를 바탕으로 實際 活動을 展開하고 評價하는 일이다.

本 論旨의 授業方法 探索은 創案이 아니라 現場授業의 問題點에 對한 改善方案이나 提言이다.

II. 幼兒教育의 特殊性

幼兒教育은 幼兒를 對象으로 하고 學校 教育이 教科나 學問中心인데 反하여 發達中心으로 그 特殊性이 있다.

첫째, 幼兒教育은 全人的 成長·發達을 돕는 것이 中核 活動이다.

幼兒期는 可望性이 豊富하고 成長·發達이 가장 旺盛하여 全人發達의 助長에 重點을 둔 教育을 한다.

둘째, 幼兒教育은 基礎教育이고 保育의 機能도 갖고 있다.

幼兒教育의 基本目標를 基本生活 習慣形成에 두고 幼兒를 保育하며 心身의 發育을 助長한다.

셋째, 教具를 活用하는 놀이中心 活動이다.

豊富な 教具를 提供하여 活潑한 놀이活動이 展開된다.

넷째, 幼兒教育에서는 環境을 重視한다.

幼兒期는 模倣性이 强하여 選擇活動이 많아 適合한 教育環境을 提供한다.

다섯째, 幼兒教育은 父母教育이 必須的이다.

幼稚園 教育은 家庭과 連繫되어야 하므로 父母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授業의 過程

幼兒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와 直結되며 特히 幼稚園 授業은 指導프로그램이 授業內容인 同時에 授業活動이다. 따라서 指導프로그램 作成에 대하여 言及한다.

1. 幼兒發達에 맞는 指導프로그램 構案

프로그램 作成의 根據는 教育課程이다.

幼稚園 教育課程은 生活經驗을 통한 發達領域에 두고 있으므로 幼兒發達에 適合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1) 表現的 目標 陳述

教育目標는 授業活動을 통하여 變化된 行動特性을 具體的으로 陳述한 것이다.

初·中等學校에서는 教科別 目標로 分類하나 幼稚園 授業에는 幼兒期 發達の 行動特性으로 記述하기에 教育活動이 끝난 뒤에 ‘얻어지는 結果’로서 表現的 目標로 陳述함이 妥當하다.

이에 대하여 아이즈(E. Eisntr)는 表現的 目標의 條件으로 ①學習해야 할 狀況 ②부딪힌 問題, ③解決하는 方法, 課題이다.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재미 있었던 것을 이야기 나눈다.’에서 學習해야 할 狀況은 ‘동물원에서’, 克服해야할 問題는 ‘재미 있었던 일’, 參與해야할 課題는 ‘이야기 나눈다’이다.

예를 몇개 더 들면 ‘①퍼즐놀이를 ②신체 각 부분을 맞춰서 ③이름을 말한다.’, ‘①철사를 이용하여 ②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③세워 놓는다.’

(2) 프로그램 構案의 特性

첫째, 프로그램은 系列性과 發達水準에 맞아야 한다.

둘째, 狀況에 따른 融通性있는 프로그램을 作成한다.

一般的으로 幼稚園 活動이 登園, 選擇活動, 間食, 이야기 나누기, 作業 活動, 評價, 歸家指導 等の 活動으로 進行되나, 終日班 運營, 日氣의 變化, 季節性을 考慮하여 融通性있는 活動이 되도록 構成한다.

셋째, 地域特性을 살리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幼稚園 授業에 多様な 資料가 많이 投入·活動되기에 그 地域의 多種 多様な 資料가 活用되어야 한다. 그 地域 自然資源은 물론 人文資源도 活用되어야 한다. 例를 들면 農工團地의 見學 活動도 重要하다.

2. 授業方法 探索

(1) 幼稚園 授業의 特殊性

幼稚園 授業은 學級授業과 같이 特別한 授業·學習 模型이 없고 幼兒 活動中心으로 進行되기 때문에 授業의 特殊性을 認識하여 適用하고 教授의 一般的 原理를 探索하여 適用하는 것이 幼稚園 授業方法이고 節次이며 授業-學習過程이다.

(2) 幼稚園 授業의 特殊性

① 統合性

幼兒期 學習은 教科처럼 협소하게 定義될 수도 없고 分析的 明示的 用語로 提示하는 것이 어렵다. 幼兒의 發達과 學習이 統合되어 發達水準에 맞게 統合的으로 各 領域에 提供된다.

人間發達 그 自體가 統合的 全體의이며 情緒, 社會, 認知, 身體, 言語 發達の 5個 領域 分類도 概括的인 區分이다.

資料 하나라도 5個 領域의 統合的 觀點에서 活用되어야 한다. 例를 들어 一日 生活主題가 '단풍 잎' 이면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言語領域이고, 단풍잎 수를 세고 관찰하는 活動이 認知이며, 단풍잎 늘어놓기와 모양 그리기로 情緒的, 신체적 활동으로 모양을 나타내어 身體的 活動, 서로 도와서 단풍잎 많이 갖기 게임으로 社會的 活動이다.

② 相互作用性

多様な 教材, 教具의 活用과 周邊 環境에 대한 探索活動에서 幼兒-幼兒間, 幼兒-教具間, 幼兒-環境間, 幼兒-教師間의 相互作用으로 幼兒의 發達이 이루어 진다.

好奇心과 探索活動이 幼兒스스로 일어나도록 資料 提示와 環境이 造成

되어야 한다.

③ 多樣性

幼兒들을 注意 集中力이 적으며, 活動的이고 成就的이다.

幼稚園 授業은 多樣的인 活動이고 多樣的인 教具를 活用한다. 한편 하루의 日課도 變化있고 多樣하게 運營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探究의 欲求가 높아 教師에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生活 全體속에서 배우게 된다. 따라서 意問的인 環境 造成이 重要하다.

(3) 授業方法 探索

前述한 幼稚園 授業의 特殊性에 바탕을 둔 授業의 一般的 原理를 適用한 授業方法을 探究한다.

① 幼稚園 授業은 具體的인 것에서 推想的인 學習으로 進展

幼兒는 未分化期이므로 具體的인 것에서 推想的인 것으로 展開되어야 한다.

具體的이란 現在 보이는 事象과 事物의 世界이고, 推想이란 實物에 대한 象徴이고 事象에 대한 表象 또는 提案하는 아이디어를 뜻한다. 따라서 學習活動과 資料는 具體的이고 實際的이며 幼兒의 生活과 關聯된 것이어야 한다.

推想性的 段階는 데일의 經驗의 圓錐과 같이 具體性→半具體性→象徴化的 過程이다.

具體性은 實物을 만지고 操作할 수 있는 資料이고, 半具體性은 小形의 模倣 物體이며, 象徴化는 物體의 映像이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강아지'는 具體的이고, '봉제의 소형 강아지'는 半具體的이며, '강아지의 짖음과 동작의 모방', '개'라는 단어는 象徴化이다.

行動의 經驗은 授業媒體 活用 可能性에 비추어 經驗의 具體性的 程度에 따라 直接經驗, 考案된 經驗, 劇化經驗으로 區分된다. 여기서 考案된 經驗은 간단한 模型 모델 등이 속한다.

(4) 幼稚園 授業은 能動的 選擇經驗 提供

幼稚園 授業에서 幼兒의 自律的인 選擇 活動(興味코너)의 機會가 提供된다.

이를 위해 ①選擇할 수 있는 多樣的인 活動과 教具를 準備하고, ②個別 또는 小集團別로 參與하도록 選擇權을 주며, ③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幼

兒를 도와주며, ④自己가 選擇한 活動을 通하여 幼兒 스스로가 經驗한다.

選擇活動 領域을 均衡의으로 活用하도록 誘導한다. 特히 '目的없는 놀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흔히 自由놀이 시간으로 放任하거나 教師와 相互作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改善되어야 한다. 여기서 教師의 關心과 熱誠으로 團體活動이 이루어질 때, 바로 幼兒中心, 興味中心, 人間中心의 選擇活動이 展開된다.

(5) 幼稚園 授業은 均衡있는 活動展開

幼稚園에서 하루의 프로그램은 活動의 均衡을 考慮하여 調和있게 運營되어야 한다. 卽 室內-室外活動, 靜的-動的活動, 大筋肉-小筋肉 活動, 小集團-大集團 活動, 兒童主導-教師主導 活動 等の 均衡이다.

例를 들면 室外 모래놀이를 하였으면 教室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이어지고, 간식시간이 끝났으면 다음은 음률시간으로 이어지면 活動의 成果가 높게 된다.

活動性, 持續時間, 幼兒의 疲勞度, 資料活用 等を 考慮한다.

(6) 幼稚園 授業은 探究活動의 活性化

幼兒들은 周圍의 環境이나 事物에 대하여 驚異心과 好奇心을 갖고 끊임없는 探究活動을 한다.

特히 幼兒期 思考의 特徵은 物活論的 思考로 모든 事物이 生命을 가지고 살아 있어서 對話가 可能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例로 어린 이들은 人形을 가지고 놀면서 自言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幼兒期에 教具에 探究心を 갖고 接近하도록 構成하거나 未完成 資料로 提示할 必要가 있다.

(7) 課題分擔의 協同學習 助長

小集團別로 課題를 주어 共同 努力으로 解決하도록 하거나, 또는 協同 製作을 하며, 때로는 小集團間의 게임놀이도 한다.

重要 活動으로는 探索活動, 構成活動, 劇化活動, 게임活動 等이 있다.

教師役割로는 活動主題, 目標, 類型, 集團規模를 定하고, 活動方法을 幼兒들과 의논하여 定한 다음에, 能力에 맞도록 課題를 分擔하며, 集團을 組織한다.

活動이 終了된 後에 各小集團別로 느낌을 發表하도록 機會를 준다.

IV. 授業方法 探索에 대한 提言

前述의 內容은 幼稚園 授業方法 探索에 대한 既存의 一般化의 內容을 體系의으로 整理하고 所見을 包含하여 紹介한 것이며, 本章에서는 幼稚園 現場授業參觀, 幼稚園 教師 現場研究大會 參觀, 授業發表會 指導案 作成 審査, 併設幼稚園 經營, 平素의 幼兒教育에 대한 見解 等を 統合하여 授業方法 探索中心으로 所見을 提言한다.

1. 幼稚園 教育課程 根據를 明確히 한 授業

幼兒教育 內容의 뿌리는 教育課程이니 授業計劃이니 展開는 勿論, 研究, 行事, 유치원 및 학급의 經營 等 幼兒教育 運動은 교육과정에 根據하여 實施되어야 幼兒教育의 나무는 茂盛하게 자라고 結實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幼稚園 自體 獨特한 프로그램을 構案, 適用하여도 그 根據는 幼稚園 教育課程에 두어야 한다.

2. 幼稚園 授業過程에서 指導프로그램

構案→環境造成→幼兒理解→活動指導→評價段階의 適用

幼稚園 授業-學習模型은 現在 開發되어 있지 않으나 初·中等學校의 教授·學習模型을 參考하고 幼兒教育의 特殊性에 비추어, 幼稚園 授業의 過程은 指導프로그램 構案段階→環境造成段階→幼兒의 理解段階→活動의 指導段階→評價段階를 提案한다.

指導프로그램構案 段階에서는 幼稚園 教育課程에 根據하고 地域特性을 勘案하여 年, 月, 週計劃 및 日日計劃을 構案한다.

環境造成 段階는 幼兒들이 教科書가 없기 때문에 教材, 教具를 充分히 確保하여 配置하고 適한 環境을 造成한다. 室內뿐만 아니라 室外環境도 造成한다.

幼兒의 理解에서는 幼兒의 健康, 家庭 雰圍氣, 當日 活動과 관련된 既存의 知識, 發達程度 等を 事前에 把握한다.

活動指導의 단계에서는 幼兒中心의 活動이 展開되도록 助長하고 相談하며 案內 또는 助言한다. 한편 計劃대로 進行되도록 한다. 特히 不振幼兒는 個別 指導를 한다.

評價의 단계에서는 幼兒스스로 反省하도록 機會를 提供하고 教師 自身은 프로그램 運營의 評價, 幼兒의 成就度 評價, 指導方法의 評價를 하며

幼兒의 個別 成就度나 行動觀察 記錄을 整理한다.

한편 家庭學習, 學父母 앞으로 家庭通信 等の 活動을 한다.

3. 發達水準에 따른 指導프로그램 構案과 適用

就園年수가 3세로 擴大됨에 따라 第6次 教育課程을 基準하고 새로 開發된 教育部 指導資料를 參考로 하여 年수에 따른 發達水準을 考慮한 指導프로그램을 作成하여 適用한다. 이를 위해 本道에서는 6個地區로 分擔하여 '92년에는 1學期分, '93년에는 2學期分을 發刊, 普及하도록 推進하고 있다.

4. 基本生活禮節 習慣指導의 充實

基本生活禮節의 基本德目中 清潔은 健康生活 領域에서 禮節, 秩序, 節制, 環境保全是 社會生活 領域에서 集中 指導하되 日常生活에서 持續的으로 反復指導하여 習慣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5. 教材, 教具의 意圖의 體系的인 活用

教材, 教具가 百貨店의 商品처럼 展示하여서는 되지 않는다. 資料室에 保管하고 當日, 또는 그 週間에 必要한 것만 提示되어 活用한다.

變化있고 體系的으로 活用되어야 好奇心을 갖고 接近하고 探索한다. 그리고 成長, 變化하는 觀察資料에 好感이 간다.

教材, 教具를 資料室에 保管할 때는 活用과 管理에 容易하도록 單元別, 또는 領域別 및 月別, 資料 特性 및 水集別 等 幼稚園 與件에 맞게 分類한다.

廢品廠도 設置하여 教材, 教具 製作에 活用한다.

6. 놀이活動 中心의 授業

第6次 幼稚園 教育課程의 構成 重點에서 '놀이 중심의 教育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와 같이 教育課程의 基本要素가 놀이이며 授業活動의 大部分을 차지하고 또한 教育的 影響力이 크다.

놀이를 通하여 幼兒의 發達을 圖謀하기 때문에 놀이에 必要한 資料, 領域, 施設의 質 높은 環境을 構成해야 한다.

놀이에 있어 教師의 適切한 介入과 促進으로 放任이 아닌 目的있는 놀이가 되어야 한다.

V. 結 語

幼兒教育의 目的은 基本生活習慣 形成의 바탕에 全人發達을 圖謀하는 데 있다.

이의 目的 到達의 捷徑은 授業方法의 探索에 있으므로 이를 위해 多角의 探索하였다.

探索의 結果, 幼稚園의 質높은 授業의 方法은 다음과 같다.

첫째가 教師 自身이 幼兒教育의 特殊性을 깊이 認識하여 授業方法 改善의 意志를 굳게 가지고,

둘째, 發達水準에 適合하고 系列性, 融通性, 地域性을 살리는 指導프로그램을 構案하여,

셋째, 幼稚園 授業의 特殊성과 一般의 原理를 適用함으로써 훌륭한 授業이 展開된다.

幼兒教育의 特性은 發達助長과 融通性, 多樣性에 있으므로, 幼稚園 授業은 活動을 重視하고, 狀況에 따라 融通性있게 運營하며, 相互作用 中心의 統合的인 教授方法으로 한다.

幼稚園 教師는 어린이의 눈을 보고 어린이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어린이의 귀로 事物을 들을 줄 알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느낄 줄 아는 知識과 能力 그리고 教育觀이 最高의 授業技術이라고 한다.

창조적 표현과 지식에서 기쁨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사의 으뜸가는 기술이다.

— A. 아인슈타인

人間中心 教育課程 運營을 爲한 自由選擇活動

진보국교 병설유치원 원감 송 옥 화

I. 머리말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경제적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이 되어,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던 시대는 옛 이야기이며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충격적인 일들이 누구나 무감각해 질 만큼 비인간화 되어가며, 인간이 되어야 한다던 옛 어른들의 교육관은 사라지고, 공부만 잘하여 경쟁에서 이겨주기만을 바라는 뿌리없는 교육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고 걱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인간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진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교육계에서는 人間中心 教育課程을 중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인정하고 최대한 계발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유치원 교육의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자율성과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자유 선택 활동을 함으로써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많이 접근하리라 본다. 유아 자신의 흥미나 발달정도에 따라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해 볼 수 있어서 책임감과 함께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이 함양될 수 있으며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흥미와 희열감을 느끼므로 창의력 탐구력의 개발에도 효과적인 수업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 선택 활동이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대부분 유치원에서는 이 시간이 자유방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자유 선택 활동이 왜 방치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천지도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Ⅱ. 자유 선택 활동의 방향

1. 자유 선택 활동의 교육적 가치

1) 자율성을 기를 수 있다.

각 유아가 그날 놀이방에서 활동할 것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계획한 활동이기 때문에 신나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할 일을 찾는 자율성이 길러진다.

2) 민주 시민의식이 길러지며, 기본생활습관이 강조된다.

다른 유아들과 어울려 놀이해야 되며 자기가 가지고 논 놀잇감을 정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개별지도 하므로 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고 질서를 지켜야 하며, 자유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3) 창의력 탐구력의 개발

유아가 선택한 놀이방에서 조작하고, 탐색하고, 냄새맡고, 만져봄으로써 마음껏 개성을 신장하고 창의력 탐구력을 개발할 수 있다.

4) 자아존중감이 길러지며 개인의 수월성이 인정된다.

성취수준이 개개인의 수준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월성이 인정되고 각자 남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기 다른 표현이 인정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2. 효과적인 자유 선택 활동의 전제조건

1) 수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구성이 되어야 한다.

2)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친구들과 같이 사이좋게 사용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물건을 소중히 하고 차례를 지키게 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불편함을 알도록 해야 한다.

5) 각 놀이방에 들어있는 교구나 놀잇감의 활용방법을 알도록 해야 한다.

6) 유아 발달에 맞게 단계적으로 놀잇감을 제시하고, 단순한 활동에서 점차 확산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7) 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지도가 있어야 한다.

Ⅲ. 현장의 실태

1.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자유 선택 활동을 알차게 하려면 끝없는 연구와 자료제작 및 수집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의 어려움 때문에 단순한 지식 중심의 활동을 하거나, 자유 선택 활동을 한다고해도 형식적이고 방임적인 경향이 많다.

2. 각 놀이방에 투입되는 자료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주제와 시기에 맞는 자료투입을 해야 하므로 적기에 최적의 투입 자료를 수집,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시간 부족과 경비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3. 대부분의 유치원에 기존 자료를 보관, 관리할 장소가 없다.

자료실이 없어 기존의 자료를 보관, 정리하기 어려우며, 시기나 주제에 맞는 자료의 활용이나, 적절한 시기에 투입될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4. 부모의 그릇된 요구에 따르기 쉽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유치원 교육으로 문자해득이나 그림 등 국민학교 입문과정의 능력을 요구하는 외형적 결과를 원한다.

5. 상호 수업 참관의 기회가 적다.

일선 교육청 단위의 시범 유치원을 정해 놓고 1년에 한번 가서 보는 것은 형식에 그치기 쉽다.

6. 교사 1인당 맡겨진 유아 수가 많다.

한 학급의 유아수가 많아 개별적으로 유아들을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보조교사도 없다.

IV. 해결 방안

1. 교사 연수 기회 확대

자유 선택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의 소양과하고자하는 의지의 결여가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교사연수를 실시하여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며, 교사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기회가 되며 또한 더 나은 교육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의 기회가 된다.

2. 자료제작의 활용

유치원 교사는 끊임없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부득이 시간이 모자라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주위에 있는 돌, 풀, 종이 등 교사의 자료 선택의 능력과 제작 및 수집 등의 기술을 높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료를 많이 개발하여 대량 생산되어 활용할 수 있었으면 교사의 힘을 덜어 줄 수 있겠다.

3. 자료실의 확충 및 정비

자료실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유치원 사정상 그렇지 못할 때는 좁은 공간이라도 장소를 할애하여 연간계획에 따른 월별 주별 투입할 자료 목록표를 만들고 자료에 조건표를 붙여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모교육의 계도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유아들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를 짊어졌다든 자부심으로 부모를 계도하고 교육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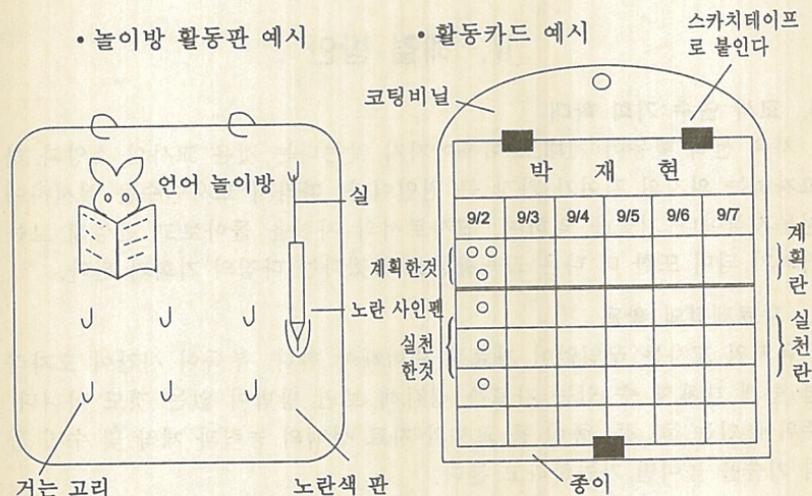
5. 1년에 한번 이상 교사 자신의 수업 공개

모든 교사가 자기 수업을 1년에 한두번 정도 공개함으로써 시도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실제 경험할 수 있으며 수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정보 교환의 기회가 된다.

V. 자유 선택 활동의 실천 사례

1. 놀이방 활동판 및 활동카드 작성활동

각 놀이방마다 다른 색깔로 활동판을 만들고 활동판 색과 같은 싸인펜을 걸어 둔다.



2. 활용방법

1) 유아 활동

① 활동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놀고 싶은 놀이방마다 가서 계획난에 놀이방 색깔에 따라 여러가지 색으로 점을 찍어 놀이 계획을 한다.

② 계획이 끝나면 계획한 놀이방에 가서 활동카드를 활동판에 걸어 놓고 활동한다.

③ 다른 놀이방에서도 같은 놀이 방법으로 활동한다.

④ 자유 선택 활동이 끝난 후 자기의 활동 카드를 보고 유아 스스로 활동한 것을 평가해 본다.

2) 교사활동

① 교사는 활동카드 용지를 월요일에 코팅비닐로 된 활동카드 밑판에 붙여주고 1주일 활동이 끝나는 주말에 떼어 보관한다.

② 활동카드에 나타난 결과를 일람표에 표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유아 개인의 흥미, 개성, 문제점을 찾아낸다.

③ 다음 활동시 그 결과를 활용한다.

3. 유의점

1) 활동카드의 활용은 유치원생활이 좀 익숙해진 5월경부터 활용한다.

2) 활동카드 활용방법을 먼저 익숙하게 익히도록 해야 한다.

① 활용방법을 빨리 익힐 수 있는 유아부터 몇명씩 먼저 지도한다.

② 지도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유아는 자모 중에서 보조교사로서 활동 카드 활용방법에 대한 유아지도를 도움 받을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 정도 아침 자습 시간에 몇명의 6학년 어린이와 1대1로 짝지어서 활동한다.

③ 활동판에 달린 싸인펜을 사용후 싸인펜 뚜껑닫기 지도를 꼭 해야 한다.

4. 활용결과

1)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활동하려고 노력하였다.

2) 방관하는 유아가 없고 놀이에 몰두할 수 있었다.

3) 영역별로 골고루 활동하였다.

4) 활동 후 정리정돈 하므로써 질서의식과 책임감이 높아졌다.

5) 놀이 규칙을 이해하며 지켜야 함을 알게 되었다.

6) 놀이활동을 통해 탐구력 창의력이 개발되었다.

7) 놀이 및 자료의 다양성으로 논리적 사고력이 길러졌다.

8) 시간 활용을 적절하게 하는 계획성이 붙었다.

5. 자유 선택 활동 프로그램(예시)

월·주	10-3				주활동 주제	가을의 변화	
일	1(일)	2	3	4	5	관련자료에 대한 설명	
활동주제	가을의 변화	가을곡식	가을채소	가을과일	추 수	자료 번호	10-3
제목	가을 동산 꾸미기	논밭 꾸미기		과수원 꾸미기		각종 제목과 소품	
언어	3-8 계절의 변화 3-3 식물 낙엽의 종류 스크랩북					유아 교육 그림책 3-8, 3-3	
조작	낙엽분류 꾸미기	곡식담아 보기		과일단면 관찰하기	낙엽떼기	낙엽분류하기(빨강, 노랑, 고동색, 낙엽종류와 색종이, 접시3개) 낙엽떼기(낙엽카드, 비닐끈, 플라스틱 번호판)	
작업	손바닥 모양으로 찍어 단풍잎 만들기	허수아비 만들기	고구마 찍기	과일 만들기	낙엽 구성하기	1. 플라스틱 손가락(꼬모) 색종이, 풀, 싸인펜, 가위 2. 고구마, 스타프, 도화지 3. 여러종류의 낙엽, 수수깡	
과학	은행잎 단풍잎 관찰하기	여러가지 곡식 분류하기		과일씨앗 관찰	벼와 쌀의 비교	• 은행잎, 단풍잎 • 여러가지 곡식, 과일, 채소 • 벼와 쌀	
수	사과와 사과나무	감 주사위 놀이		사과와 바구니	숫자만 큼 놓아보기	• 사과나무, 숫자카드 • 감, 주사위, 판 • 낙엽 그림판(떨어진 낙엽 수 찾기)	
소꿉	인형극 놀이			과일 차리기		• 인형극(손장갑 인형) • 여러가지 접시, 과일(실물, 모형, 과일)	
음률	같은소리 찾기	징, 장구, 팽과리치기				• 징, 장구, 팽과리 • 곡식으로 만든 마라카스	
실의	제기차기		줄넘기		제기차기	• 제기, 줄넘기 줄	

Ⅲ. 맺으며

아무리 훌륭한 교육정책을 세우고 그 구현방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일선 교사의 수준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자유 선택 활동이야말로 21세기를 향한 선진교육의 내용과 방법인 줄 알면서도 교사들의 의욕과성의 부족으로 자유 방임 놀이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일선교사의 부단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자유 선택 활동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유아들의 자율성과 수월성은 신장될 것이며 결국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식물을 기르는 농부라도, 아무리 뜨거운 띄야별 아래서도 기르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을 기르는 우리 교사의 노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작은 꽃을 만드는데도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다.

— W. 블레이크

모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욕구파악, 학교교육과정 편성계획수립(예: 조직 및 역할, 관련문헌, 정보분석, 예산편성, 협력기관 협조 등), 학교교육과정 발전방향(예: 개념 및 형태, 학교교육과정 개편과정과 전망, 관련 기초연구 결과 및 시사, 새학교 교육과정 편성방향 등)에 대한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2. 편성계획의 작성 및 검토

학교교육과정 편성의 조직과 역할, 절차와 과제, 예산편성계획 작성과 심의·결정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학교교육과정 목표설정 단계

새 교육과정 기준목표와 학교목표의 관련탐색, 학교교육과정 목표설정의 기준 및 목표를 설정한다.

4. 활동영역별 목표의 설정

교육과정 기준의 목표와 학교특성과의 관련, 영역별 목표설정 기준, 영역별 목표(교과(생활)활동영역, 요육(생활적응·재활훈련)활동영역, 직업활동영역, 특별활동영역, 기타 학교나름대로 특별히 설정한 영역)를 설정한다.

5. 편제의 검토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 교육과정 '기준'의 편제에 기초한 학교교육과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6. 활동영역별 내용선정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새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내용에 기초하여 학교교육과정 활동영역별 주요내용을 선정한다.

- 1) 학교교육과정 기준의 내용과 학교 특성과의 관련 탐색
- 2) 내용선정의 기준
- 3) 영역별 주요내용
 - a) 교과(생활)활동 영역
 - b) 요육(생활적응·재활훈련)활동 영역
 - c) 직업활동영역
 - d) 특별활동영역
 - e) 학교 나름으로 특별히 설정한 영역(있는 경우)

7. 시간배당 기준의 조정

학교의 특성탐색 및 새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을 조정한다.

8. 활동영역별 연·월간 지도계획표 작성

활동영역별 연·월간 지도계획 양식결정 지도계획을 작성한다.

1) 연·월간 지도계획 내용 및 표양식 결정

2) 활동영역별 연·월간 지도계획표

a) 교과(생활)활동영역

b) 요육(생활적응·재활훈련)영역

c) 직업영역

d) 특별활동 영역

e) 기타 영역

3) 활동영역별 지도계획의 연·월·주간별·지도순서별 종합지도계획표 작성

9.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학생·교육과정·IEP등의 평가계획과 학교교육과정 개선계획을 작성한다.

Ⅲ. 特殊學校(級)水準 教育課程 運營方向

아무리 잘 계획되고 편성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수준 특수교육과정이 처음 도입·시행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일반학교 또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참고로 함이 마땅하다.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운영상 고려점들을 간추려 보면,

첫째, 교사가 자율적·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역동적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실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예컨대 요육, 직업지도, 부모교육, 지원체제 등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구체화된 내용체계를 가져야겠다는 점이다.

셋째, 장애아부모의 권익제고와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부모교육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이상의 고려점에 유의하여 특수학교(급) 학교수준 교육과정 운영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침 작성

운영의 원활성, 자율성, 협동성, 탐구성등을 고려하여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역동적·질적운영 방침을 설정한다.

2. 학교교육과정 운영조직

인적, 물적 가용자원을 세밀하게 파악·조직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

- 1) 인적자원의 파악과 조직
- 2) 물적자원의 파악과 조직
- 3) 교육과정운영의 업무분장과 주요과제
- 4) 필요예산 및 집행계획
- 5) 지역사회의 가용자원 활용계획

3. 학교교육과정 연간운영 계획 작성

교육과정 연간운영 계획과 그 진행표(flow-chart)를 작성·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 1) 연간운영 계획표
- 2) 연간 운영의 진행점검표
- 3) 연간 주요 교무 행사별 계획

4. 활동영역별 운영계획 작성

교과, 요육, 직업, 특활, 기타, 주요활동영역별 세부운영 계획을 작성·활용한다.

5. 기타 운영계획 작성

특수학교 나름의 특수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과 운영계획을 작성·활용한다. <예: 판별계획, 부모교육, 교원연수계획·개별화교육계획(IEP), 지원체제, 시설설비·교구 교재의 활용과 개선 등)

IV. 結言

이상에서 제시한 특수학교(급)수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향은 편성

및 운영상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으며, 각학교에서 좀더 창의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학교수준 교육과정은 종래 교육부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해 주던 교육과정에 비하여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특수성, 아동 및 학부모의 욕구등을 반영하여 각 학교(급)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는 실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감안할때, 담임교사나 몇몇 전문가 또는 학교로서만 계획된다면 졸속에 그칠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첫째,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향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도, 시·군교육청 장학담당자를 포함한 교육과정 전문가 집단과 학계 전문가, 교육부 전문가, 현장교사들의 경험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편성, 운영,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일반적 편성과 운영 절차모형에 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셋째, 학교수준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시·도에서 제시한 '지역교육과정 지침'과 연계성있게 작성하도록 하되, 이들 기준에서 제시된 추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화하여 사용에 편리하게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므로 일반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분리(시간제 또는 전일제)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수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은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의 창의성있는 개선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參考文獻

- 경기과학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 서울 : 세창문화사, 1987, 外 다수.

殺身成仁의 본이 된 최환정군

지난 92년 7월 9일 16:20분경에 일어난 일이다. 고령군 우곡면 객거리, 낙동강과 회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강에서 우곡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던 故 최환정君이 같은 반 학생인 전상채君의 생명을 구해 주고 그 자신은 힘이 부쳐 드디어 익사하고 말았다.

그날 환정군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15:00경 귀가하여 이웃 급우 세 사람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 강가에 나갔다. 네 사람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 그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상채君이 물을 먹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환정군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상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가면 같이 빠질 것 같아 물 속으로 들어가 상체의 발목을 잡고 떠밀어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최군은 힘이 빠져 물을 먹었고 그로 인해 정신을 잃고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나오지 못하였다. 밖에 나온 세 사람은 최군이 물거품을 몇 번씩 일으키더니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야 “사람살려 주세요—”하고 외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 소리를 듣고 뱃사공과 마을 어른들이 급히 뛰어왔지만 그들이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그는 자취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어른들이 뒤늦게 사대를 휘저어 겨우 그의 시신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본을 큰 교훈으로 남기고 떠나간 것이다. “오호 통재라!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꽃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불귀의 魂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 두살의 어린 꽃봉오리가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 저 멀리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의 한결 같은 통곡이 산울림으로 메아리치고 있었다.

고 최환정군은 고령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잡은 낙동강과 회천강의 합류 지점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포리인 후동에서 慶州 崔氏인 태수氏와 광경순氏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하여 태어난 어린이로서 화목한 가정에서 건강한 체격을 갖고 튼튼하게 자라났다. 성격도 체격과 같이 강직하고 착실하였으며 인사성이 있어 늘 마을어른들로부터 칭찬을 한 몸에 받았다. 또한 學校生活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며 다정다감한 성품 탓에 어려운 일에 처한 급우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도와 주길 좋아했다. 4·5학년 때는 학교 육상부에서 열심히 활동하여 달리기, 던지기선수로 뽑혀 모교를 빛냈으며 금년 6월에 열린 군내 씨름대회에서 준우승의 영광을 차지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앞날이 촉망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우리 곁을 속절없이 떠나가 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 社會는 高度의 産業化에 따른 外來文化의 유입 등으로 우리의 傳統 倫理는 흐려지고 미풍양속이 퇴색되어 요즈음은 물질만능주의·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오로지 자기 자신의 利益과 편리만을 주장하는 이 시대이다. 이러한 때 故 최환정군은 남을 위하여 자기자신을 바친 거룩한 일을 하여 우리 社會에 한줄기 밝은 빛이 되어 우리들 가슴 속에서 빛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최환정군은 우리 모두에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倫理를 일깨웠고 그 일깨움은 이 사회에 빛이 되어 우리 國家와 民族 번영을 기약할 것이다.

고령군에서 최환정君의 이 거룩한 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추모비를 세우고 그 업적을 길이 길이 간직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과 우리의 後孫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여 이 고장에서 남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도록 하고자 함일 것이다.

故 최환정 어린이의 훌륭한 영령에 명복 있길 빈다.

자료제공 : 우곡국민학교

기록 : 권 기 환

삼 복

금릉 구성국민학교 교사 이 의 주

七夕이 다가 올 무렵은
하늘이 불이었다.

그대와 나의 오작교가 해무리로 쌓이더니, 펄펄 끓는 신열로 만장 펄럭
이는 거리 거리를 헤집고 다니더니, 수은주가 백기를 들고 급기야 칼을
간다. 별경계 칼 끝을 달궈 마구 휘두른다. 都市는 뜨겁게 火印되어 또
한장 접힌다.

가열된
女人의 스타킹은
무릎까지 흐르고.

연 서

구미 신평국민학교 교사 이 시 백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 위하여
안개꽃 한 다발을 보내겠다. 그대여
목청껏 네 이름 부르고 싶어도
들쳐보면 적당한 내 악장을 감추고 싶어
덩그런 백지 한 장 말기려하네. 그대여
안개꽃 같은 그리움이여
아직도 그대가 기다려준다면
나 튼튼한 조선의 사내로 돌아가
그대 붉은 잇속에 아이하나 심어주리
멀어진 사랑이여. 지금은 피아노를 치겠지
쇼팽을 두드리며 그대 좋아하던 피카소의 그림속에
난감하게 앉아 있겠구나. 사랑이여
바람에 누운 잔디잎처럼 속절없는 이 가을
나는 이제 말라간다. 살아오면서
내 원죄의 고향 날피하늘에 쉬임없이 눈길 주었듯,
그렇게 마음주려해도 내 사랑이여
단단히 돌아 앉았구나. 입상처럼 굳은 네 마음에
깨알같은 글씨 새기려 하네.
차마 부끄러워 백지 한장으로 보낸다.
어쩌면 마음 풀릴지도 몰라.
약간씩 어깨 들썩이며 어쩌면,
다시 짊어야 할 내 악장 속으로
그대 붉은 잇몸 빠끔히
터져 나올지도 몰라.

합 주

영천여자중학교 교사 조 순 호

태산준령을 따라 산봉으로 휘달리다
일순에 천길 절벽 그 계곡에 떨어지는
한 가락 선율의 떨림에 숨소리도 멈춘다.

가을 밤 호수 속의 달빛으로 흔들리다.
강독을 범람하는 우리같은 큰 물줄기
다시 또 잔잔히 흐르는 지휘자의 눈망울.

곱게 짠 비단폭에 산수화가 펼쳐지면
햇살이 부신 아침 새 소리가 수를 놓을 녀
그 어느 한적한 성전에 수도자가 손 모운다.

엄마 선생님

의성 작승국교 교사 권영호

동이네 담장 너머로 햇님이 쏘옥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참 신나는 날입니다.

동이네 국민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동이는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혼자했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거울 앞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귀까지 뒹긴 머리를 한쪽으로 쓱 빗어 넘겼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자 동이는 멍쩍은 듯 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도 좋으니?”

“응.”

“그래?”

“엄마랑 함께 다니니까 더 좋은 걸.”

동이의 말에 엄마의 가슴이 쩡했습니다.

엄마는 동이가 입학할 바로 그 학교선생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닐 때는 늘 할머니와 함께 가야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동이를 잘 돌봐 주셨지만 엄마보다는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이였습니다.

엄마랑 함께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동이는 선생님인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엄마랑 함께 학교엘 다닐 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웬지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동이는 길위에 튀구는 돌맹이를 툭 차 봅니다. 고무풍선 같은 신바람이 동이를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함께 가니까 학교까지는 무척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동아! 혼자 놀아라. 엄마는 교무실에 가봐야 해.”

“또 혼자야?”

잡았던 동이의 손을 놓고 엄마는 총총걸음으로 교무실로 가버렸습니다.

“엘롱! 니네 엄마 없지?”

유치원에 함께 다녔던 옆집 애영이가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비꼬듯 생
긋 웃어 보였습니다.

운동장에는 엄마랑 함께 온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엄마가 밀어주는 그
네를 타는 아이, 엄마가 옷매무새를 고쳐주고, 엄마가 코를 닦아주는 아
이들을 보니 부럽기만 했습니다. 동이는 그만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엄만 싫어! 나빠!’

이런 생각을 하고나니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룩주룩 흐르는 눈물이 두 볼을 적셨습니다.

잠시 후, 교실 위에 매달린 스피커에서 행진곡이 들리더니 곧 안내 방
송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동이는 그 말이 무언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어머니들이 조례대 앞으로 모였습니다.
얼떨결에 동이도 주춤주춤 걸어갔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께서 이름을 부를 테
니까 크게 대답하고 나옵니다. 알겠지요?”

“네! 네!”

아이들의 대답 소리는 제멋대로였습니다.

“김 해란!”

“예!”

“권 민경!”

“예!”

대답을 마친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는 선생님 앞으로 또르르 달려가
섰습니다.

“김 해동!”

“.....”

“김 해동!”

“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해동이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금방 얼굴이 붉어진 해동이
가 아이들 뒤로 줄지어 섰습니다.

“앞으로 나와요. 김 해동!”

해동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동이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젠 엄마가 동이 선생님이 되었어.”

엄마가 동이의 뺨에 얼룩진 눈물자국을 닦아 주었습니다.

“선생님!”

동이는 이렇게 불러 보았지만 모기만한 소리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뒤로 가서 서 있거라.”

엄마가 등을 밀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엄마가 자꾸만 낯선 다른 사람같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고개만
들면 엄마를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운동장 저편 울타리에서 아지랑이가 하늘 하늘 피어 올랐습니다.

아이들 뒤로 뛰어가 선 동이가 선생님을 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선생님
도 동이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동이의 엄마인 걸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만남

울진 온정중학교 교사 김 영 희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 교실에 올라가니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남아서 - 아니 버스 시간에 맞추기 위한 기다림으로 -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다.

“선생님! 같이 드세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가슴이 아파온다.
내 소중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내가 치러야 했던 홍역과 같은 일들이 스쳐지나 간다.

2년 동안의 발령대기 - 얼마나 나 자신을 무능하고 초라하게 느꼈던가!

교단에 선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온 날은 엄마를 붙잡고 울었다. 웬지 모를 서러움으로 인해 잠 못드는 긴 밤을 경험해야 했었다. ‘언젠가는’ 하는 희망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런데 내게 찾아온 건 <교원 임용 국가 고시>!!!

마지막 버팀돌마저 빠져 버린 듯한 허탈감으로 나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깊은 패배의식과 상실감의 밑바닥을 허덕이고 있는 과친구들과 나. 그리고 이땅의 모든 미발령 교사들은 그 가을내내 - 그 겨울까지 소리치고 싸웠었다. 아니 그건 피맺힌 절규였다. 생존권과 마지막 희망으로 향한...

그리고 난 생일 선물로 국가 고시 응시 원서를 선물받았고 동생이 모든 서류를 처리해 줬으며 친구가 교육학 책을 손에 쥐어주며 격려했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컴퓨터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눈물을 교직책 위로 떨구어야만 했다.

모르리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을 속으로 삼켜야 했는지.

그 누구는 모르리라.

그렇게 어렵게 만난 소중한 나의 아이들...

오늘은 이 아이들의 현실이 나를 울린다. 유난히 결혼 가정이 많은 우리 반 아이들...

어머님 돌아가셨고 아버지 또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방과 후면 염소 먹이고 집안일 또한 도맡아 해야 하는 초.

어릴 때 심장병 수술을 한 스은 홀어머니가 호텔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싫다고, 아버지가 밋다고 일기장 한 구석에 눈물로 얼룩을 만든 스은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다행이다.

“아버진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편찮으신 아버지의 그 말씀에 가슴아파하는 스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하느냐고 물었었다.

모두가 가난하고, 가슴 한 구석 아픔을 지니고 산다.

새벽 6시 첫차로 학교에 오면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에겐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다. 그리고 전전한 놀이도 없다. 피폐해져가는 농촌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부모님들의 한숨을 듣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

하지만 모두 표정이 밝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낡은 의자와 키에 맞지 않은 작은 책상이지만, 작은 일 하나에도 웃음을 아끼지 않고 친구들의 생일, 아픔, 슬픔까지도 같이 나누려 한다.

고맙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담임의 부족한 관심 속에서도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새학기 첫날. 중학교에 첫 걸음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첫담임으로 한 말을 기억할까? -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 세 번을 생각해도 옳은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격체로 자라기를 바란다... 비록 자전거 수리공을 하더라도 자기가 선택하고, 그 삶에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 - 고 했었다. 내 소중한 아이들이 사회인으로 살아갈때에는 부디 진실이, 참사랑이 왜곡되지 않는 세상하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다. 기름 묻은 노동자의 손이 더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길. 아이들의 순박함이, 순수함이, 끝없는 믿음이 깃밟히지 않는 그런 세상.

나의 소중한 아이들아!

모순과 불의에 대해 당당히 나설 줄 알고 타인과 더불어 겸손할 줄 아는 자랑스런 온정인으로 자라다오. 진정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약한 사람을 위해 너희들의 그 주먹을 불끈 질 수 있는 당당한 인격체로 말이다.

그때 그 분 K. Y. T

영천 청통국민학교 교감 南 吉 守

같이 왔다가(赴任) 미리 떠나셨다.

모두들 榮轉시킨 후 막차를 타시겠다던 그분이었는데...

“正直하고 誠實한 者” 대우받아 M께서는 영전하시게 되었지만 끝내 그 謙虛하신 모습은 우리들에게서 쉬이 지워지질 않았다.

“선생님들, 내가 미리 가서 미안합니다.”

간단한 몇 마디만 남겼지만 끝내 아쉬워하는 M의 참뜻과 따스한 情感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전이 당연하시죠.”

“과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오직 師道를 天職으로 알고 그 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묵묵히 獻身하시던 M였습니다.

KYT, 그이는 오래도록 獎學職에 계시다가 〇年 3月, 조그만 시골의 S 학교에 교장으로 첫발을 디뎠다. 學校는 車道에서도 30餘分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는 6學級짜리 작은 학교였었다.

住民들은 典型的인 農村生活로 文化的 수준이 낮아서 子女의 教育은 오직 학교에만 의존하고 있는 實情이었다. 따라서 兒童들의 容儀나 기초 학력은 他校에 比할바가 못 되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心性은 참되고 淳朴하였으며 특히 교재원 관리나 실습지 일에는 매우 익숙해 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끝까지 해내는 끈기와 성실성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란 M의 信念은 S校의 새 教育의 바람을 일으켰다.

곧 어머니 교실이 개척되었다.

“농촌 어린이들의 學力이 低調하다고들 합니다만 학교와 가정이 서로 힘을 합치면 못 이룰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시고 조들리드라도 子女들 앞에서는 言行에 모범을 보여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겠끔 뒷바라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 ….”

이와 같은 M의 至誠과 確固한 信念은 모든 어머니들로부터 共感을 얻었다.

그 후부터는 차츰 兒童들의 학습용구가 갖추어지고 容儀도 端正해지게 되어 갔다.

‘사랑·모범·성실’은 M의 教育者的 哲學이었고, 그 哲學을 바탕으로 한 訓話로 教師나 어린이들에게 많은 感銘을 주었다.

“우리 어린이는 즐겁게 뛰어 놀아야 합니다. 언제나 건강하게요. 그리고 책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아야 하지요. 그래야만 머리가 살찌고 좋은 생각이 어우러져 앞으로 쓸모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셨다.

M室에서의 兒童과의 相談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눈을 크게 뜨라’는 말씀을 곁들여 꿈을 심어 주는데 心血을 기울이셨다.

특히 M의 호주머니 속에는 항상 ‘손톱깎이’가 들어 있었다. 그건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아이들의 손톱을 깎아 주시기 위해서 이었다.

불과 5個月간의 학교장 생활이었던만 찌든 아이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4, 5, 6학년의 미술시간에는 M께서 직접 授業을 하신다. 진도표에 의해 事前 계획을 하시고 준비물도 직접 챙겨서 교실에 들어가 發想부터 構圖, 채색, 감상까지 昭詳하게 指導하셨다. 完成된 兒童作品的 뒷면에는 M의 銜字를 英文字로 表記해 주었다. ‘KYT’가 누구의 무엇인지 어린이는 다알게 되었다.

이와같은 그의 意圖의인 미술지도는 兒童들의 作品을 고루 向上시켰고, N教師의 글짓기 지도와 더불어 아이들의 아름답고 창의적인 心性이 가꾸어졌다. 勿論 對外 行事에서 많은 賞狀도 안게 되었고 이러한 그의 指導力을 누구인들 讚嘆하지 않았으리요?

육성회 회장단이 학교에 찾아왔다. 햇과일과 金福酒를 펼쳐 놓고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이었다. 그러나 M께서는 모든것은 선생님의 勞苦였다고만 하시니 이 또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직원들 역시 푹푹 뭉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선생님들!”

“바쁜 公文 있으면 날 주십시오. 선생님은 학급 아이들이나 잘 지도하시고…”

이러한 말씀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학교 현황판과 行事때의 게시물 作成, 책결상 수리, 교재원 손질, 보결수업, 공문 보고 等 M은 실로 過重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늘 하였다.

때로는 피로한 氣色도 보였지만 教師나 어린이들 앞에서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직원들은 그저 죄스러운 마음 뿐, 어떻게 挽留할 수가 없었다. M의 人格과 至性에 累가 될까봐였다.

“오늘부터는 不進兒를 내 방으로 보내 주세요.”

이것 역시 拒逆할 수 없어서 4, 5, 6학년의 부진아 5명만을 수업후 M室로 보내게 되었다.

손수 문제를 作成하시고 資料까지 만들어 하나 하나 個別지도를 하셨다. 評價後 査점을 하시고는 골몰이 分析까지 하셨다. 계산 영역은 2, 3 週면 도달되었지만 文字 未解得者인 白○○, 鄭○○는 한달 남짓 걸려도 별 效果가 없었다. 늦게야 알았지만 이 두 어린이는 盜癖性이 있는 問題兒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M께서는 善行圖書를 읽어 주시고,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하셨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M室에서의 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M室에서 고함을 지르며 책상은 치는 소리가 들렸다. 달려간 직원들의 눈에는 漫醉한 사나이가 구두를 신은 채로 M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M인가요, 내 자식이 무엇을 잘못 했기에 매일 벌을 세우나… ….”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M은 시종 차분하게 대하면서 對座를 요청했지만 그에겐 莫無可奈였다.

“임마, 집에 돌아가. 빨리 못 가…….”

하며 눈을 부릅 흘치면서 白○○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당장에 주먹이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M의 허탈한 모습 앞에서 그저 울분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K교사가 드디어 입을 열고 말했다.

“그저 시간만 마치면 보내지? 골치 아프게시리 저런 놈한테까지 신경을 써……?”

그러나 조금도 動搖치 않는 M의 자세는 직원들에게 더 큰 奮發을 期待하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도 M室에서의 지도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정말 七顛八起의 기나긴 鬪病이었다.

고요한 校庭에는 몇 잎 남지않은 갈잎이 하나 둘 떨어지며 겨울을 재촉한다.

11月の 어느 날 오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책 읽는 소리가 복도를 굴러 나왔다. 그건 분명히 白과 鄭이 줄줄 책을 읽는 소리였다.

아! M께서 기어코 해내고 말았구나. 그 소문난 問題兒들이 긴 冬眠에서 깨어난듯 신비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M님, 수고했습니다.”

“하면 다 되는 법입니다.”

M과 교사간에 주고받은 인사말이었다.

“白○○, 요즈음 아버지는 어떠시냐?”

“요새는요, 술도 잘 안자시고요 집 일도 잘하세요.”

우리는 M室이 떠나갈 듯이 큰 박수를 쳤다.

벌써 퇴근시간이 지나 회꺼면 장막이 S벌을 가렸다.

칠백 서른 날, 전 직원은 뭉쳐서 말은바 所任을 다하였다. 그것도 보람찬 즐거운 나날이었다. 이는 M의 教育者的 信念과 사랑의 실천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떠났지만 崇高한 뜻은 여기 남아 이젠 우리끼리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과학퀴즈함 설치 운영

漆谷 岐山國民學校

I. 목 적

자연과 학습의 의욕과 흥미를 높여 탐구력 신장과 실험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 퀴즈함을 설치 운영하였다.

II. 과학 퀴즈 학습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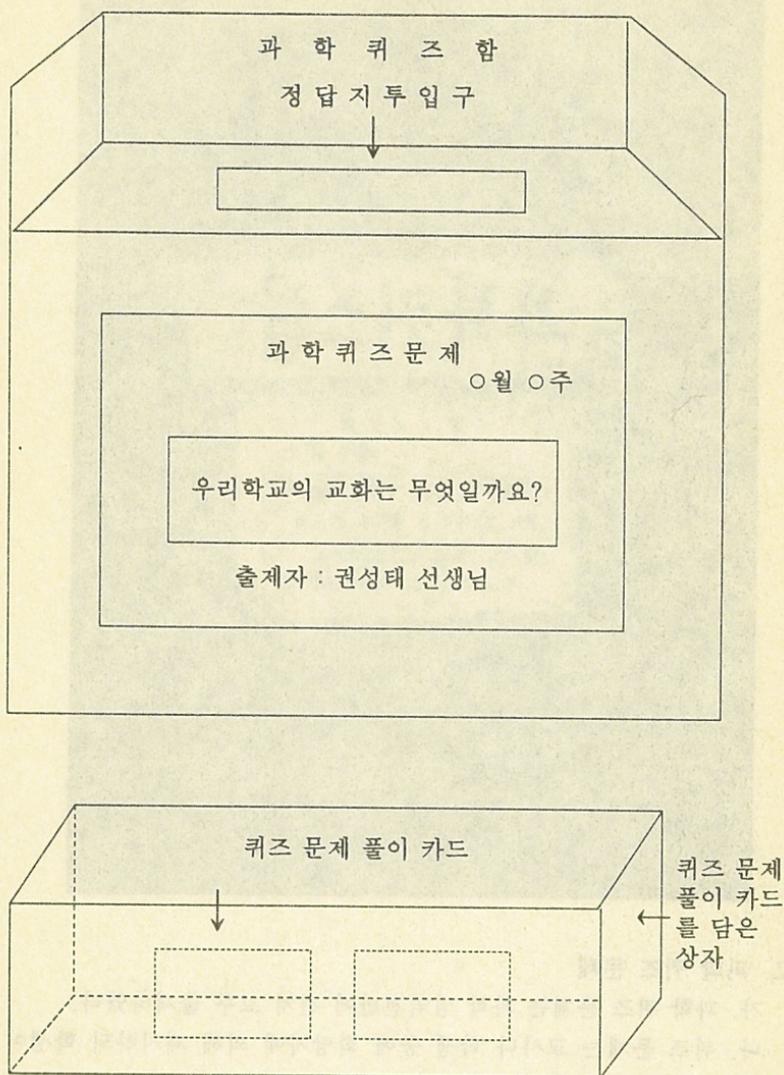
1. 과학 퀴즈함의 설치

가. 과학 퀴즈함을 1층과 2층 복도에 설치하고 퀴즈함 前面 중앙에 문제를 기록 부착할 수 있게 하였다.

나. 과학 퀴즈함은 전교 어린이회장이 관리하고 풀이는 전 학생이 참여토록하였다.

다. 「과학 퀴즈함」 밑에 「퀴즈 문제 풀이 카드」를 담은 상자를 비치하였다.

라. 과학 퀴즈함 및 퀴즈 문제 풀이 카드 상자



<도1> 과학 퀴즈함 퀴즈 문제 풀이 카드 상자

〈과학 퀴즈함〉



2. 과학 퀴즈 문제

- 가. 과학 퀴즈 문제는 과학 영역전반에 걸쳐 고루 출제하였다.
- 나. 퀴즈 문제는 교사나 학생 중에 희망자에 의해 제시하되 학생이 출제하는 교사가 검토후 제시하였다.
- 다. 2주일에 한번씩 월요일에 제시하였다.
- 라. 「과학 퀴즈 문제 카드」에 문제를 기록하여 퀴즈함 前面 증상에 부착하였다.

마. 과학 퀴즈 문제

<표1>

과학 퀴즈 문제

3월	2주	우리 학교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는 무엇일까요?
	4주	우리 학교의 교화와 교목은 무엇일까요?
4월	2주	요즈음 바람에 많이 날리며 물위에 노랗게 뜨는것은?
	4주	나는 다년생 식물로 봄에 새싹이 나며 노란꽃을 피우고 씨앗을 날려 보냅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5월	2주	나는 물속에 살며 머리카락처럼 생겼습니다. 겨울에는 없어졌다가 봄이 되면 살아납니다. 무엇일까요?
	4주	어릴때는 물속에서 살다가 다 자라면 물과 땅 위에서 삽니다. 살아 있는 벌레만 먹는데 나는 무엇일까요?
6월	2주	나는 잎, 뿌리, 줄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4주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새는 타조입니다. 키가 제일 큰 짐승은 무엇일까요?
7월	2주	달팽이는 호흡기관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9월	2주	소나무는 잎이 2개 잎이 5개인 나무는 잣, 오엽송이다. 잎이 3개인 소나무는?
	4주	나는 매뚜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몸이 크고 날개는 조금 더 작습니다. 무엇일까요?

바. 과학 퀴즈 문제 카드

과학 퀴즈 문제

○월 ○주

우리 학교의 교화와 교목은 무엇일까요?

출제자 : 권성태 선생님

<도3>

과학 퀴즈 문제 카드

3. 과학 퀴즈 풀이

가. 과학 퀴즈 문제가 제시되면 과학관계 서적을 보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하고 풀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습 도감」 「백과 사전」 등 참고 도서를 학교 도서실 또는 개인이 보관중인 책을 빌려 학급 문고에 비치해 두었다.

나. 퀴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과학 퀴즈 풀이 카드」에 적어 퀴즈함에 바로 넣게 하여 한 학생이 해답한 것을 다른 학생이 보고 풀이할 수 없게 하였다.

다. 과학 퀴즈 풀이 카드

과학 퀴즈 풀이 카드	
○월 ○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60%; margin: 0 auto; height: 80px;"></div>	
풀이자 : 학년 반 이름	

<도3>

과학 퀴즈 풀이 카드

라. 「과학 퀴즈 문제」와 「과학 퀴즈 풀이 카드」 좌측 상단에 「○란을 표시」 그 안에 일련번호를 적게하여 「과학 퀴즈 문제」와 「과학 퀴즈 풀이 카드」 번호를 확인케하여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였다.

마. 퀴즈함에 2주일 동안 풀이해 넣어둔 해답은 다음 퀴즈 문제 제시 전에 개함하여 먼저 참여한 학생을 찾아내고 다음은 정답을 적은 학생을 찾아 내어 기록 집계하였다.

바. 본교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급적 많은 아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1회 참여점수를 1점, 1회 정답 점수를 3점으로 하여 석달에 한번씩 점수가 최고 많은 아동에게 「퀴즈 박사」라는 칭호와 함께 시상하였으며 3개월 동안 많이 참여한 아동을 모두 「퀴즈 왕」이라 칭하고 시상하였다.

Ⅲ. 성 과

1. 퀴즈 풀이 참가자 수가 매월 조금씩 증가 하였으며 정답자 수도 회를 거듭할 수록 많아졌다.

2. 과학 퀴즈 학습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고조되었고 이로 인해 과학 공부에 관한 흥미와 의욕도 매우 높아졌다.

3. 「과학 퀴즈 문제 풀이」를 하는 동안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자학 자습하는 습관이 점차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제공 : 교사 권성태〉

학문하는 길에는 방법이 따로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잡고 묻는 것이 옳다.

— 박지원

주남벌에 올려피진 傳統의 소리

永川國民學校

전통음악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단소, 대금, 가야금, 피리, 소금, 아쟁등 전통음악을 열심히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공개하였다. 이날 영천국민학교에서는 전통의 멋을 한껏 되살리는 사물놀이의 신들린 리듬에서 가야금 대금의 애끓는 가락으로 주남벌의 넓은 들판을 전통의 소리로 울렸다.

이날이 있기까지 영천국민학교는 50여 교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장구와 단소를 기본 악기를 정하고, 교사의 꾸준한 연수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꾸준한 노력과 지도를 한것이다.

2년간에 걸친 연구학교 운영으로 전교생이 능숙하지는 못하나 우리가 락의 흥겨움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되었고 4학년이상 단소 연주도 전통음악의 흥내는 낼 수 있게 되었다.



教育情報 및 教壇消息

국민교육헌장선포 제24주년 기념 국민교육유공자 표상자

훈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원
국민훈장 목련장	군위·군위동부국민학교	교감	이형백	1명
국민포장	안동·금소국민학교 영천·영천중학교	교사 교사	송병규 김성술	2명
대 통 령 표 창	봉화·봉화국민학교 경산·경산중앙국민학교 울진·울진중학교 영일·영일고등학교 경주·근화여자고등학교 금릉·아포중학교	교사 교사 교사 교감 교감 교사	조동국 김영희 황예곤 박기성 강낙중 권기정	6명
국무총리 표 창	의성·하령국민학교 예천·용원국민학교 울진·삼근국민학교 영일·대송국민학교 예천·지보고등학교 달성·현풍여자고등학교 상주·화령고등학교	교사 교사 교감 교사 교사 교사 교사	윤도식 김병목 장상도 김용희 서성덕 이명식 김대곤	7명
교육부장관 표 창	포항·양학국민학교 경상북도경주교육청	교사 지방행정주사	김수련 강성인	외202명 외26명
교육감 표 창	선산·해평중학교 경상북도교육청	교사 지방행정서기	예덕자 이철연	외197명 외26명
교육부장관 감 사 장	영일군 신광면 토성리	민간인	서수구	외4명
교육감 감 사 장	경산시 대정동 699	민간인	정손봉	외4명

'92 전국현장연구대회 입상자

분과	성명	소속	직위	등급	분과	성명	소속	직위	등급		
도덕	류길하	안동	신성국	교사	1	미술	김종길	영주	영주국	"	1
	권오경	상주	상영국	"	2		김영우	문경	용흥국	"	2
	한귀옥	영일	구룡포국	"	2		박윤화	경주	흥무국	"	2
	박영규	영일	대보국	"	3		정주진	문경	창구국	"	3
	장성필	안동	은혜국	"	3		학교 행정	이순옥	경주	사방국	교감
국어	송병대	경주	황남국	교사	1	이해우		포항	송림국	교사	2
	이완식	경주	건천국	"	1	이희구		문경	용흥국	교감	3
	장성화	안동	서부국	"	2	조병인		경산	남산국	"	3
	이병선	영일	죽북국	"	2	교직 생활	홍완희	봉화	분천국	교감	2
	이일배	의흥	중종고	"	2		이삼식	교령	직동국	"	3
	박해홍	달성	경서중	"	2	외국어	김영기	경산	고교	교사	3
	피종원	상주	낙서국	"	3		실업 가정	유문종	의성	의성공고	교사
이길순	경산	자인국	"	3	김병룡			영덕	영덕국	"	2
이상률	칠곡	자목중	"	3	이명호	봉화		봉화국	"	3	
국사	권영환	포항	항도국	"	2	생활 지도	조인숙	포항	신흥국	교사	1
	권종건	울진	해흥국	"	2		김시오	안동	길안중	"	1
	윤대화	영천	대창동부	"	3		조영두	포항	두호국	"	2
사회	성기환	구미	형곡국	"	1		신호근	포항	대잠국	"	2
	김제국	포항	대해국	"	1		윤병은	의성	금성국	"	2
수학	이종현	의성	춘산국	"	1		최창윤	경주	금성국	"	3
	김성태	달성현	동남부국	"	2	윤병대	문경	부천국	교감	3	
	이복희	칠곡	장곡국	"	2	김진권	울진	삼당국	"	3	
	박지환	경주	황남국	"	2	김동식	포항	상도중	교사	3	
	김명환	봉화	신라국	"	3	이유창	상주	은척상고	"	3	
	안권수	영일	영일국	"	3	이희대	문경	문경고	"	3	
	이종섭	울진	소곡국	"	3	학습 부진아	이홍락	경주	계림국	"	2
과학	성경자	구미	구미국	"	1		송학구	칠곡	복삼국	"	2
	임시우	영일	기계국	"	1		윤봉현	영양	교육청	장학사	2
	이장원	포항	대해국	"	2	도서관 교육	박중한	포항	동부국	교사	2
	김능수	안동	안동국	"	2		유아 교육	김차균	상주	상영국	교사
	권혁모	안동	길안중	"	2	병설유치원		특별 활동	이상현	문경	마성국
박시영	영일	동해국	"	3	이주형	울릉	중교감		2		
체육	황찬호	봉화	소천국	"	1	이동건	경주		신라국	"	3
	정홍조	대구	교대안동부국	"	1	박병철	문경		문경국	교사	3
	장병조	영일	죽장국	"	2	권용세	칠곡		약동국	"	3
	김순교	구미	광평국	"	3	임세빈	영풍		백룡국	"	3
	김원태	점촌	점촌국	"	3	주제	임정수		경북	교육청	장학사
박철수	달성	대평국	"	3							
음악	신단지	경주	흥무국	"	3						
	김종병	달성	구지국	"	3						

제23회 전국교육자료전 입상자

- 전시기간 : 1992년 11월 16일(월)~11월 20일(금)
- 장 소 : 한국교총 특설 전시실

분 야	성 명	소속 및 직위	작 품 명	입상등급
국어·한문	홍홍섭	김천 모암국교 교감	1학년 문자 확인학습 및 자형 쓰기 조작자료	2
국사·사회	김주현	문경 부천국교 교사	지리적 현상탐구를 위한 모형 자료	1
수 학	김익수 김동화	포항항국국교 교사 포항대신국교 "	수·연산의 개념형성을 위한 조작적 놀이자료(1학년 중심)	3
과 학	김만진 권택준	경주동천국교 교사 경주율동국교 "	탐구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가시적 학습 자료	2
	박상오 이덕중	봉화계산중 교사 봉화중 봉성분교 교사	중화적정 및 화학전지 종합실험자료	2
체 육	김명순	영일 곡강국교 교사	습관성 보행각 교정을 위한 바른 걸음 학습자료	3
음 악	최진택 류재철	김천서부국교 교사 금릉중산국교 "	악곡의 이미지 형성 및 기본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3
미 술	오성환	경주내남국교 교사	색채감 형성을 위한 입체 조작 자료	2
외국어	김향미	포항계철서국교 교사	기초 어휘 및 발화력 신장을 위한 국민학교 특활영어 교수-학습자료	1
실업·가정	김천수 이일생	경주공고 교사 " "	전기기기 실습과 기능신장을 위한 유도전동기 실험장치	2
특수·유아	권명희	포항중앙국교 교사	조작적 놀이활동을 통한 기본수개념 형성자료	3
영상자료	천태오	상주 중모중고 교사	담수의 미생물 관찰 VTR자료	1
일반자료	권혁호	울릉저동국교 교사	회화능력 신장을 위한 원격조작 교수-학습자료	2
컴퓨터	이용호 남경오	안동 서선국교 교사 안동 월곡국교 "	컴퓨터 키보드당 기능신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게임형 Software 개발 자료	1

제13회 교원 예능실기대회 입상자명단

문 예

【 금 상 】	김미옥 (안동·영호국교)	오승강 (포항·포항중앙국교)
이현숙 (의성·의성여중)	신영수 (구미·신평국교)	이영희 (울릉·태하국교)
전해원 (포항·대도중)	이재건 (청도·매전중)	김용구 (경주·양북국교)

【 은 상 】	이원락 (경주·감포종교)	김현동 (청도·청도중앙국교)
서운학 (영일·영일여중)	최한유 (경주·장항국교)	조희선 (경주·계림국교)
김문혜 (성주·용암중)	조근일 (점촌·가은국교)	김여선 (안동·풍북국교)
민병미 (성주·대가국교)	박종우 (점촌·점촌국교)	신이룡 (경주·서라벌국교)
서석보 (영천·영천여중)	임병태 (포항·대해국교)	안승덕 (봉화·소천중)
이윤숙 (포항·신흥국교)	우상혁 (선산·예산국교)	남창근 (영천·영천교)

【 동 상 】	차동목 (포항·대신국교)	박은숙 (경주·신라국교)
김중환 (봉화·봉화여중)	김무현 (상주·은척중앙산본교)	최익구 (청송·진보국교)
유익종 (영일·영일여중)	박평우 (포항·대해국교)	윤기명 (경주·월성국교)
송필돈 (영천·영화국교)	장극조 (영주·남산국교)	이선희 (경산·하주국교)
천민혜 (영천·용구국교)	금원섭 (경산·압량국교)	전종대 (경산·무학중)
정경옥 (안동·길안중)	여영희 (고령·개진국교)	김현수 (포항·포항여교)
신종우 (달성·구지중)	최상호 (영주·남산국교)	송익수 (포항·포항여교)
장은주 (안동·길송국교)	안태준 (포항·대해국교)	박종환 (포항·포항교)
이상목 (경주·모화국교)	주국환 (울진·죽변국교)	정정웅 (구미·구미교)

음 악

【 금 상 】		
여병등 (청송·주왕산국)	김형식 (고령·고령중)	성환이 (포항·포항교)

【 은 상 】		
손항숙 (안동·안동여중)	김성희 (구미·송정여중)	권동순 (달성·현풍국)
	서득은 (구미·구미국교)	임종표 (달성·달서교)

【 동 상 】		
박철수 (군위·산성중)	최대섭 (영주·영주남산국)	박봉상 (경주·감포국교)
이성규 (영일·문덕국교)	박경준 (울진·후포국교)	남상익 (포항·죽도국교)
	이재양 (달성·현풍국교)	하화정 (포항·포항제철서국)

미 술

【금 상】 박기욱 (의성·의성공교)	안창표 (달성·가창중) 박국현 (구미·동국여교)	서상원 (영천·영천중)
【은 상】 최재숙 (포항·청림국교) 김시숙 (안동·안동국교)	최병석 (포항·상대국교) 김영배 (김천·김천모암국교) 남명자 (안동·대구교대안동부교)	박등문 (점촌·호계중) 김창진 (김천·양각국교) 김정혜 (달성·가창국교)
【동 상】 남현숙 (경산·경산하양국교) 박순덕 (영일·오천국교) 박희자 (구미·광평국교) 차윤진 (청송·월정국교)	서현수 (점촌·가은국교) 류윤경 (영주·남산국교) 최병인 (영일·홍해국교) 박명숙 (의성·단촌국교) 김치영 (김천·성의종교)	권영옥 (포항·환호여중) 박경순 (달성·현풍국교) 김진석 (영일·장기국교)

서 예

【금 상】 최방미 (청도·이서국교) 송은주 (경산·하양국교)	이경수 (김천·어모중) 윤태원 (구미·비산국교) 박보영 (김천·김천서부국교)	정인순 (영주·영주동부국교) 장영학 (영주·소수중) 김영길 (봉화·봉화고)
【은 상】 남외숙 (구미·산동국교) 김창길 (영일·자명국교) 류경기 (달성·용계국교) 차기운 (경주·명예국교) 예미경 (구미·구미상교)	김재근 (경산·계당국교) 금덕희 (고령·성산국교) 우중근 (문경·문경서중) 김영옥 (상주·공검중) 이흥수 (영주·영주동부국) 권기흠 (청송·시랑국교)	정창원 (경주·동천국교) 황재갑 (영주·영주중) 김대용 (안동·안양국교) 황정근 (경주·서라벌여중)
【동 상】 윤위철 (경주·황남국교) 김기찬 (영천·화남국교) 권세환 (울진·기성국교) 권오갑 (칠곡·송산국교) 임병목 (영천·영화국교) 심경희 (안동·영남국교) 주윤술 (경산·압량국교)	장명숙 (의성·의성국교) 이영진 (구미·송정국교) 차재화 (달성·금포국교) 노순희 (구미·구미국교) 류혜영 (구미·구미상교) 박원제 (김천·연화국교) 강진철 (영천·영천국교) 김창선 (안동·구수국교)	정옥영 (예천·지보중) 이일우 (예천·예천여중) 박병철 (경산·진량고) 문재학 (칠곡·다부국교) 윤세중 (안동·송현국교) 김동희 (안동·안동용상국교) 권용국 (경주·황남국교) 유문식 (칠곡·연화국교)

편집후기

또 해가 바뀌는 길목에 서니, 多事했던 한해의 발자취가 새삼 되돌아 보여 집니다.

더우기 올해는 우리 國民의 選擇으로 새時代 創造의 大役事를 이룬 해였기에 우리 모두의 感懷가 컸으리라 믿어집니다.

教育慶北誌는 3萬 慶北教育家族들의 뜻을 받들어 教育問題의 探索者, 教育發展의 促進者, 教育現場의 奉仕者로서의 使命感으로 生動感 넘치는 現場의 教育活動을 함께 하고자 이번 101호도 統一을 對備하는 教育을 特輯으로 꾸몄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念願인 統一을 앞당기는 教育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에서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우리들의 작은 努力들이 하나로 모여져, 統一의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할 따름입니다.

癸酉年 새해에도 慶北教育家族에게 萬福이 나리소서…….

— 慶 —

교육경북 제101호

1992. 12. 20 인 쇄
1992. 12. 30 발 행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金 胄 顯

편집인: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金 仁 楫

편집실무: 경상북도교육청 崔 羽 燮
공보담당관

경북교육연구원 權 慶 姬
교사연수실장

인 쇄: 公信印刷所 ☎ 254 - 0002
(등록번호 제 대구 1-204호)

<교육부 승인필 25-다 16-2>